

嶺南文化財研究

8



1998. 5

社團
法人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표지原字〉

朝鮮 中宗 壬申刊本 『三國史記』에서 集字

嶺南文化財研究

第 8 輯

1998. 5

【論考】

- 林堂土城에 대하여.....李在興·金才喆 5
- 古代土城의 築造技法에 대한 약간의 검토 -
- 大邱 八達洞 靑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 俞炳珠 33

【遺蹟調查概報】

- 昌原 盤溪洞 聚落遺蹟 調查豫報 崔憲燮 67

林堂土城에 대하여

- 古代土城의 築造技法에 대한 약간의 검토 -

李在興* · 金才喆**

〈 목 차 〉

I. 머리말	4. 築城年代
II. 林堂土城의 調査內容	III. 古代土城의 築造方式에 대한 小考
1. 立地와 平面形態 · 規模	1. 資料의 檢討
2. 築城方式과 城壁	2. 屬性의 分類 및 檢討
3. 遺物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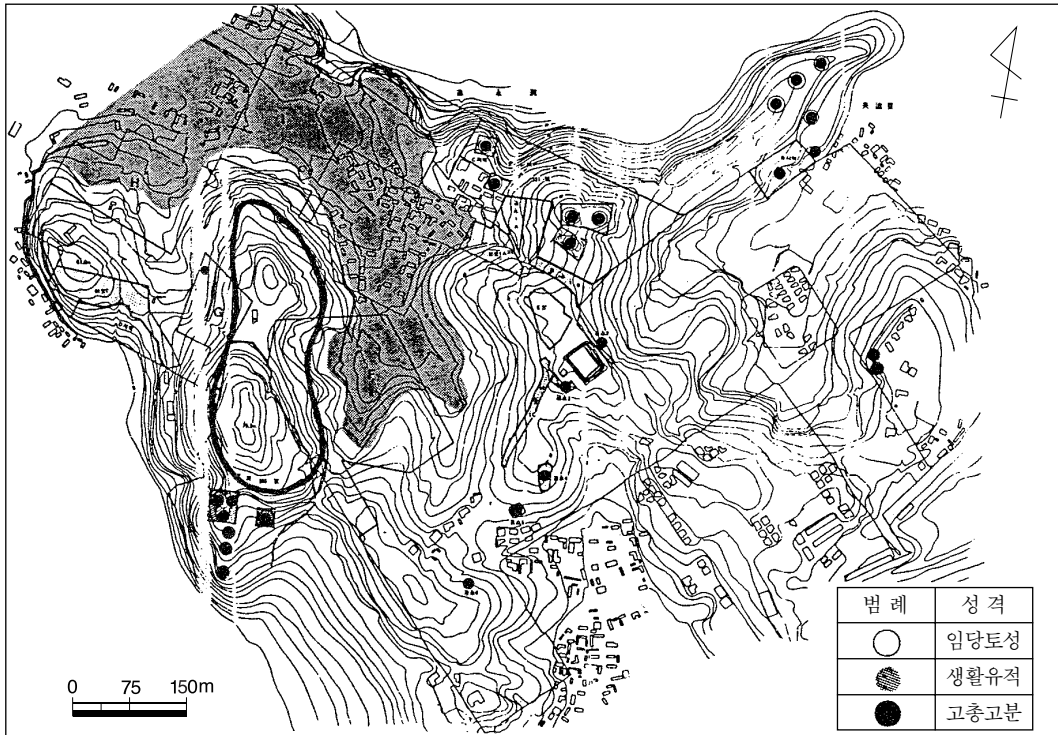
I. 머리말

임당유적¹⁾은 초기 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친 분묘와 주거지들이 밀집분포하고 있어 일찍부터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끈 유적이다. 그리고 금번 임당 G지구 잔존분에 대한 발굴조사

* ·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 權彝九 · 梁道榮 · 金龍星 · 姜裕信 · 金上益, 1991, 『慶山林堂地域古墳群 I』, 嶺南大學校博物館; 權彝九 · 梁道榮 · 金龍星 · 姜裕信 · 金上益, 1993, 『林堂遺蹟試掘調査報告書』, 嶺南大學 校博物館; 鄭永和 · 金龍星 · 具滋奉 · 張容碩, 1994, 『慶山林堂地域古墳群 II-造永E III-8號墳 外』, 嶺南大學校博物館; 장용석 · 권태용 · 유경원, 1996, 『慶山林堂遺蹟發掘調査概報』, 제3회 조사연구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6, 『현장설명회자료7, 慶山林堂遺蹟發掘調査-F·G·H·I地區』; 장용석 · 권태용 · 유경원, 1996, 『慶山林堂遺蹟G地區發掘調査概報』, 제5회조사연구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金洙男, 1997, 『慶山 林堂遺蹟 A-1 · II 地區發掘調査』, 제6회조사연구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7, 『현장설명회자료10, 慶山林堂遺蹟發掘調査-I地區』;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7, 『현장설명회자료11, 慶山林堂低濕地遺蹟發掘調査』.

결과 토성의 실체가 확인되어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물론 좁은 범위 내의 제한적 조사이지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F지구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결과와 함께 본다면 미흡하지만 그 내용을 어느정도 규명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임당유적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검토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영남지역에서 조사가 드문 토성유적이라는 점에서 임당유적의 가치는 더욱 크다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많은 부분을 임당토성의 자료소개에 할애하였고 이후에는 토성의 조사과정에서 검토해 보았던 고대 토성들의 축조방법중 성벽축조 방식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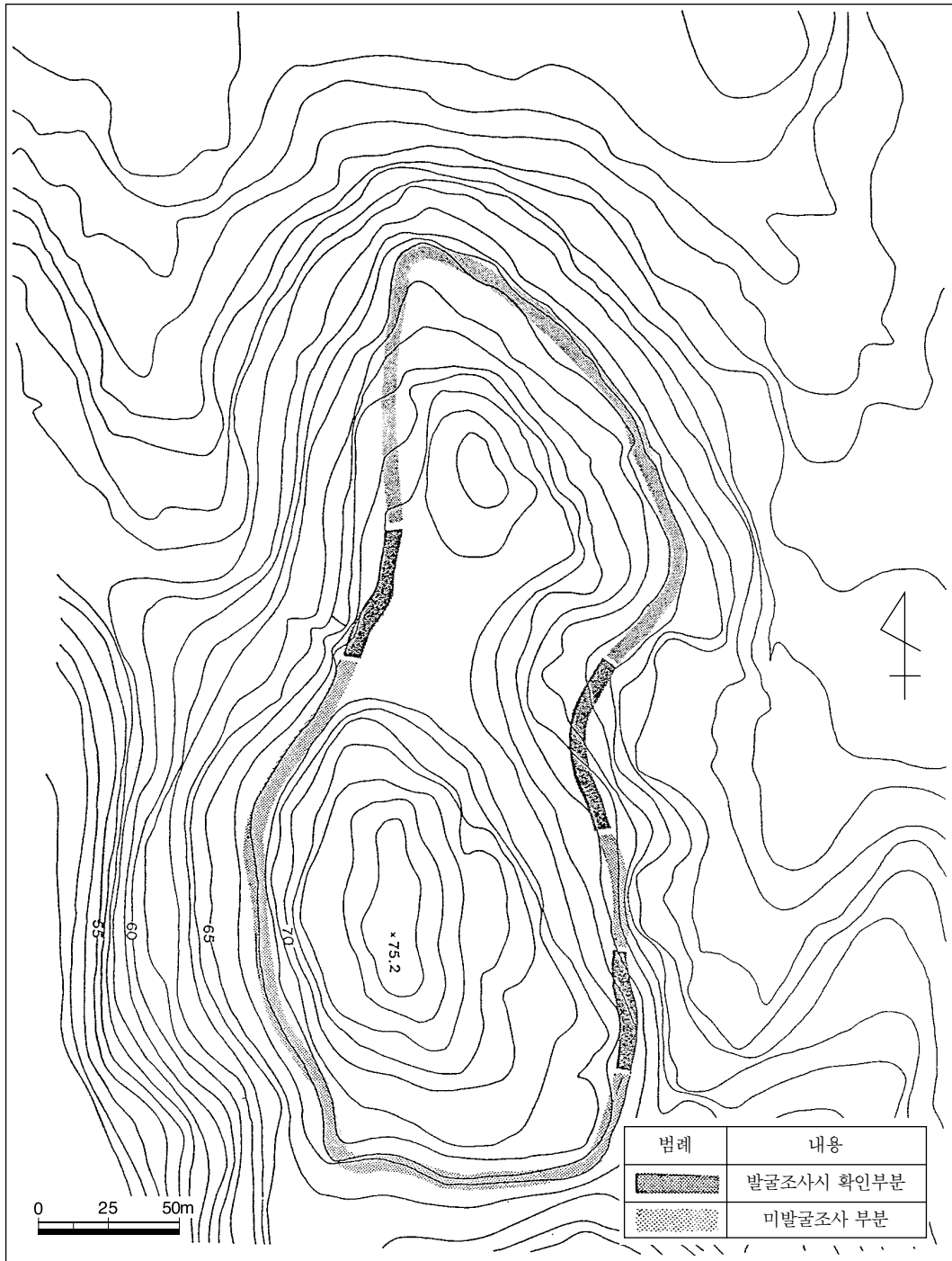
〈도 1〉 임당지역 지형 및 고분분포도

2)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판축단위, 축성구간단위, 판축구간 등으로 대부분 연구자 및 보고자는 판축단위, 축성구간 등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비슷한 용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의미는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판축단위 : 판축을 이루는 최소 단위 즉 판축의 한층.

판축구간단위 : 판축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판축외틀의 단위로 이러한 판축외틀물은 영정주 및 영정주열, 칸막이 등이 있다.

축성구간단위 : 판축구간보다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토성축조의 구간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삭토법, 보축법이 서로 혼용해서 축조하는 경우.



〈도 2〉 임당토성 범위도

점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 토성들은 판축법을 이용해 성벽을 축조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영정주간거리, 판축구간단위²⁾, 기저부석축열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토성축조방법의 발전을 의미하지만 그 안에는 지역적 차이와 시기적 차이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당토성의 소개와 함께 고대 토성의 축조방식을 분류하고 이를 검토하여 그 의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林堂土城의 調查內容

1. 立地와 平面形態·規模

토성의 위치는 사적 300호가 위치한 능선의 북쪽능선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561-1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토성이 위치한 능선은 임당 G지구와 F지구, I지구 사이의 중심부분에 해당하는 소구릉으로 주변의 평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해발 75~60m 정도로 정상부에는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고 사면도 매우 완만한 편이다. 이러한 지세를 활용한다면 주변지역을 두루 조망할 수 있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도 유리할 뿐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기도 매우 용이한 위치임을 알 수 있다. 토성은 이러한 능선의 해발 64~60m 부근에 성벽을 축조해 남북으로 최대길이를 가지는 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규모는 대략 남북 350m, 동서 120m 정도이다³⁾.

2. 築城方式과 城壁

임당토성은 먼저 성벽이 설치될 구지표를 정지한 후 소토가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로 깔고 다져 기저부를 구축한 후 설치될 일정구간별로 영정주를 좌우대칭으로 설치하여 그 내부부터 판축을 이용해 성벽중앙부를 축성한다. 그리고 성벽의 외측과 내측에 덧붙여 판축함으로써 외

3) 토성의 규모는 발굴조사된 G지구와 F지구의 조사결과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인데 토성은 현재 과수원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정확한 형체를 가늠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문지와 같은 주요시설은 현재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F지구와 G지구 발굴조사결과와 주변지표조사를 통해 성벽의 위치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G지구의 경우 발굴조사된 성벽의 길이는 현재 65m 정도이고 F지구의 경우는 후대 삭평이 심해 성벽은 남아 있지 않지만 토성축조시 사용한 영정주의 흔적이 130m 정도 남아 있고 유실부분을 감안하면 잔존 성벽의 길이는 180여m로 추정된다. 발굴조사된 부분 이외 부분의 경우, 토성의 북쪽부분은 개발에 의해 훼손되었고 남쪽 일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로 사실상 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사적 300호 이북의 구릉에 고도 60~64m 정도 부근에서 성벽이 축조된 것으로 보여진다. 성의 전체 둘레는 950여m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현재 장축최대길이는 350m, 동서길이 120m 정도이다.

벽과 내벽을 만들었다. 이러한 축성방식은 B2·B5 토층도에서 잘 관찰되고 있다.

1) 基底部

임당토성은 성벽이 축조될 구지표면의 구릉 경사를 이용해 약 15° 정도 비스듬하게 정지한 다음 소토와 숯이 포함된 두께 15cm 정도의 흑갈색 점토를 이용해 기저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흑갈색 점토의 범위 즉 기저부의 범위는 외벽쪽과 내벽쪽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벽이 설치될 구간에서는 구지표를 정지한 후 모두 일정한 범위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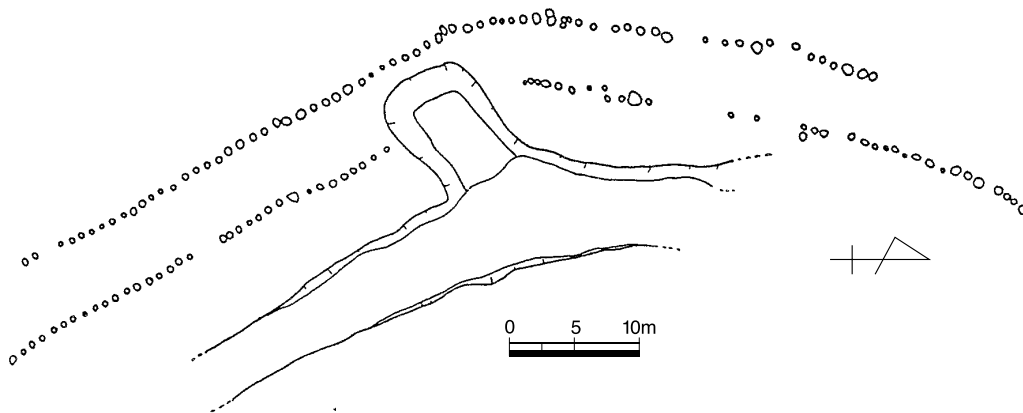
2) 城壁中央部

기저를 설치한 후 지름 50~30cm 의 주혈을 판 후에 지름 25cm 정도의 영정주를 폭 4.5m로 두줄로 세우고 그 내부에 판축법을 이용하여 흑갈색 사질토와 황갈색 사질토, 암반부스러기를 교대로 쌓아 올렸다. 판축의 단위는 구간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두께 15~30cm, 길이 2~2.5m 정도로 일정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성벽축성에 사용한 흙에 있어서도 구간별로 큰 차이점이 보이고 있다. 주로 조사구역의 남쪽구간에서는 흑갈색 사질토, 갈색 사질점토, 풍화암반부스러기 등을 이용해 축성하였으나 북쪽구간에서는 갈색 사질점토 등은 사용되고 있으나 풍화암반부스러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뒤에 다시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판축에 이용된 흙의 차이는 토성 축조시 전구간에 걸쳐 동시에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구간 구간별로 축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된다.

3) 內壁과 外壁

성벽중앙부를 축조하면서 함께 그 좌우부분에 덧대어 판축함으로써 외벽과 내벽을 축조하였다. 판축은 황갈색 사질점토, 흑갈색 사질점토, 암반부스러기 등을 이용해 교대로 쌓아 올렸으



〈도 3〉 임당 F지구 영정주 배치도

며 위로 올라가면서 판축을 축소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성벽 안쪽으로 갈수록 비스듬하게 만들었다. 규모는 외벽은 폭 2m 내외이고 내벽은 폭 1.5m 내외이다. 외벽부분에서는 영정주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있지만 내벽부분에서는 일부 영정주의 흔적이 확인된다. 영정주혈은 지름 30cm 내외, 깊이 10~30cm 정도로, 성벽중앙부의 영정주에 비해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며 영정주간 간격은 60cm 내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벽의 영정주에서는 주혈내부에서 6C代로 생각되는 도질토기편이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토성의 축조시기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6C경에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성벽 내벽부분에서는 10~20cm 크기의 천석을 성벽중앙부쪽으로 비스듬하게 쌓아올려 성벽의 유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적석시설도 관찰된다.

4) 永定柱와 土城築造區間

임당토성의 성벽중앙부에서 확인되는 영정주혈은 그 규모가 큰 것은 지름이 50~80cm 내외, 작은 것은 30~40cm 내외이고, 깊이는 깊은 것은 40cm 정도 되는 것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20~30cm 내외이며 10cm 내외인 것도 있다. 평면형태는 거의 원형이며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도 있다. 주혈내부토는 흑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으며 주혈단면에서 영정주의 흔적이 보이는 것도 일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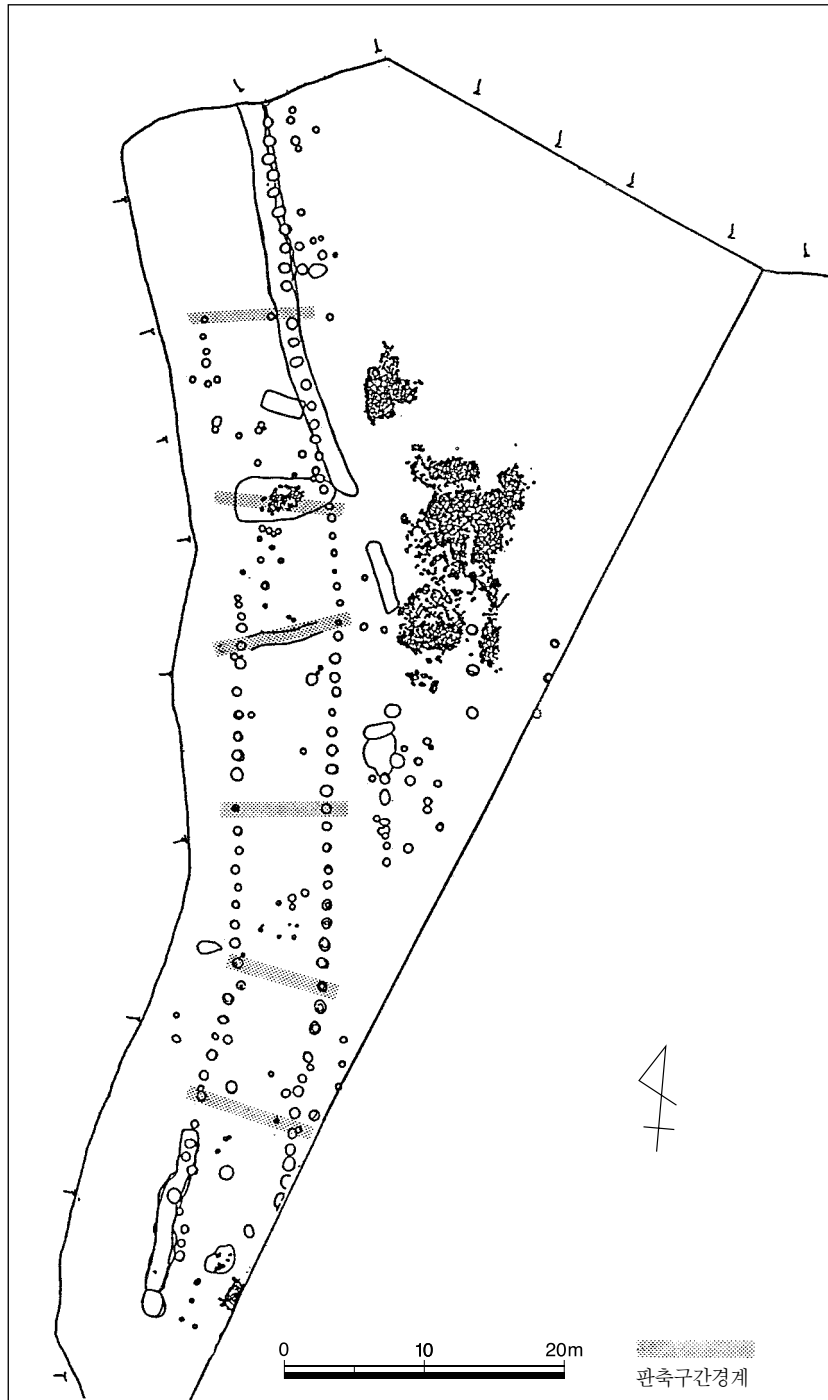
임당토성에 사용된 영정주에 대해서는 영정주혈내부에서 일부 그 흔적이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조사시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성벽토층도에서 영정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잔존길이가 약 80cm, 지름이 약 25cm 정도로 영정주혈에서 확인된 영정주의 흔적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지름이 20~25cm 정도이다. 또한 영정주를 세움에 있어 주혈의 중앙에 세우기보다는 한쪽 가장자리에 치우쳐 세운 흔적이 주혈단면에서 쉽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것은 성벽을 축조함에 있어 보다 견고한 영정주를 설치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영정주의 배치형태는 주혈상호간에는 약 50~80cm의 간격을 가지고, 주혈열간의 간격은 약 4.5m 내외로써 2열로 나란히 마주보게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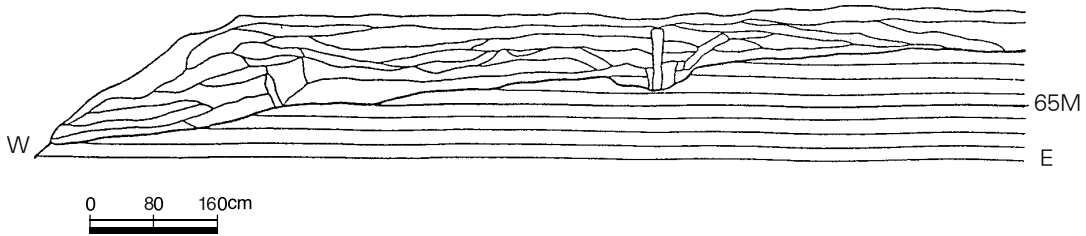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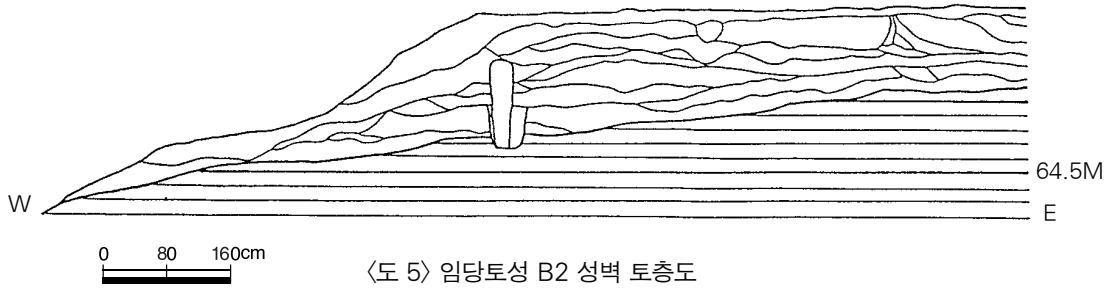
발굴조사시 토성의 횡단면 토층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축구간단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여러가지 자료에서 토성의 판축구간단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영정주혈의 방향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약 7~10m 단위로 영정주혈의 배치열이 방향을 크게 달리한다는 점이다.

둘째, 영정주혈의 배치열이 일정간격으로 방향을 달리하면서 동일방향의 배치형태를 나타내는 주혈들내에서는 그 규모가 거의 동일한데 비해 방향을 달리하는 주혈들과는 지름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동일구간내에 위치한 주혈들은 모두 같은 깊이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구간과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도 4〉 임당 G지구 영정주 배치도



세째, 앞에서 일부 언급되었는데, 영정주혈의 배치열이 방향을 달리하는 지점에서 성벽중앙부 축조에 사용한 재료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성벽중앙부 축조에 있어 남쪽부분에서는 성벽의 한층을 형성하는 풍화암반부스러기층이 북쪽구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째, 영정주혈의 배치열이 방향을 달리하고 성벽중앙부 축조시 사용한 토양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에 일종의 칸막이(?) 시설이 부분적으로나마 확인되었다. 잔존길이 약 350cm, 폭 60cm, 잔존깊이 10cm 정도의 평면형태가 溝와 비슷하며 내부토는 흑갈색 사질점토로 1기만 확인되었다.

따라서 영정주혈이 약 7~10m 단위로 그 방향성을 달리하면서 그 규모의 차이를 가지고, 성벽중앙부 축조에 사용된 재료의 차이와 함께 축조구간에 따른 구분표시를 위한 시설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해서 볼 때 임당토성은 일정한 축성구간을 가진 계획적으로 축조된 성이라 할 수 있겠다.

5) 土取場

토성과 약 4m 정도 떨어져 폭 3m, 깊이 2.5m로 생토면까지 파여져 있는 일종의 溝가 확인

4) 형태면에서 溝와 비슷한 형태의 유구라는 점일 뿐, 溝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溝와 대해서 서로 혼용하기 쉬운데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리구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溝: 주로 방어 기능보다는 배수나 경계표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모가 작다. 대체로 폭 5m 이하, 깊이 2m 이하를 말한다.

되고 있다. 이러한 溝는 G지구는 물론 F지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F지구의 경우에는 溝가 아닌 토성앞면에 ‘ㄱ’字形으로 단을 지게 한 시설도 溝⁴⁾와 함께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溝는 토성의 외곽 전방에 토성을 에워싸면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일정부분에서는 규격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체를 일률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필요부분에서만 한해서 부분부분 설치될 가능성도 있는 듯하다. 그러면 이러한 溝의 성격인데 垓字 또는 溝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토성축조시 필요한 판축용 흙을 조달하기 위한 토취장⁵⁾이라 생각한다. 토성 외곽에 부분을 삭토나 구상형태로 파내려서 판축용 흙을 조달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토성외곽이 더 낮게되고 구상형태의 구조물이 생기므로 토성의 방어력은 한층 강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자와 같이 토성의 방어력을 증대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역할도 있었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판축용 흙의 채취가 목적이므로 토취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조사자들은 G지구의 경우 G지구 고분군의 묘역의 경계표시로, F지구의 경우는 F지구 주거지군을 감싸고 있는 溝로 보고 있다.⁶⁾

3. 遺物

임당토성의 발굴성과중에 하나로 정확한 축성시기를 알 수 있는 많은 양의 토기자료 확보이다. 일부 토성축조시 의례행위에 의해 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토되는 유물들은 대부분 편들이며 모두 성벽을 축성하는 도중에 판축토와 축성토에 포함되어 같이 들어간 토기편들이다. 출토위치별로는 영정주와 성벽중앙부, 내벽과 외벽 등의 성벽부분과 성벽 이외의 출토유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유물의 내용과 출토위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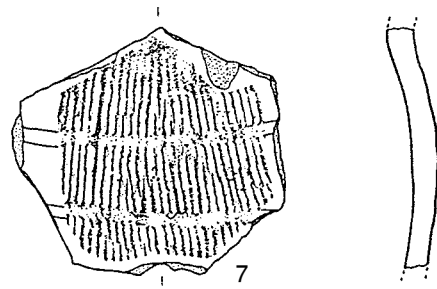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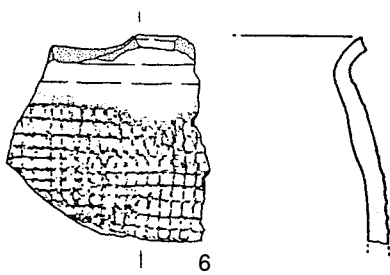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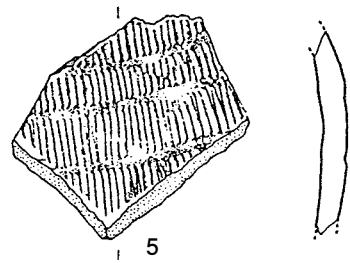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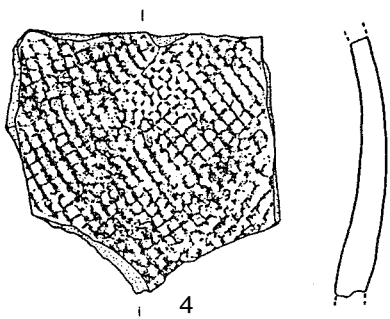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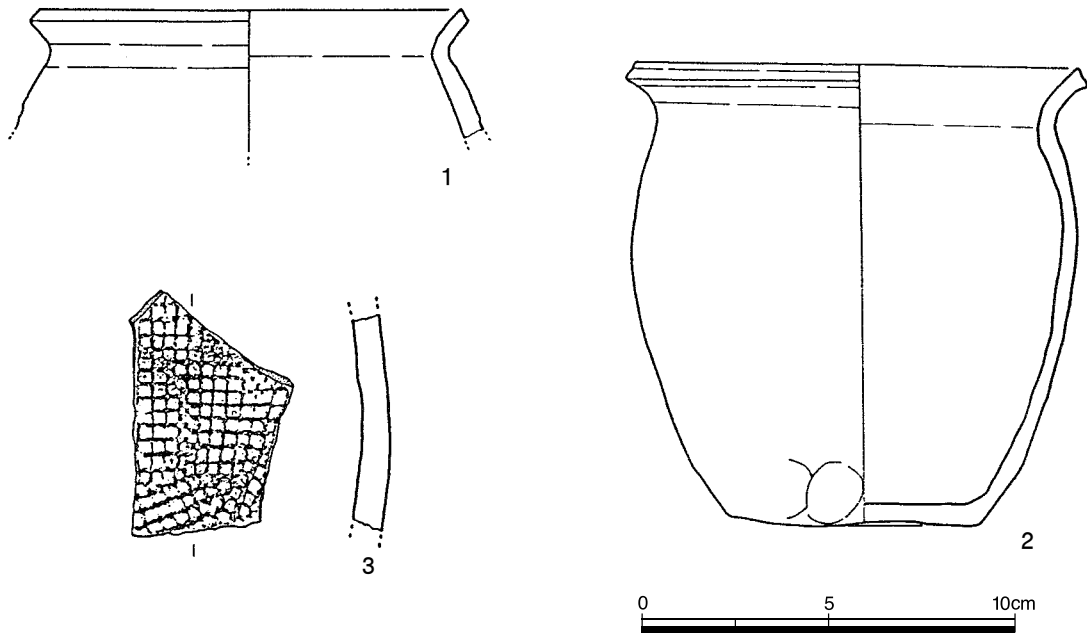
도면 번호	설 명	규 격(cm)
7-1	와질, 구연부와 동상부 일부 잔존, 도상복원, 동체전면에 격자타날후 구연부 회전물손질, 소성상태양호, 태토:정선된 점토에 장식소량혼입, 내·외면:회백색, 심:오렌지색, 성벽중앙부출토	잔존고:3.5 추정복원구경:11.6
7-2	연질, 옹 완형, 평저, 부분적으로 동체 결실, 동체전면에 목리조정후 회전물손질, 저부에 지두흔 관찰 태토:점토, 내·외 심:적갈색, 성벽중앙부 출토	고:12 구경:11.5 저경:7
7-3	도질, 동체부편, 전면에 격자타날, 소성양호 태토:정선된 점토에 소량의 장식혼입 내·외면:청회색, 심:적갈색, 영정주내 출토	

垓字: 배수의 기능보다는 주로 방어기능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모가 대체로 크다. 폭 5m이상, 깊이 1.5m 이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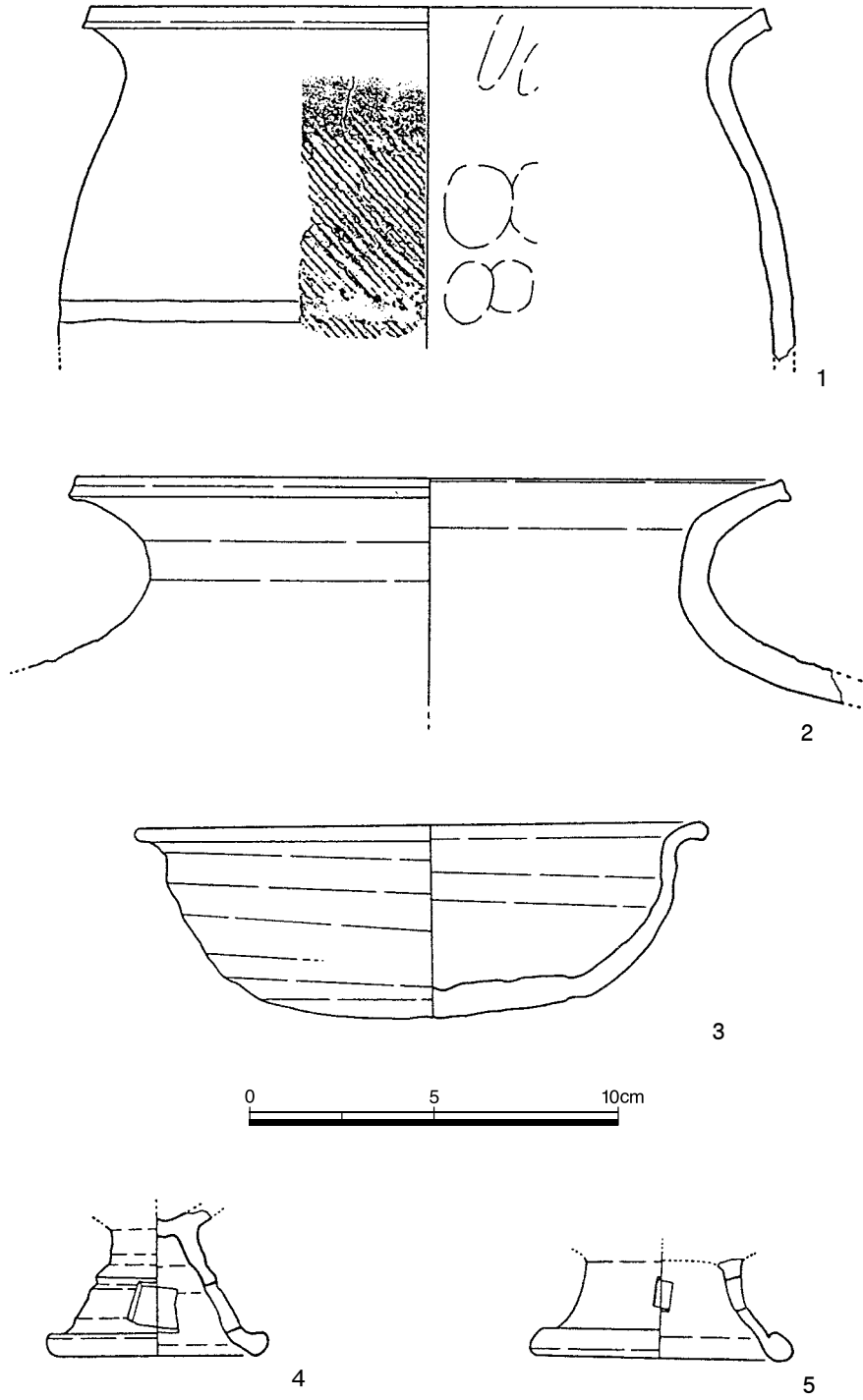
5) 토성에서 이러한 토취장의 조사예는 蔚州華山里城址에서 확인된 예가 있다.

沈奉謹, 1990, 『蔚州華山里城址』, 東亞大學校博物館.

6) 장용석 · 권태용 · 유경원, 1996, 『慶州林堂遺蹟G地區發掘調查概報』 제5회 조사연구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도 7〉 임당토성벽내 출토유물



〈도 8〉 임당토성벽내 출토유물(1·2), 토성내 출토유물(3~5)

도면 번호	설 명	규격(cm)
7-4	와질, 동체부편, 전면에 격자타날, 소성양호 태토:정선된 점토에 장석이 소량 혼입 내·외면:흑회색, 심:황적색, 성벽중앙부 출토	
7-5	와질, 동체부편, 전면에 평행타날을 수직으로 친 후 3조의 침선을 동부에 돌림, 소성양호, 태토:정선된 점토, 내면:회백색, 외면:청회색, 심:청회색, 성벽중앙부 출토	
7-6	와질, 용, 구연부와 동상부 일부 잔존, 동체전면에 격자타날 후 구연부에 회전물손질, 소성양호, 태토:정선된 점토에 석영과 장식 일부 혼입, 내·외심:회색, 성벽중앙부 출토	
7-7	와질, 동상부편, 동체전면에 평행타날을 수직으로 친 후 2조의 침선을 돌림, 소성양호, 태토:정선된 점토에 석영과 장석이 소량 혼입, 내·외심:회백색, 성벽중앙부 출토	
8-1	연질, 용, 구연부와 동상부에 일부 잔존, 동상복원, 동체전면에 타날 후 동중앙부에서 1조의 횡침선 효과를 냄, 내면에서도 내박자흔 관찰,소성양호, 태토:정선된 점토에 석영과 장식·운모 다량혼입, 성벽중앙부출토	잔존고:9.1 추정구경: 18.6
8-2	도질, 추정단경호, 구연부와 동상부 일부 잔존, 도상복원, 동전면에 격자타날 후 구연부 회전물손질, 소성양호, 태토:정선된 점토에 장석이 소량혼입, 성벽기저부 출토	잔존고:6 추정복원구경 :19
8-3	연질, 완, 구연부와 동상부 일부 결실, 도상복원, 회전물손질, 소성불량, 태토:점토에 다량 사립혼입, 내·외심 적갈색, 토성내부 후대 퇴적층출토	고:5.2 구경:15.1 저경:8.7
8-4	도질, 대각편, 각 중앙에 1조의 침선과 하방의 방형투창 2개, 태토:점토에 소량의 사립혼입, 내·외심 회백색, 토성내부 후대 퇴적층출토	잔고:4.0 각저경:5
8-5	도질, 대각편, 대각중앙 방형 투창 2개, 태토:정선된 점토에 극소량의 사립혼입, 내·외심:회백색, 내·외심:청회색, 토성내부 후대 퇴적층 출토	잔고:2.7 각저경:7.1

4. 築城年代⁷⁾

영정주와 성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세부적인 출토위치에 따라 구별되지만 시기적으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일부 후대 보수·개축부분을 제외하고는 성벽의 초축 부분과 성벽부분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축조됨을 시사한다. 영정주 및 성벽중앙부에서 출토되

7) 편년은 아래의 논문들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申敬澈, 1992, 「金海 禮安里 160號墳에 대하여」 『伽耶考古學論叢 I』, 伽耶文化研究所; 安在皓, 1993, 「IV 考察」 『金海 禮安里古墳群』, 釜山大學校博物館.

는 유물은 고식도질의 격자타날문호, 승석타날문단경호, 단경호, 평저적갈색연질옹 등이 출토되는 있는 점으로 4C 초반 유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토성의 축성연대는 4C 중반에 축성한 토성으로 판단된다⁸⁾. 그리고 토성 내부 후대 퇴적층에서는 단각화된 고배가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존속사용시기는 4C 중반~6C대 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대는 임당유적⁹⁾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저습지·수혈주거지군, 주위의 고층고분 및 분묘군과 일치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임당토성이 임당유적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여기에 후술하겠지만 토성축조형식에 따른 구조적인 측면도 몽촌토성, 순지리토성, 부소산성(백제) 등과 같은 초기형식의 토성과 동일한 축조법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 토성의 축조연대를 감안한다면 본 임당토성은 4C 중반~6C 초반까지 존속 사용한 토성이라 판단된다.

Ⅲ. 古代土城의 築造方式에 대한 小考

본장에서는 현재까지 발굴조사되어 보고된 토성유적을 대상으로 해서 성벽부분에 한정된 축조수법의 검토를 통해 고대토성의 축조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축조방식의 검토에는 영정주의 크기, 영정주간 거리, 기저부와 기단부석열의 유무, 판축구간단위 등의 개별축성들이 성벽부분의 축성방식을 살펴보는데 매우 유효하다고 보고 이들의 축성 분석¹⁰⁾을 통해 토성의 축조방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자료근접법은 토성의 축조방식을 성벽부분에만 한정시켜 성의 평면양상, 문지와 수구지 같은 부속시설 등의 주요한 문제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지만 토성의 가장 요체인 성벽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검토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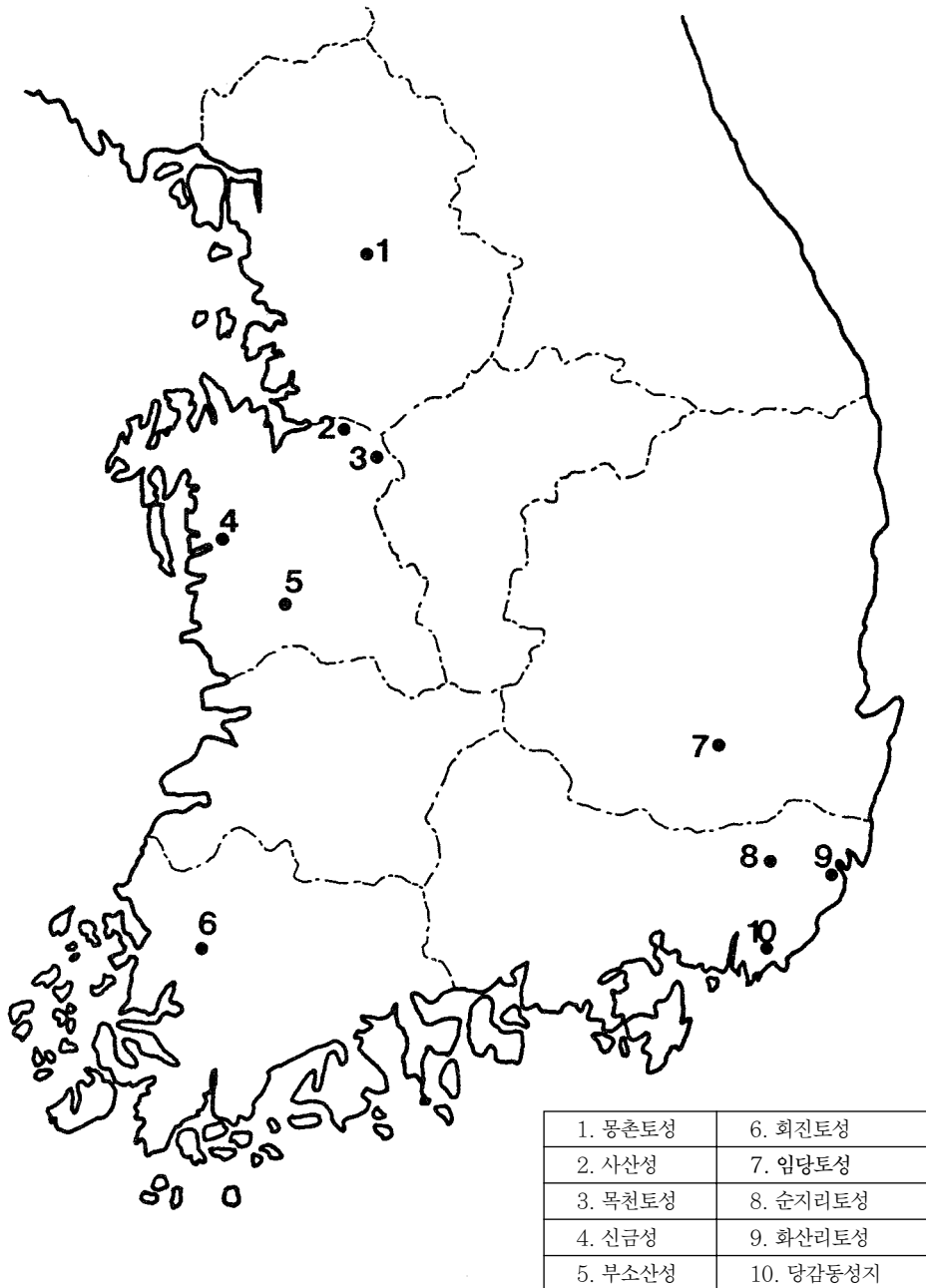
8) 동일층내에 포함된 유물의 연대는 그 층의 절대적인 연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유물의 제작연대이므로, 편년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충서적인 편년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李熙濬, 1986, 「相對年代決定法の 綜合考察」 『嶺南考古學』 2, 嶺南考古學會, 10쪽; 郭鍾喆, 1988, 「編年表作成을 위한 방법적 사례정리」 『古代研究 I』, 古代研究會.

그렇다면 출토되는 유물의 최하한 유물을 기준으로 하여 토성 유물의 중심연대는 4C 초반이므로 토성의 축조연대는 최소한 4C 중반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유물들이 제 작과 동시에 토성 성벽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유물들은 대부분 토성축조시 판축토에 포함되어진 유물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기에는 매우 희박하다 본다. 따라서 4C 중반 이후에 토성이 축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 주 1)의 前揭書.

10) 郭鍾喆, 주 8)의 前揭書.



〈도 9〉 검토 대상 토성 위치도

먼저 발굴조사된 토성들의 사례를 성벽축조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기본적으로 보고자의 보고내용을 존중했으며 다만 본인과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편년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적·시기적으로 폭넓은 자료일 뿐만아니라 발표자의 학문적 역량이 이에 못미쳐 보고자들 연대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렇지만 인용한 보고자들의 편년관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보고자들이 초축부분 및 성벽부분에서 수습된 유물을 이용해 편년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성벽부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성의 내부시설 또는 유구나 이와 관련된 유구에서 수습된 유물을 중심으로 편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사지리적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년방법은 성벽부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매우 빈약하거나 제한적인 발굴조사에 의해 기인하는 애로점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보다 세심한 성벽부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초축부분과 성벽부분에서 많은 양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년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 資料의 檢討

1) 夢村土城¹¹⁾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이동에 위치한 토성으로 해발 50여m 내외에 소구릉에서 고도 25~30m 사이의 능선을 따라 성벽이 축조되어 있고, 주위에 저평한 평지로 둘러 싸여 있어 멀리 한강연안까지 조망할 수 있다.

기단부석축열은 존재하지 않고 소규모 야산등의 자연구릉을 이용해 구릉이 낮거나 구릉과 구릉사이가 떨어진 부분에서만 판축법을 이용해 성벽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성벽의 외벽은 구릉경사면을 깎고 다듬어서 급경사와 단을 만들고 성벽 외측경사면에 영정주¹²⁾를 설치하였다. 시기는 3C 말~5C 중엽으로 보고자들은 보고 있다.

11) 夢村土城發掘調査團, 1984, 『整備·復元을 위한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

夢村土城發掘調査團, 1985,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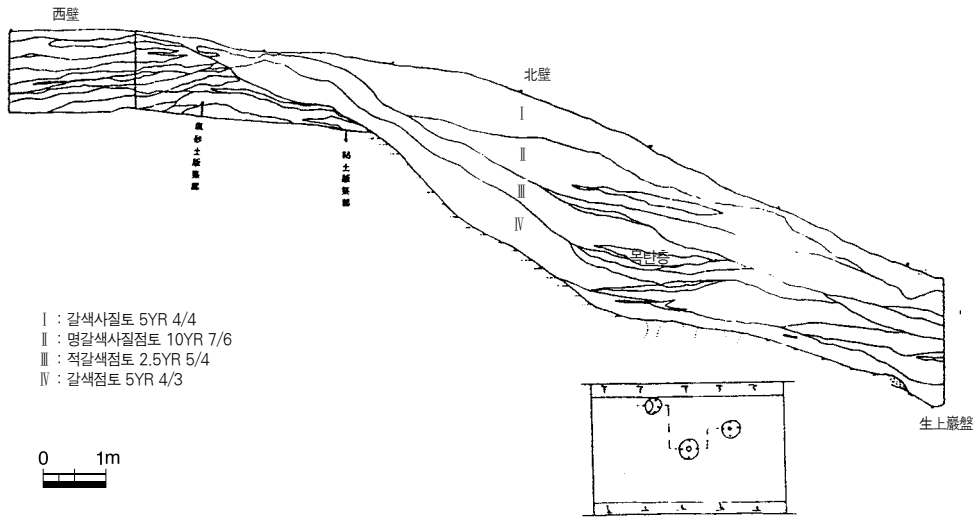
金元龍, 任孝宰, 林永珍, 1987, 『夢村土城-東部地區發掘調査報告-』, 서울대학교박물관.

12) 夢村土城의 永定柱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木柵으로 보는 견해와 영정주로 보는 견해로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학자와 보고자들은 목책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車勇杰, 崔夢龍은 영정주이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車勇杰, 1988, 「百濟의 築城技法」, 『百濟研究 19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崔夢龍, 1988, 「夢村土城과 河南慰禮城」, 『百濟研究19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그리고 본인은 목책과 영정주 구별을 기준으로 주공간의 간격, 방향성, 위치 등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판축성벽부분의 양끝단에서 서로 평행하면서 나타나는 주공의 양상이 관찰되느냐 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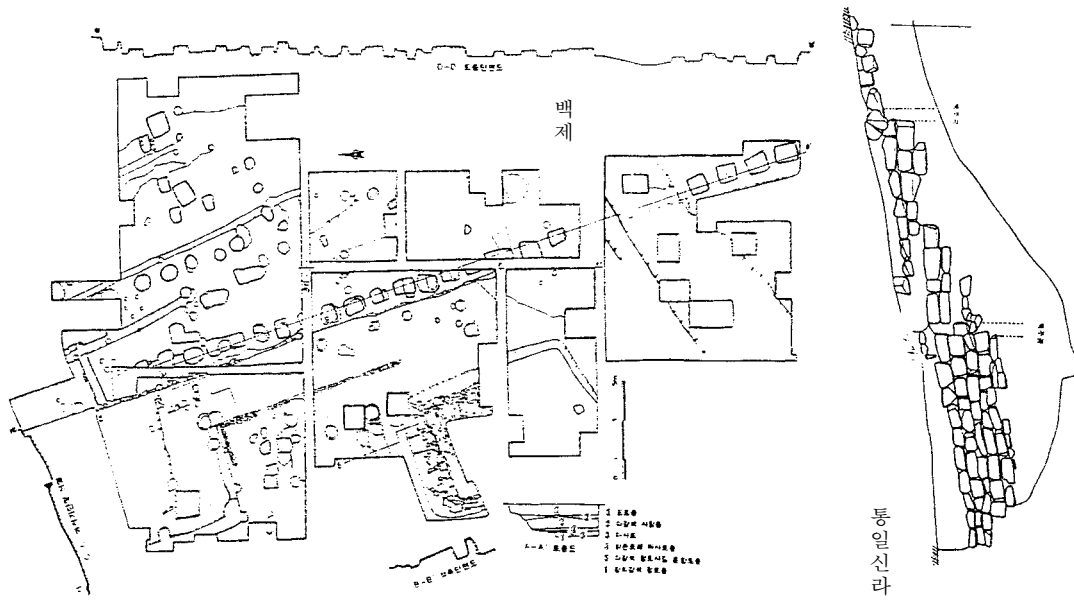
〈도 10〉 몽촌토성(주11에서 인용)

2) 扶蘇山城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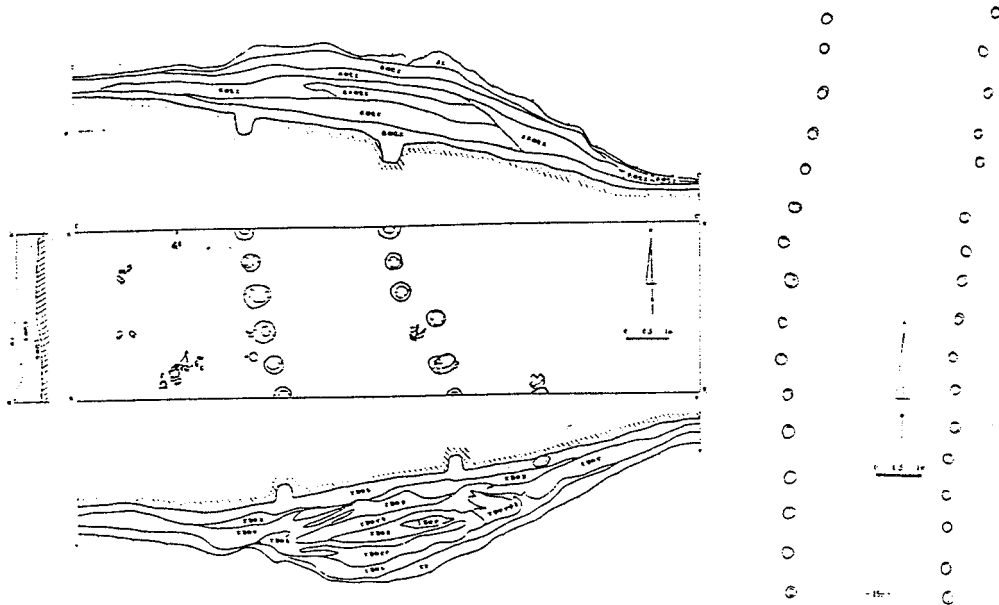
충청남도 부여시 북쪽에 위치한 표고 106m의 부소산에 위치한 토성으로 북쪽에 금강이 면하고 있는데 백제시대 토성과 통일신라시대 보수 개축한 토성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백제시대 토성은 서문지 동편, 남문지 주변, 수혈주거지 주변에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서문지 주변에서 확인되는 2열의 목책열은 백제토성의 축조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이러한 목책열은 폭 4.5m 정도로 2열이 서로 평행하면서 매 130cm 간격마다 나타나고 있다. 보고자는 백제토성 이전에 구축된 목책유구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목책열 폭 4.5m로 2열로 서로 평행하면서 토성아래서 확인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양산순지리, 임당토성에서 관찰되고 있는 영정주의 양상과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토성의 축조시 이용했던 영정주 주공의 흔적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보고자도 언급했듯이 남문지 주변, 수혈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되는 백제토성의 영정주 등간격과 동일한 130cm의 목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夢村土城의 경우 시굴 Tr에 의존한 좁은 부분에서만 토성의 성벽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주공의 간격, 방향성은 목책과 영정주간과 서로 비슷해 구별이 불가능하므로 영정주와 목책의 판별은 주공의 위치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본다. 즉 목책의 경우 토성의 보조방어기능을 하므로 토성 성벽부분에 Open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외성 정상부의 주공을 제외하고는 夢村土城의 주공들은 정상부에서 1단 또는 2단 정도 내려온 사면 가장자리에 설치되고 있으며 주공을 경계로 경사면 아래와 정상부의 토층양상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목책일 가능성보다는 영정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3) 申光燮, 1996, 『扶蘇山城發掘調查報告書』, 國立文化財研究所.



〈도 11〉 부소산성(주13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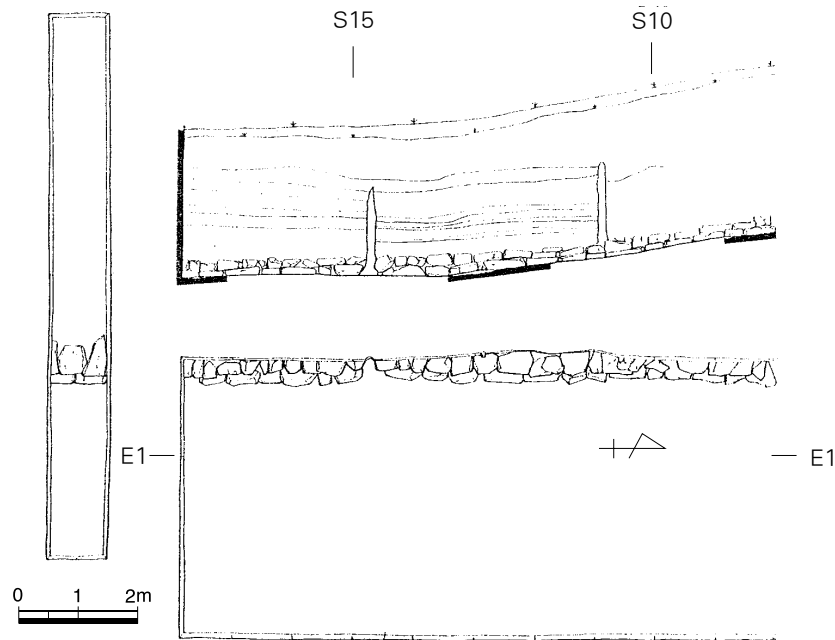
〈도 12〉 양산순지리토성 A지구 K Pit 토층도(좌), A지구 목책 평면도(우)(주14에서 인용)

책주공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목책주공 내부에서 간혹 백제시대 기와편이 보이는 점은 목책열이 백제토성 이전에 구축된 목책열이 아니라 백제토성 축조시 이용했던 영정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토성은 남문지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성벽외벽하단부에만 기저부석축열을 설치하고 매 350cm 간격으로 영정주를 설치하였다. 판축구간단위는 보고서에는 언급이 없지만 기저부석축열의 영정주를 경계로 높낮이가 다른 점으로 보아 판축구간단위는 영정주간격과 동일한 350cm로 생각된다. 시기는 6C 초반부터~9C 경으로 판단된다.

3) 梁山 蓴池里土城¹⁴⁾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순지리 산 47-2 일대의 해발 210m 정도의 야산 정상에 위치하는 토성으로 생토면을 정지하여 폭 4m 정도의 기저부를 만든 후 기저부 양끝에 영정주를 서로 대칭되게 세웠다. 영정주간의 간격은 1m 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2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판축구간단위는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A지구에서 보이는 8~10m씩의 간격으로 영정주열을 가로 질러 설치된 칸막이 시설과 8~10m 정도의 구간별로 영정주간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판축구간단위는 8~10m 정도로 생각된다. 연대는 6C 이전으로 보고자들은 보고 있다.



〈도 13〉 목천토성(주 15에서 인용)

14) 沈奉謹, 金東鎬, 1983, 『梁山蓴池里土城』, 東亞大學校博物館.

4) 木川土城¹⁵⁾

충남 천원군 목천면 남화리 소재의 흑성산 동남편의 낮은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 토성으로 주위에는 저평한 계곡형 평지로 둘러 싸여 있다. 성벽의 축조는 폭 5.6m의 기저부 양끝단 즉 내벽과 외벽 하단부에 1단 또는 2단 정도 기저부석축열을 설치하고 매 3.8m 간격으로 영정주를 설치하였다. 판축구간단위는 영정주간격과 동일한 3.8m이다. 그리고 일부구간에서는 성벽 내벽을 자연지형을 이용해 계단상의 기저부를 설치한 구간도 보인다. 이러한 구간에서도 기저부석축열이 외벽부분에서 확인되고 영정주도 매 3.8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기저부의 폭도 동일한 5.6m이며 판축구간단위도 3.8m이다. 연대는 6C 중엽 이후로 판단된다.

5) 神衿城¹⁶⁾

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뒷산에 해발 40~60m의 저평한 구릉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곡간 평야가 펼쳐져 있다. 성벽의 축조는 폭 3.7~3.8m의 성벽기저부 양편에 각각 1열씩 기저부석열을 설치하고 매 3.7~3.8m 마다 영정주를 설치하였다. 판축구간단위는 영정주간격과 동일한 3.7~3.8m이다. 연대는 9C 후반이다.

6) 會津土城¹⁷⁾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신봉리 산8-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토성은 해발 10~120m의 계곡과 산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는데 남문지 주변 일부분에 대한 조사로 토성의 정확한 내용 규명에는 한계가 따른다. 성벽의 외벽은 파괴가 심해 기단부석축열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성벽의 내벽하단부에만 1~2단의 기단부석축열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성벽외벽부에서도 보고서에 언급은 없지만 원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정주는 1기만 확인되고 있고 그 좌우에 보조버팀목이라 생각되는 직경 30cm, 깊이 3cm와 직경 35cm, 깊이 23cm의 주공 2기가 있다. 영정주간 거리는 판축불연속선과 거리를 감안하면 3.3~3.8m일 가능성이 높다. 판축구간단위도 보고서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영정주간 거리와 동일한 3.3~3.8m 정도로 예상한다. 연대는 5C 후반~통일신라시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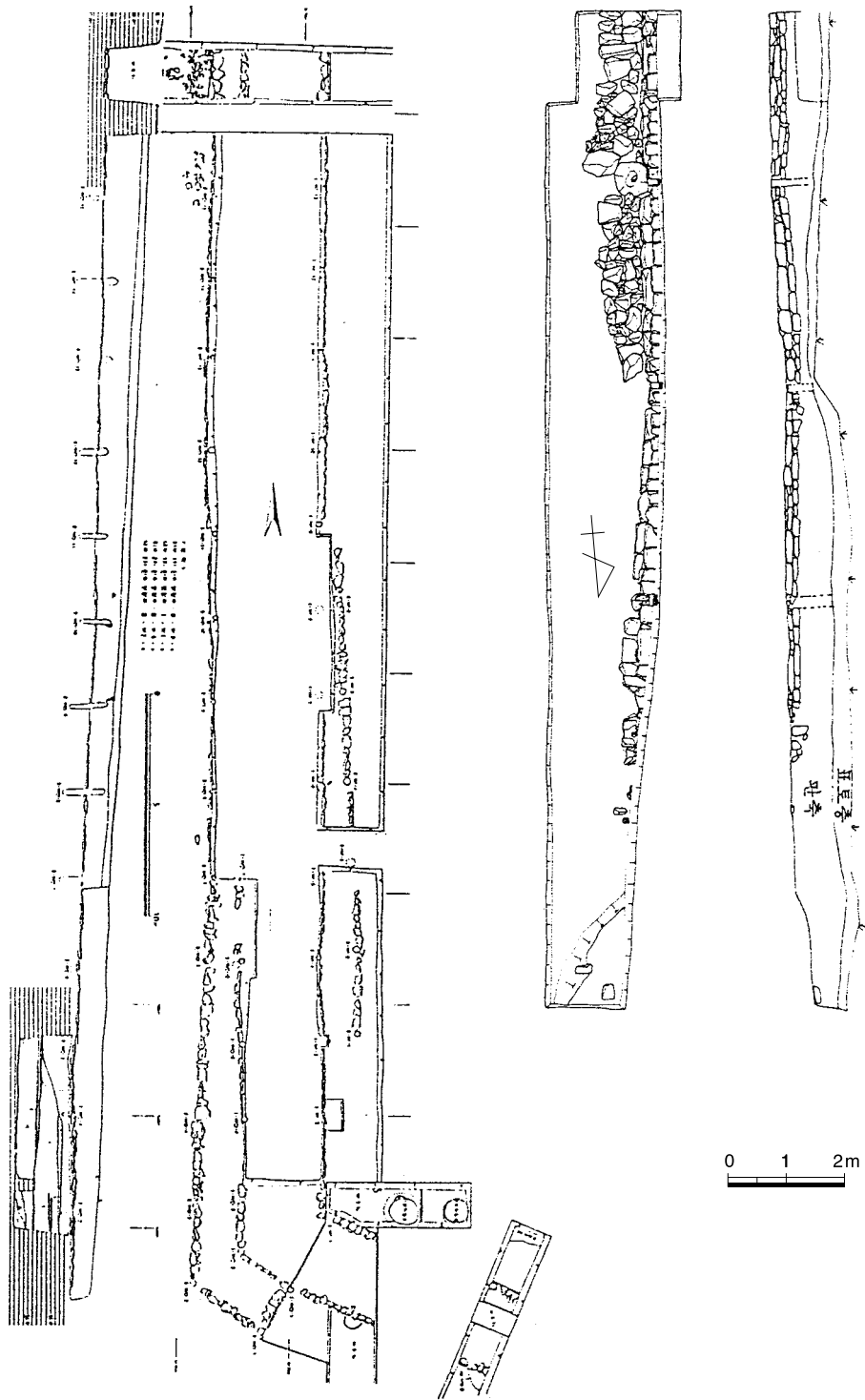
7) 稷山 蛇山城¹⁸⁾

충청남도 천안군 직산면 군동리의 산 10-1 일대에 해발 150m정도 구릉정상과 계곡에 걸쳐 축조된 토성이다. 성벽의 축조는 판축토성인 외곽성벽하단부의 경우 단면계단식의 2~3단으로 쌓은 기저부석축열이 있고 3.42~3.66m 간격마다 영정주가 설치되어 있다. 영정주는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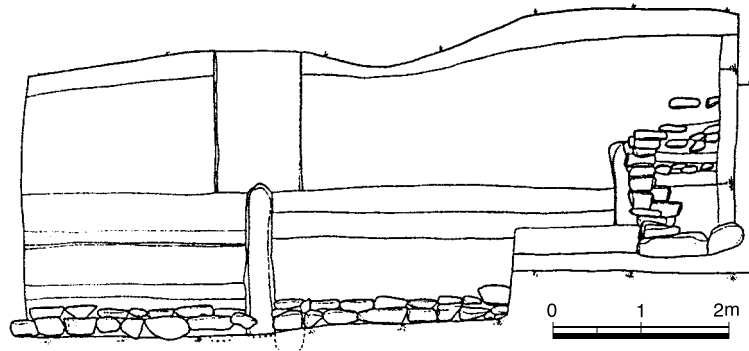
15) 尹武炳, 1984, 『木川土城發掘調查報告書』, 忠南大學校博物館.

16) 李康承·朴淳發·成定鏞, 1994, 『神衿城』 忠南大學校博物館.

17) 林榮珍·趙鎮先, 1995, 『會津土城 I』 百濟文化開發研究院.



〈도 14〉 신금성(좌), 사산성(우)(주16, 18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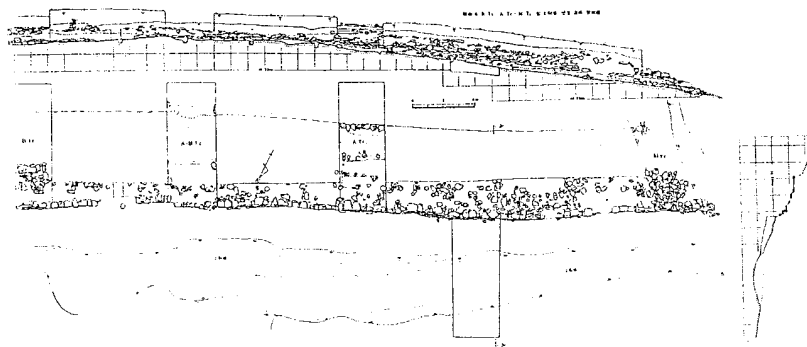


〈도 15〉 회진토성 (주 17에서 인용)

주이며 영정주공 전면에는 직경 40~50cm, 깊이 50~70cm 규모의 원형주공이 존재하고 있다. 보고자는 이 원형주공의 용도에 대해 영정주를 보조하는 목주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벽 내벽부에는 시설이 빈약해 별다른 시설은 없고 간혹 원형주공이 있는 것이 보인다. 연대는 6C 후반이다.

8) 蔚州 華山里土城¹⁹⁾

경남 울주군 온산면 화산리 산성마을 앞에 솟은 낮은 야산의 정상부분에 위치한 토성으로 성벽외벽하단부에만 기단부석축열을 설치하였고 매 3.8m 간격으로 영정주를 설치하였다. 판축 구간단위는 영정주간격과 동일한 3.8m이다. 그리고 북쪽 성밖에는 부분적으로 구상의 토취장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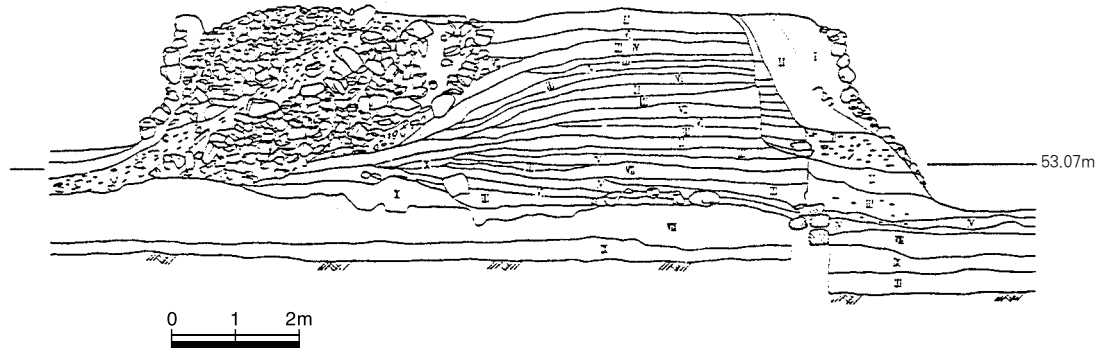
〈도 16〉 화산리토성(주 19에서 인용)

18) 成周鐸·車勇杰, 1994, 『稷山 蛇山城』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 沈奉謹, 주 5)의 前揭書.

9) 堂甘洞城址²⁰⁾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 3동 350번지 일대에 위치한 토성으로 성벽외벽하단부에만 2~3단 정도 기단부석축열을 설치한 후 영정주를 400~430cm 간격마다 설치하였다. 판축구간단위는 보고서에서는 언급이 없는데 영정주를 경계로 해서 서로 다른 구간에서는 구간별로 기단부석축열의 높이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판축구간단위는 영정주간격과 동일한 400~430cm로 판단된다. 연대는 고려시대이다.



〈도 17〉 당감동성지(주 20에서 인용)

〈표 1〉 분석대상 토성

유적명	내용	기단부석축열의 유무와 형태	영정주간격	판축구간단위	연대
몽촌토성		없음(I)	70~90cm	?	3C 말~5C 중
부소산성(백제)		없음(I)	130cm(A)	?	6C 초~9C
부소산성(통일신라)		외벽하단부에만 설치(III)	350cm(B)	350cm(b)	6C 초~9C
양산순지리토성		없음(I)	1m(A)	8~10m(a)	6C 이전
임당토성		없음(I)	50~80cm(A)	7~10m(a)	4C 중반~6C 후반
목천토성		내벽과 외벽 하단부에 설치(II)	380cm(B)	380cm(b)	6C 중엽 이후
신금성		내벽과 외벽 하단부에 설치(II)	370~380cm(B)	370~380cm(b)	9C 후반
회진토성		내벽과 외벽 하단부에 설치(II)	330~380cm(B)	330~380cm(b)	5C 후반~통일신라
사산성		외벽하단부에만 설치(III)	342~366cm(B)	342~366cm(b)	6C 후반
화산리토성		외벽하단부에만 설치(III)	380cm(B)	380cm(b)	
당감동성지		외벽하단부에만 설치(III)	400~430cm(B)	400~430cm(b)	고려시대

20) 羅東旭, 崔晶惠, 1996, 『堂甘洞城址』, 釜山廣域市立博物館.

2. 屬性의 分類 및 檢討

이상으로 각 토성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각 토성의 축조방식을 밝히는데 있어 여러 주요속성이 있겠으나 기저부 석축열의 유무와 형태, 영정주간 거리, 판축구간단위 등의 속성이 유효한 속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 개별 속성을 중심으로 속성분석·검토를 통해 속성상호간의 관계 및 그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축조방식을 유형화 또는 형식화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그 결과 표2, 표3, 표4의 결과가 얻어졌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단부석축열

기단부석축열이 없는 토성(Ⅰ), 기단부석축열이 내벽과 외벽에 모두 있는 경우(Ⅱ), 기단부석축열이 외벽에만 있는 경우(Ⅲ)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기단부석축열의 유무·형태에 따라 영정주간 거리, 판축구간단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관찰된다. 기단부석축열이 없는 토성들(Ⅰ)의 경우 영정주간 거리가 70~130cm 정도이며 대체로 1m 내외 중심이고 판축구간단위는 8~15m 이지만 대체로 10여m 중심이다. 그러나 기단부석축열이 내벽과 외벽에 있는 토성(Ⅱ)과 기단부석축열이 외벽에만 있는 토성들(Ⅲ)의 경우 영정주간 거리는 3.46~4.30m 이지만 대체로 3.80m 를 중심으로 하고 판축구간단위도 영정주간격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② 영정주간격과 판축구간단위

영정주간의 간격을 크게 70~130cm정도의 1m 내외(A)와 3.40~4.30m 정도의 3.80m(B) 내외로 구별되는데 영정주간 간격이 1m 내외인 경우에는 판축구간단위가 비교적 길어 8~15m(a) 정도이지만 보통 10m 내외이며 영정주간 간격이 3.80m(b)인 경우 영정주간 간격과 동일한 축조구간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속성분석 결과를 가지고 토성의 축조방식을 크게 3개로 분류해 보았다. 분류의 기준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속성은 기저부석축열의 유무와 형태이며 영정주간의 간격 및 판축구간단위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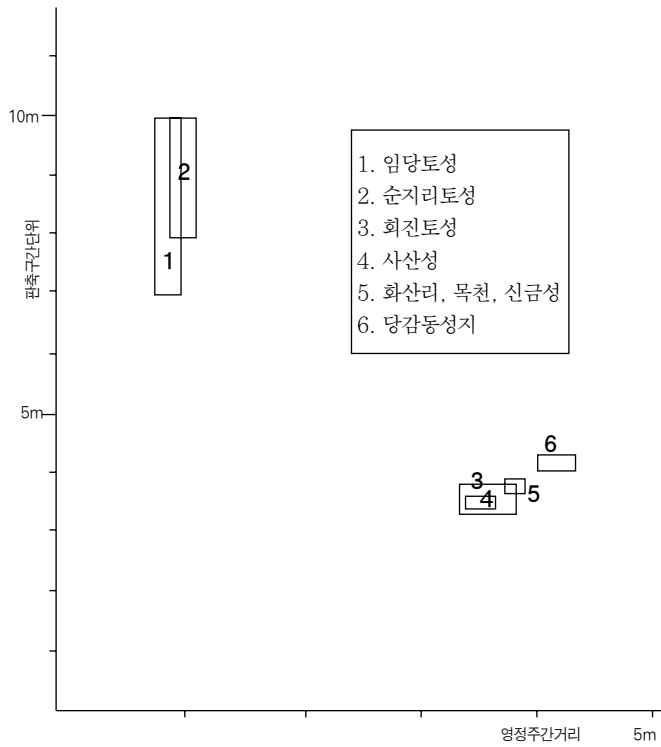
· I Aa 형식 : 기저부석축열 없이 구지표면을 정지해 기저부를 만들고 그 위에 바로 영정주를 설치한 형태로 영정주의 간격은 70~130cm 이지만 보통은 1m 내외이다. 판축구간단위는 긴 편으로 8~15m 이지만 대체로 10m 내외이다.

몽천토성, 순지리토성, 부소산성(백제), 임당토성 등이 해당하며 6C이전의 초기토성에서 보이는 형식이며 지역적으로 백제 및 신라 양지역에서 모두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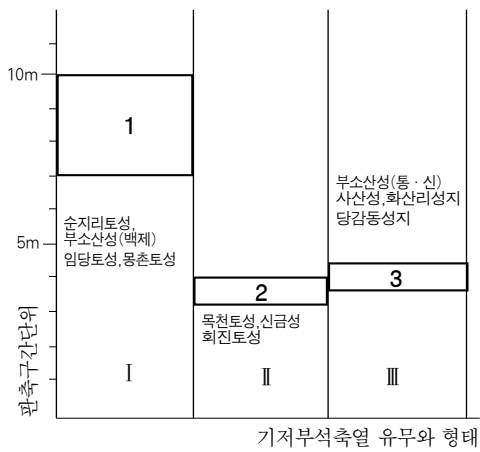
· II (II Bb)형식 : 기저부석축열이 외벽과 내벽 하단부에 설치된 형태이다. 영정주의 간격은 3.8m내외이며 판축구간단위는 영정주간의 간격과 동일하다.

신금성, 회진토성, 목천토성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지역적으로 백제지역에서만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5C 후반~통일신라시대에 속하는 토성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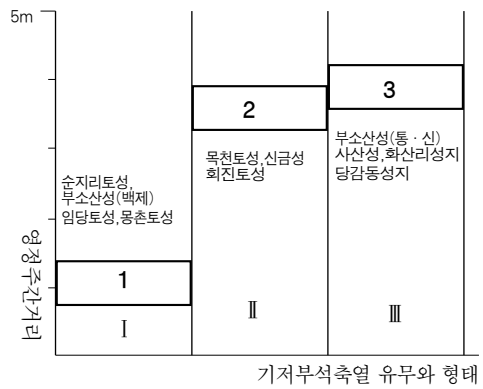
〈표 2〉 영정주 간격과 판축구간단위의 관계



〈표 3〉 기저부석축열과 영정주간거리의 관계



〈표 4〉 기저부석축열과 판축구간단위의 관계



· Ⅲ(ⅢBb)형식 : 기저부석축열이 외벽하단부에만 설치된 형태로 영정주의 간격은 3.46~4.30m이지만 대체로 3.8m이며 판축구간단위는 영정주간의 간격과 동일하다.

사산성, 부소산성(통일신라), 화산리성지, 당감동성지 등 신라지역 및 신라와 관련있는 토성에서만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6C 후반~고려시대이다.

이상과 같이 토성의 분류 결과에서 6C 이전의 초기토성들은 I 형식, 6C 이후 토성들은 II 형식·III형식이라는 점이 관찰된다. 이는 I 형식에서 II 형식과 III형식으로 토성들의 축조수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와 같이 분류된 결과의 특징을 보면, 먼저 I 형식과 II·III형식은 시기적으로 선후관계가 분명히 구별되고, 거의 동일한 시기인 II 형식과 III형식에서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강한 지역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기단열의 유무에 따라서 I 형식의 토성들은 모두 6C 이전의 것이고, II 형식과 III형식의 토성들은 5·6C 이후의 것들로 나타났다. 발표자는 이러한 기단부석축열의 유무는 곧 토성의 시기를 반영하는 요소로 생각되어지며 기저부에 석축열의 설치되는 것을 6C 이후 토성들의 가장 변화로 보고자 한다. 이는 기저부에 석축열을 설치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기저부에 석축열이 없는 토성에 비해 초축부분과 성벽부분의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 형식과 II·III형식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영정주 간격과 판축구간단위 길이가 I 형식에서는 1m와 10m정도인데 비해 II·III형식은 3.8m와 판축구간단위도 영정주 간격과 동일한 3.8m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 본인은 처음에 기저부석축열과 연관시켜 기저부석축열이 성벽의 토축 및 판축부분을 영정주와 함께 지탱함으로써 보다 느슨한 3.8m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I 형식의 1m 간격에서 II·III형식의 3.8m로 변화하였을 것이라 판단하였는데, 이보다는 짧은 구간내에서 보다 정교한 판축을 실시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된다. 영정주가 토성축조시 판축의 외틀을 고정하기 위한 목주으로써 성벽의 유실방지나 성벽을 지탱하는 역할을 어느정도는 하였겠지만 목재의 특성상 장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므로 이러한 역할만 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성벽의 유실을 방지하고 성벽을 지탱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성벽을 구축하느냐 즉 얼마나 정교한 판축을 실시해서 견고하게 성벽을 구축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비교적 긴 판축구간에서 짧은 판축구간단위로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예를 들어 I 형식의 순지리토성, 임당토성의 판축의 한층 두께가 간혹 10cm 이하도 있지만 20~30cm가 주종인데 반해 II·III형식의 토성들은 간혹 20cm도 있지만 대개 10cm 미만이며 주종은 4~5cm 라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좋은 증거자료로 판단된다.

다음은 II 형식과 III형식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II·III형식은 영정주간격과 판축구간단위에서 서로 유사하며 기저부석축열의 형태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상호 공통적인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저부석축열의 형태는 II·III형식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서로 다른 분포권과 의미하는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보이고 있다. 먼저 시기는 II 형식과 III형식의 토성은 5C 후반 내지 6C 이후에 축조되기 시작하며 거의 비슷

한 시기에 Ⅱ형식과 Ⅲ형식이 출현한다고 보는데 Ⅱ형식이 다소 앞설 가능성이 있다.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연대관은 대부분 초축부분과 성벽부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검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벽부분이 아닌 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검토하거나 역사지리적 접근법에 의해 편년된 경우가 많아 절대연대는 다소 유동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Ⅱ형식이 Ⅲ형식보다 앞선 시기라고 보고자 하는 것은 Ⅲ형식이 Ⅱ형식에 비해 기술적으로 발전한 형식이라는 점과 고려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Ⅱ형식과 Ⅲ형식의 토목기술적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Ⅱ형식과 Ⅲ형식은 모두 기저부석축열을 가지고 있다. Ⅱ형식의 경우는 내벽과 외벽하단부에 기저부석축열을 가지고 있으며 기저부석축열 사이사이에 영정주를 설치하여 모두 2개 기저부석축열과 2열의 영정주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Ⅲ형식의 경우는 외벽하단부에만 기저부석축열을 설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영정주를 세웠을 뿐 내벽부분에는 그 시설이 매우 빈약해 일부는 내벽부분에 영정주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Ⅲ형식에서 내벽부분에 별도의 시설이 없는 점은 Ⅱ형식보다 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Ⅱ형식에 비해 내벽하단부에 기저부석축열과 경우에 따라서 영정주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토성축조 공정을 축소하여 이에 따른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여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Ⅲ형식 토성은 Ⅱ형식에 비해 축조가 간편하고 신속하였을 것으로 본다. Ⅲ형식은 Ⅱ형식처럼 내벽부분에 별도 시설이 없거나 빈약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시설이나 이를 보완하는 축조기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Ⅲ형식 토성의 내벽부분에서 주로 보이는 'L'자 또는 계단상으로 삭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별도의 시설없이 이러한 자연적인 경사를 그대로 이용하여 영정주나 기저부석축열없이 자연경사면이 그대로 성벽을 지탱하게 한 것이다. 또 판축을 실시하는 방법도 먼저 외벽부분에서 내벽부분을 향해 진행함으로써 판축층이 내벽쪽으로 경사지게 하여 별도의 내벽하단부 시설없이도 성벽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내벽에 천석을 넣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Ⅱ형식과 비교해 견고성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Ⅱ·Ⅲ형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강한 지역색 즉 서로 다른 분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Ⅱ형식은 백제지역에, Ⅲ형식은 신라지역이나 신라와 관련있는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데(도 19 참조) 이러한 점은 신라와 백제 양지역의 토성축조에 있어서 그 지역만의 고유한 축조방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 입지에 대한 고려일 것이다. Ⅱ형식의 경우 평지 또는 나즈막한 구릉에 축조된 것이 반해 Ⅲ형식의 경우는 대부분 주위보다 비교적 높은 가파른 야산이나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색이 양지역간 입지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형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양지역의 토성축조 기술의 차이가 아닌가 한다. 하나의 예로 당감동성지의 경우 평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Ⅱ형식이 아닌 Ⅲ형식이라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Ⅳ. 맺음말

이상 임당토성의 조사성과를 소개하고 고대토성의 축조수법에 대해 약간의 검토를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임당토성은 남북 350m, 동서 120m, 둘레 950m의 비교적 소규모토성으로 초기형식의 토성임이 밝혀졌는데 본고의 분류기준으로는 I 형식이다.

이러한 I 형식 토성의 특징은 기저부석축열이 없고 영정주간격은 50~130cm 정도로 조밀하며 대개 판축구간단위는 7~10m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함께 백제 및 신라지역 구별없이 6C 이전의 토성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형식이라는 점이다. 6C 이후에는 백제지역에서는 II 형식, 신라지역에서는 III 형식의 토성이 주로 보이고 있고 I 형식의 토성에 비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토성축조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II 형식은 기저부석축열이 내벽과 외벽하단부에 설치되어 있고 영정주간격은 대개 3.80m이며 판축구간단위도 영정주간격과 동일하다는 점인데 반해 III 형식은 영정주간격과 판축구간단위는 II 형식과 유사하지만 기저부석축열은 외벽하단부에만 설치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러한 II·III 형식의 차이는 그 입지에 따른 차이보다는 양지역의 토성축조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II 형식에 비해 III 형식이 보다 발전적인 형태가 아닌가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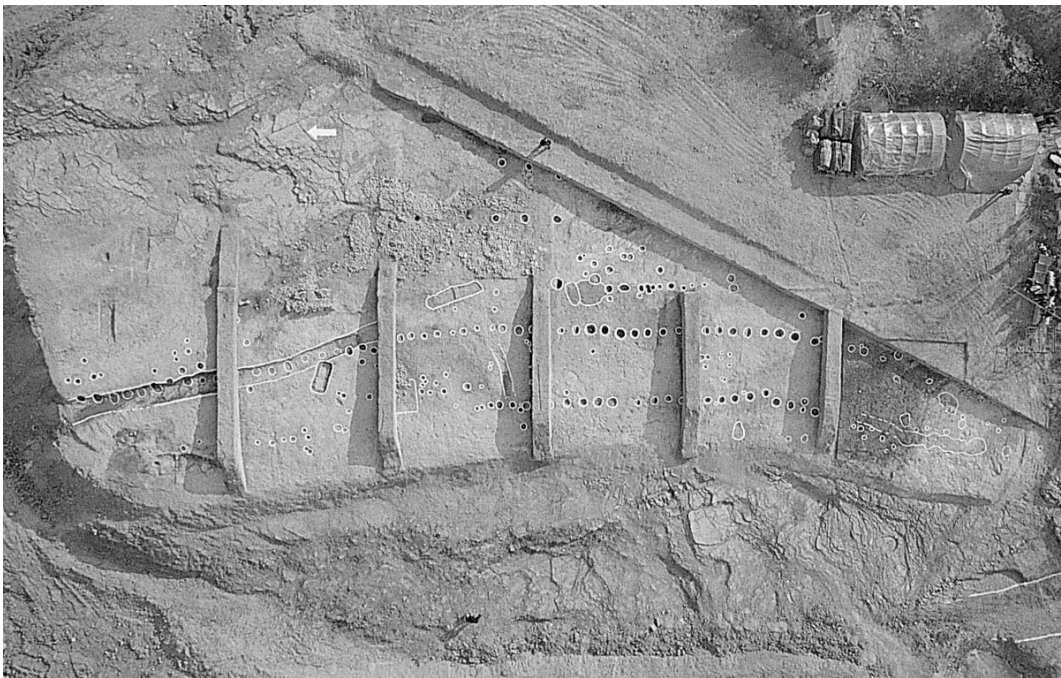
그리고 끝으로 본 글에서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고백한다. 그 실례로 III 형식 토성의 기원문제인데 잠정적으로는 II 형식에서 발전하였다고 보았으나 보고자들의 연대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자들의 연대관이 다소 유동적이어서 아직은 가설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아직 자료해석능력과 개념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로 많은 선생님들의 지적과 질정을 바란다.

끝으로 본 글을 작성하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문미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종일관 조사 자료의 검토와 본글의 미비점을 지적해주신 하진호 선생님과 본글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신 박승규, 김창역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F·G·I 지구 관련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장용석 선생님 이하 조사계 3반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종 실측·제도 및 도표 작성을 도와준 박상은, 김성태氏에게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1〉 임당토성 전경(북에서 남으로)



〈사진 2〉 임당토성 영정주 노출상태

大邱 八達洞 青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

兪炳琰*

〈 목 차 〉

I. 머리말	III. 검토
II. 조사내용	1. 주거지와 溝와의 관계
1. 유적의 입지 및 지형	2. 주거지의 構造
2. 유구 현황 및 출토유물	3. 出土遺物
3. 주요 유구	IV.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원이 발굴조사한 대구 八達洞유적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145번지의 16필지에 이르는 지역으로 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뿐 아니라 원삼국시대를 거쳐 삼국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수많은 분묘유구가 조사되었다.

팔달동은 이미 1980년 처음 유적이 확인된 이후 여러차례 지표조사¹⁾와 수습조사보고²⁾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1992년에 이번 조사지역 북동쪽 능선부(해발75m)에서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2C에서 4C에 이르는 목곽묘군이 조사되기도 하였다³⁾.

이렇게 학계의 관심을 받아오던 중, 1996년 초 (주)대백종합건설이 강변아파트건설을 위해 본 유적의 별목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어 대구市에 통보되었고, 이에 시에서는 공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 尹容鎭 外, 1990, 『大邱의 文化遺蹟』-先史·古代-, 대구시·경북대학교 박물관.

2) 尹容鎭, 1990, 「韓國初期鐵器文化에 관한 研究-大邱地方에서의 初期鐵器文化-」 『韓國史學』 11집.

3) 尹容鎭 外, 1993, 『大邱 八達洞遺蹟』, 대구시·경북대학교박물관.

사중지를 명하고 시굴조사를 선행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같은해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당시의 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96년 8월 16일부터 1997년 5월 31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구릉지대인 팔달동 유적은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및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옹관묘와 삼국시대의 목곽묘와 석곽묘, 조선시대 목관묘에 이르는 각 시기의 유구가 대규모로 조사되어 오랜동안 이곳이 주거 및 매장 공간으로서 점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팔달동 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주거유적을 감싸고 도는 溝(추정환호)를 중심으로 조사성과를 발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대구 팔달동 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모두 19기이다. 이들 주거지는 서쪽사면에 위치한 1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릉 정상부 혹은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1호 주거지를 중심으로 18기의 주거지가 남동쪽에서 북동쪽으로 열을 지어 둘러지고 있다.

또한, 주거지를 “ㄷ”字로 감싸 안은 溝유구가 조사되었는데 동시기의 環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팔달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당시의 취락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Ⅱ . 조사내용

1. 유적의 입지 및 지형

대구 팔달동 유적은 대구 시내에서 팔달교를 건너 안동으로 가는 4번국도 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해발 30~50m의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구릉은 팔달교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函芝山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금호강에 접하는 地脈의 말단부이다.

구릉의 남쪽은 大邱盆地의 도심북쪽 외곽을 관통하여 洛東江에 합류되는 琴湖江이 바로 앞을 흐르고, 그 건너는 大邱盆地가 전개된다. 구릉의 서편은 기슭을 따라 금호강의 4번 국도가 지나고, 병행해서 금호강의 지류인 八溪川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본 유적이 위치한 구릉말단에서 금호강과 합류한다. 그리고 동쪽과 북쪽은 八公山으로 이어지는 많은 지맥이 자리하고 있다.

즉 입지로 보아서는 구릉앞에 금호강이 흐르고, 그 남쪽으로는 大邱盆地가 전개되며, 배후는 함지산의 줄기가 이어지는 산지이다. 또 西麓으로는 팔계천이 흐르는 등 背山臨水의 생활거점으로서는 適地가 되는 丘陵類型⁴⁾이다.

4) 鄭澄元, 1990, 「初期農耕遺蹟の立地環境-無文土器時代の住居遺蹟を 中心に-」 『日韓交渉의 考古學』.

2. 유구 현황 및 출토유물

호수	주거지					노지					기둥구멍		기타시설 (현존)			주거 폐기	비고
	평면 형태	크기(m) (괄호는 잔존)	깊이 (cm)	장단비	바닥 처리	갯 수	위치	평면 형태	크기 (cm)	시설	갯 수	위치	壁溝	外部 溝	周堤		
1	세장방	16.3×(3.5)	20			2	중심, 편향	원형	60×55 65×60	무시설	16	벽13 중심3	ㄱ字				
2	방형?	5.5×(3.5)	20														
3	장방형	6.35×3.85	25	1.65							13	내부11 외부2					
4	방형	3.85×3.3	45	1.17	다짐	1	중심	타원형	60×46	무시설	9	벽	ㄷ字			화재?	
5	방형?	5.6×(3.4)	25		다짐						7	내부6 외부1	ㄷ字	ㄱ字			
6	장방형	7.9×(2.1)	40		다짐						12	벽10 중심2	一字				
7	세장방	11.3×(2)	80		다짐	1	편향	원형	60×50	무시설	13	벽					
8	장방형	8.2×(3.5)	32		다짐						8	내부4 외부4	ㄱ字				
9	방형	3.6×2.2	37	1.6	다짐						4	내벽					
10	장방형	7.9×3.5	40	2.3	다짐						21	벽	ㄷ字		확인		1번 증축?
11	장방형?	(7.3)×(2.5)			다짐								ㄷ字		확인		
12	?	(4)×(1.6)	20		다짐								一字?				
13	장방형	7.3×4		1.83	다짐	2	중심1, 편향1	방형 원형	70×50 40×40	위석식? 무시설	20	벽16 중심4	ㄱ字	ㄱ字		화재	
14	장방형	9.5×(4)			불다짐	2	장축 중심	방형	64×60 70×62	위석식	24	벽20 내부4	ㄷ字		확인	화재	
15	장방형	8.8×(4.4)			다짐	1	편향	타원형	80×66	무시설	11	벽10 내부1	ㄷ字?		확인	화재	
16	세장방?	11×(2.4)				2	편향	원형	48×36 40×38	무시설	16	벽	ㄱ字				
17	장방형?	(6.7)×(2.3)			다짐								一字?				
18	장방형?	(4.5)×(2)			다짐	1	편향	타원형	95×64	무시설	4	벽3 내부1	ㄱ字?			화재	
19	?	(7.6)×(2.2)			다짐						7	벽6 외부1	一字?				

金賢峻, 1996, 「青銅器時代 聚落의 立地條件을 통해서 본 生業 研究-出土遺物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두 논문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취락을 크게 低地性類型, 丘陵性類型, 高地性類型, (海岸性類型 추가: 김현준)으로 나누고 전기에서 후기까지 걸쳐 나타나는 유형은 구릉성유형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주변의 농경지나 하천을 볼수 있는 낮은 구릉상에 입지하는, 주변 평지에 비해 50m내의 저구릉상에 위치하는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팔달동 유적도 주변 평지에 비해 20~30m 내의 높이를 가지는 저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호수	용도추정	토기류		석기류		기 타	합계
		출토 수량	주요유물	출토 수량	주요유물		
1	공동작업장	20	구순각목토기 (片, 몸체에 단사선)	40	마제석검(재가공),미완성 반월형석도, 석부2, 미완성15, 지석9, 갈판4	어망추 9	69
2		12	단도마연(片) 4	18	석촉4, 반월형석도(片), 석부, 미완성3, 지석4, 대형갈판	어망추 4	34
3	주거	18	심발형 공열토기, 구순각목토기, 단도마연토기	6	지석2		24
4	일시주거	19	공열토기(片)3, 발형토기2	29	석검, 편인석부, 미완성19, 지석3		48
5	주거	4	공열토기(片)	28	장방형석도1, 지석6, 미완성16, 대패날		32
6	주거	3	평저장경호, 구순각목토기(몸체에 단사선문), 심발형토기	3			6
7	주거	12		7	석검(片), 대형갈판		19
8	주거	10	공열토기(片), 단도마연토기(片)	18	반월형석도, 장방형석도, 타제석부, 미완성9, 지석6	토제방추차1	29
9	제작장	9		21	미완성7, 지석5		30
10	주거	16	심발형토기	54	석촉2, 반월형석도2, 유단석부, 대패날, 미완성35, 지석9	토제방추차1	71
11	주거	3		1			4
12	주거						
13	석기제작장 or 폐기장	19	구순각목토기(片)	90	석촉11, 석부14, 석검(片), 석검병부, 지석11, 천공석기, 미완성36	어망추1	110
14	주거	9	공열토기, 심발형토기	32	석촉4, 석부, 석창, 미완성13, 지석2		41
15	주거	4	공열토기(片)	9	석촉, 반월형석도, 지석4		13
16	주거	10		7	미완성4		17
17	주거	5	공열토기(片)	7	지석4(대형1)		12
18	주거	1					1
19	주거	1					1

3. 주요 유구

1) 1호 주거지(도 4, 사진 2-①)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3기의 주거지 중 하나로 전체 주거지 중 가장 그 규모가 크다. 장축이 16.3m, 단축이 추정 4m(잔존 3.5m)로 장폭비가 4:1로 매우 세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남북인데 구릉 등고방향과 일치한다. 주거지의 잔존 깊이는 20cm로 얇은 편이며 서쪽 장축은 암반을 굴착하여 수혈을 만들었지만, 동쪽 벽면은 삭평되었다.

내부 시설로는 周溝와 노지, 기둥구멍 등이 있다. 주구는 암반층을 굴착하여 벽면을 따라 ‘ㄱ’字상으로 돌아가는 壁溝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구 내부에는 기둥구멍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수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지는 무시설식으로 2기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단축 상에는 중간위치에 있으나 장축상에는 북쪽으로 몰려 있는 상태이다. 기둥구멍은 벽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것과 내부 중앙에 설치된 것이 있다.

주거지 출토 유물은 석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석기를 다듬을 수 있는 받침돌 및 지석과 함께 여러형태의 어머추가 8점이나 출토되어 이 주거지가 일반적 주거 보다는 공동으로 모여 작업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된다. 토기류는 거의 편으로 나온 상태인데 특징적인 것으로는 口脣刻目에 몸체에 短斜線文이 시문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도 4-1).

2) 4호 주거지(사진 3-①)

팔달동 주거지 중에서 유일하게 서쪽사면에 위치한 주거지로서 그 규모에 있어 장축이 3.85m, 단축이 3.3m로서 9호와 함께 규모가 가장 작은 주거지에 속한다. 이 주거지와 불과 4m의 거리를 두고 서쪽아래사면에 溝가 있다. 주거지의 장단축의 比가 1:1.17로 거의 정방형이라 할 수 있다. 주거지의 깊이는 최고45cm정도가 남아있다. 유구확인 조사시 주거지 내부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채워져 있었다.

주거지의 내부에는 벽을 따라 북벽쪽을 제외하고 逆 ‘ㄷ’ 字로 벽구가 돌려져 있다. 그 벽구의 깊이는 대체로 2~3cm에서 최고 15cm이며, 폭은 10~15cm이다. 그리고 그 벽구 안쪽으로 붙어서 직경 20cm, 깊이 5~10cm의 기둥구멍이 9개 확인되고 있는데 원삼국시대의 목관묘에 의해 파괴된 곳에 1개의 기둥구멍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의 중앙에는 60×46cm의 타원형으로 목탄흔이 모여져 있어 노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붉게 탄 소토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랜동안 거주하지 않았거나 또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출토된 유물로는 석기류가 28점으로 18점이 출토된 토기보다 많다. 토기의 경우 점토대토기와 고배 등 팔달동의 목관묘 시기의 유물이 다수 상부에서 채집되었는데 이는 주거지 주변이 목관묘 밀집지역으로서 후대 파괴되면서 쓸려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공열토기와 천발형토기(도 7-3·4)가 바닥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의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주거지 자체가 서쪽사면에 홀로 떨어져 위치한 점과 주거지 내부에 큰 돌들이 많았던 것, 석기류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일상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작업장 성격의 유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3) 5호 주거지(도 5, 사진 3-②)

본 주거지는 동쪽사면에서 溝유구 바깥쪽 주거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조성된 주거지이다. 규모는 장축이 5.6m, 단축은 일부가 유실되어 현존 3.4m로 그리 크지 않은 방형에 가까운 주거지이다. 이 주거지의 깊이는 산경사면에 최고 25cm로 주거지 어깨선이 유실되지 않고 원래 깊이 그대로 남아 있다. 주거지퇴적토 단면에서 외부주구와 주거지 어깨선 단면을 확인하였다. 이 주거지의 경우 외부구가 잘 남아 있는데 그 형태는 ‘ㄱ’字를 하고 있으며 폭은 55~65cm, 깊이는 15~20cm정도이다. 주거지 내부에도 주구가 벽을 따라 ‘ㄷ’字로 둘러져 있는데 일부는 암반을 파고 일부는 흙바닥을 파고 조성되어 있다. 내부구의 폭은 10cm로 거의 일정하고 깊이는 5cm내외이다.

주거지 내부의 기둥구멍은 모두 6개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로는 공열토기편과 장방형 석도편 및 미완성 석기가 있으며 외부주구내에서 지석 및 석기 파편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4) 9호 주거지

주거지로서 볼 때 팔달동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주거지이다. 장축이 3.6m, 단축이 2.2m이며 깊이는 최고 37cm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크고 작은 돌들과 토기편들이 채워져 있었으며 돌 중에는 臺石으로 보여지는 것과 미완성 석기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석기제작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내부 시설로는 기둥구멍이 있는데 주거지 네 벽에 직경 15~25cm, 깊이 10~13cm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의 별다른 시설이나 흔적은 없었다.

5) 10호 주거지(도 7, 사진 4-②)

주거지의 위치상 서쪽사면에서 동쪽사면 아래쪽으로 걸쳐 내려오는 환호선이 이 주거지 바로 위에서 끊겼다가 다시 주거지의 옆쪽에서 아래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환호 외곽에 있지만 환호와 시기를 같이 하는 주거지로 보인다.

주거지의 장축은 7.9m, 단축은 유실되어 3.5m만 확인되고 있으며 깊이는 최고 40cm 남아 있었다. 이 주거지의 특이한 점은 일차 조성 후 다시 한 번 주거지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내부에 벽을 따라 돌아가는 ‘ㄷ’字의 구가 북동쪽벽에서는 겹쳐져 있다는 점이다. 재 증축 후 주거지의 규모는 원래 장축 7m에서 단축은 같고 장축만 늘어났다. 주거지 벽구의 경우도 다시 조성하면서 기존의 것보다 그 높이가 높은상태이다. 이 주거지에서는 벽구

를 파면서 나온 흙을 주거지 내부쪽으로 독처럼 쌓은 周堤(?)가 확인되었다. 이 주제의 폭은 15~20cm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높이는 약 5~8cm된다.

기둥구멍은 모두 21개인데 주로 벽과 벽구 내부 혹은 주제상에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4개만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주거지에서 특히 석기류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팔달동 주거지 내부에서 유일하게 유경식 석촉이 1점 발견(도 8-1)되었다. 그외 반월형 석도 2점(도 8-2)과 각종미완성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토기의 경우 구연부가 內傾하는 심발형토기(도 7-1, 5-①)가 양호한 상태로 출토(도 7-1)되었다.

6) 13호 주거지(도 10, 사진 5-②)

남동쪽의 거의 수평인 사면에 위치한 주거지로 네벽이 온존한 몇 안되는 유구 중의 하나이다. 주거지의 장축은 7.8m, 단축은 4m인 장방형 주거지이다. 주거지의 잔존 깊이는 최고 50cm정도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많은 석재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속에 각종 석기가 출토되어서 석기제작장으로 여겨졌으나 석재들을 들어낸 다음 주거지 床面에 목탄과 소토 흔적이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주거지가 화재로 인해 폐기된 후 다시 석재 폐기장으로서의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거지는 5호 주거지와 함께 주거지 내·외부에 주구가 남아 있는 주거지이며 특히 내부의 주구가 배수구의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부로 돌출한 주구가 달린 형태를 띠고 있다. 외부주구의 경우 한쪽 모퉁이쪽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비하여 내부주구는 “F”字形 형태를 띠고 있다. 주거지의 노지는 2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정중앙 자리에 위한 노지는 원래 위석식 노지로 여겨지는 방형의 모양이고, 한쪽에 치우쳐 설치된 다른 노지는 무시설식의 원형노지이다. 기둥구멍의 경우 네 벽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주혈이 있으며 중앙에도 노지를 가운데 두고 기둥구멍이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이 석기류로 전체 주거지 중 가장 많은 90점의 석기를 수습하였다. 석기 중에는 三角灣入석촉(도 10-3·4), 이단병식 석검손잡이(도 10-2), 각종 석부(도 10-6·7·8·9·10)를 비롯한 지석류가 많이 출토되었으며 토기편의 경우 특징적인 것으로는 주거지 내부주구 내부에서 출토된 구순각목 토기편(도 10-1)이 있다.

7) 14호 주거지(도 9, 사진 6-①)

13호 주거지의 옆 경사면에 위치한 장축이 9.5m, 단축이 추정4.4m의 장방형 주거지이다. 단축의 경우 아래쪽의 장축벽이 유실된 상태이나 중앙에 노지와 기둥구멍이 위치한다고 추정할 길이다. 주거지 내부토는 재층과 목탄이 섞여 있었으며 床面에도 전체적으로 목탄흔과 붉게 구워진 흔적이 보이고 있어 인위적으로 바닥면을 구운 것이기 보다는 화재로 인한 주거지 폐기시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주거지 역시 내부에 벽면을 따라 조성된 벽구가 잔존하고 있는 세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또한 이 벽구에서 주거지 내부쪽으로 역시 벽구를 따라 폭 20cm, 높이 4~6cm의 周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주제는 벽구조성시에 그 내부에서 나온 흙을 둔덕처럼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 벽구와 벽면에 걸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구멍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한 기둥구멍 안에는 잔 돌이 들어 있는 것도 있었다. 그외 기둥 구멍은 주거지 내부 중앙에 동일 장축상에 3개가 조성되어 있다. 노지의 경우 주거지 중앙지점에 방형의 위석식 노지 2기가 설치되어 있다.(사진 6-2) 노지를 둘러싼 돌들은 손바닥 크기의 板狀割石들로 한번에 3개씩 설치되어 있다.

출토 유물은 여기 역시 석기류가 토기류보다 더 많이 출토되었는데, 삼각만입석촉(도 11-3·4) 및 석부, 석창(도 11-2)이 있으며, 토기류로는 심발형 토기와 공열문토기(도 11-1)가 있다.

8) 18호 주거지

주거지의 장축과 단축이 일부 유실되어 그 규모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지만 주구나 노지, 기둥구멍 등이 양호하게 확인되었다.

주구의 경우 ‘ㄱ’字 모양으로 확인되었는데, 토층단면에서 주구에 박았던 것으로 보이는 목재 벽체가 화재로 넘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주거지의 주구는 배수구의 역할보다는 벽체를 세우기 위한 기초흙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지의 경우 가로, 세로 95×60cm의 타원형으로 붉게 변한 소토의 깊이는 7cm 정도 된다. 노지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점으로 볼 때, 본 주거지의 노지가 하나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둥구멍은 4개가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9) 溝(추정환호)(사진 8-①·②)

팔달동 유적에서 확인된 溝는 남서쪽의 절벽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ㄷ’字形으로 주거지를 감싸고 있다. 동쪽사면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일부만이 남아 있다. 溝의 폭은 조사 당시 1~1.5m정도이지만 지형에 따라 다르다. 특히 동쪽사면의 溝는 산의 자연골을 이용하였는데 그 폭이 5m가 넘는다. 溝의 깊이는 서쪽사면이 10~20cm 가량으로 비교적 얕으며 동쪽사면은 30~70cm의 깊이를 보이고 있다. 溝의 단면은 대체로 ‘U’자형을 이루고 있다.

溝의 출토유물은 매우 빈약한데, 溝의 연대를 보여주는 유물은 격지석기 몇 점뿐이며 그외 後代에 쓸려 들어온 삼국시대 이후의 토기편이 소수 출토되었다.

溝는 기본적으로 주거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가 둘러진 내부에는 15기의 주거지가, 구 바깥에는 4기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동쪽 경사면에서 구가 진행되다가 끊기고 약 3m간격을 둔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바로 앞에는 10호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

는 상태이다. 출입구 시설이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위치로 11호와 12호의 중간사이(현대가옥이 들어서 있던 관계로 지형이 다소 각임)가 더 적합한 장소로 여겨진다.

Ⅲ. 검토

1. 주거지와 溝와의 관계

팔달동 유적이 위치한 곳은 그 지형 입지상 동, 남, 서쪽으로는 큰 강을 끼고 있으며, 또한 북쪽으로도 높은 산지를 등지고 있으면서도, 대구분지의 대부분을眺望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릉성유형의 입지이다. 따라서 지형적으로 볼 때는 방어에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부여 송국리나 울산 검단리처럼 環濠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전형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팔달동 유적에서 나타나는 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청동기시대 中期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環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곧 팔달동 유적의 편년과도 상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환호가 대체로 중기 이후 생산력의 증대와 이에 따른 지역간의 긴장이 높아짐으로써 이를 대처하기 위한 시설로서 防禦의 개념이 강한 것⁵⁾이라면, 팔달동에서 보여지는 溝는 취락의 방어나 보호의 개념보다는 취락을 분할하고 주위와 구분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자면 팔달동 유적은 본격적인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기 보다는 아직은 다른 지역과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지 배치상으로 볼 때 구와 주거지는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팔달동 유적의 주거 배치를 3개의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적의 중심부이면서 유적의 정상부에는 대형의 주거지 1동과 다소 방형에 가까운 주거지 2동이 “三角形構圖⁶⁾”를 이루면서 한 단위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남쪽아래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사면에 등고선과 평행하게 2열을 지어 배치되어 있는 11호에서 19호에 이르는 溝 내부의 한 단위가 규정될 수 있으며, 구 동쪽 바깥에 5호, 6호, 7호, 8호, 10호에 이르는 다소 무질서하게 배치된 주거군이 한 단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 단위에서 제외된 4호와 9호는 그 위치상이나 규모에 있어 특별한 용도의 주거지로 여겨진다.

5) 鄭澄元, 앞의 논문 38쪽.

6) 鄭漢德, 1995, 「東아시아의 環濠聚落」『蔚山檢丹里마을遺蹟』부산대박물관, 438쪽.

중국에서 환호취락이 출현하는 中期 신석기시대에 유적중심부에 3棟의 대형주거지가 배치되고 있는 현상을 “三角構圖”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를 “三角形構圖”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單位集團 구성요소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2. 주거지의 構造

1) 평면형태 및 규모

팔달동에서 검출된 19기의 주거지 중 장방형이 17기이며 나머지 2기는 방형을 띠고 있다. 방형인 4호와 9호는 각각 그 면적이 약 12.7㎡, 7.92㎡인 소형주거지로서 두 유구 모두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유구로 보인다. 주거용으로 여겨지는 유구의 경우 그 면적이 26.5~40㎡에 해당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주거지는 추정복원할 때 약 65㎡에 달하는 1호 주거지와 약 48㎡의 16호 주거지가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유적에서 주류를 이루는 평면형은 장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공열토기가 출토되는 유적들을 보면 거의 예외없이 긴 장방형의 주거지로 되어 있으며 주거지 내에는 대개 複數의 노지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팔달동 유적의 주거지의 경우 위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존 상태가 좋은 주거지의 경우 2기의 노지가 확인된 것이 4기이며, 1기의 노지가 발견된 7호, 15호, 18호주거지의 경우 잔존노지의 위치나 주거지의 크기로 보아 원래 2개였을 가능성이 높다.

2) 周溝(壁溝)

주구는 대체로 벽면을 따라 설치되는데 주거지의 입지상 산경사면에 위치한 까닭으로 주구는 거의 경사면의 높은 쪽 벽면하에 설치되어 있다. 조사된 19기의 주거지 중 주거지 내부에 주구(벽구)가 조성된 주거지는 모두 15기에 이를 정도로 일반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거지 외부에도 주구가 조성된 것도 5호와 13호의 2예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외부주구의 경우 당시에는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채용되었는데 後代 토양의 삭평에 의해 그 윤곽선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주구는 주로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에서 많이 보이는 양상으로 여겨지고 있다⁷⁾. 파주 교하리, 울주 양동, 부산 노포동, 반여동, 합천 저포리, 울산 검단리, 대구 월성동, 송현동 등 모두 장방형의 주거지이면서 청동기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유적들이다. 그런데, 주구가 설치된 유구들은 대부분 그 입지가 산록에 위치한 것들이고 강가의 충적지상에 축조된 주거지의 경우에는 주구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주구의 설치 유무가 유적 상호간의 시간적 차이라기 보다는 주거지의 입지조건에 따라 축조 방법과 공간이용이나 내부시설이 달랐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주구와 관련된 또다른 문제는 그 시설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대체로 배수 시설이나 또는 벽체를 세우기 위한 기초흙으로 여기고 있다⁸⁾. 대구 월성동이나 양동, 저

7) 부산대박물관, 「住居址群」『陝川苧浦E地區遺蹟』, 246~247쪽.

8) 부산대 박물관, 註 7)의 前掲書.

포리, 검단리, 경주 사라리의 경우 주구 내부에 기둥구멍이 설치되어 있거나, 탄화된 판재의 존재로 볼 때, 주거지 벽체시설로 이해되고 있다. 팔달동주거지의 경우도 주구내에 기둥구멍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토층상에서 주구에 뿌리를 둔 벽체가 화재로 타면서 주거지 내부로 넘어지는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팔달동의 경우 주구가 ‘一’ 자형인 것은 1기 뿐이고 나머지는 ‘ㄱ’ 자형, ‘ㄷ’ 자형, ‘ㄹ’ 자형으로 나타나며, 네 벽이 모두 유존하고 있는 13호의 경우 주구가 주거지 벽면에서 거리를 두고 주거지 내부에서 외부로 벽체를 통과해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는 울산 방기리⁹⁾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것은 벽체시설을 위해 설치했다기 보다는 배수시설로서의 사용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거지의 입지가 구릉 경사면에 위치한다. 우천시 윗쪽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떠한 시설을 했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내부 주구뿐 아니라 외부 주구까지 설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거지 내부에 주구의 바깥쪽에 작은 둑(周堤)을 설치한 것도 같은 용도로서의 의도라고 생각된다.

3) 爐址

팔달동 주거지에서 검출된 노지 시설의 형식은 圍石式과 無施設式 두가지이다. 19동의 주거지 중 노지가 확인된 주거지는 모두 8棟이다. 그러나, 주거지 내부가 많이 유실된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노지가 설치된 주거지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노지가 확인된 8동의 주거지 중 내부에 2개의 노지가 있는 것이 4동이며 1개인 주거지의 경우에도 주거지의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봐서 역시 2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3동이다. 2개의 노지가 설치된 주거지 중에 위석식노지를 가진 것은 14호 1동이며, 13호의 경우는 방형의 위석식과 원형의 무시설식이 동시에 사용된 경우이며, 나머지 2기는 무시설식이다. 위석식의 경우 板狀의 활석으로 방형을 만들고 있다.

노지의 설치는 단축상에서는 모두 주거지 내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장축상에서는 그런 경우보다 아닌 경우가 많다. 1호의 경우는 2기가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13호는 주거지 가운데 위석식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노지가 1개가 있고, 무시설식인 원형노지 1개는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14호의 경우만이 위석식노지 2개가 균등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다.

위석식노지의 경우는 한반도 선사시대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가장 늦은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주거지에 채용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경우에는 특히 위석식 노지가 많이 설치되었지만 청동기시대에는 주로 무시설식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위석식 노지는 미송리형토기 출토 유적에서 주로 축조되며,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거의 무시설식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9) 金亨坤, 兪炳一, 1996, 「蔚山 芳基里 青銅器時代 聚落址」『嶺南考古學』19.

다¹⁰⁾. 한강 이남지역의 장방형 주거에서 위석식 노지가 발견된 유적은 청주 내곡동¹¹⁾, 향정동 7호 주거지¹²⁾, 대전 둔산의 1,3호 주거지¹³⁾와 대구 동천동 4호 주거지¹⁴⁾, 최근에 조사된 忠州 조동리 7호 주거지¹⁵⁾가 있다.

3. 出土遺物

1) 토기류

팔달동에서 출토된 토기는 그 기종을 따라 심발형토기, 壺形土器, 단도마연토기, 淺鉢토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호한 상태로 유존된 토기가 적지만 그 중에서도 심발형토기의 출토 비율이 높으며 구연부가 대체로 內傾 혹은 직립하고 外反한 경우는 없다. 문양이 들어간 유형은 공열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 외 구순각목에 단사선이 시문된 경우가 있으나 구순각목에 공열문이나 공열문에 단사선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열문토기는 거의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구순각목에 단사선이 시문된 것은 1호, 6호 주거지에서, 구순각목만 시문된 토기는 3호와 13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팔달동에서 출토되는 공열문은 모두 안에서 바깥쪽으로 반투공한 형식이다. 관통이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는 투공은 전혀 없다. 일부 관통된 것이 있으나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표면이 박리되면서 투공하면서 튀어나온 곳이 떨어져나갔기 때문이다. 공열의 간격은 최소 0.5cm로 한 토기에서부터 최고 2cm까지 한 토기까지 다양하며 구연부에서 공열까지의 거리는 모두 0.7~0.8cm내에 있다.

호형토기로서 양호한 상태로 출토된 것은 6호 주거지로 구순각목에 단사선이 들어간 심발형 토기와 공반되고 있다.

천발형 토기 2점이 출토된 4호 주거지의 경우 공열토기와 공반되고 있으며, 단도마연토기의 경우 거의 대부분 片 상태로 출토되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의 대부분에서 內·外面에는 수직 혹은 경사지거나 드물게는 수평으로 목리로 器壁을 整面된 것이 확인되었다.

10) 林潤美, 1990, 「韓國 先史時代 爐址研究」『崇實史學』6집, 승실대 사학회, 51쪽.

11) 車勇杰, 1986, 「淸州 內谷洞 遺蹟 發掘調査 報告」『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 박물관.

12) 尹武炳, 1986, 「淸州 香亭·外北洞遺蹟 發掘調査 報告」『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박물관.

13) 충남대박물관, 1995, 『屯山』.

14)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 「선사 및 고대」『大邱市史』1권(통사), 96~98쪽.

15) 이웅조 외, 1997, 「忠州 早洞里遺蹟 發掘調査 概報(2次)」『年報』, 충북대박물관. 7호 주거지의 연대 값은 2660BP가 나왔다.

2) 석기류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기는 마제석촉, 마제석부, 타제석부, 석검, 석창, 반월형석도, 대패날, 석검, 원판석기, 숫돌, 갈판, 천공석기, 미완성석기 등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다.

석기 중에서 마제석촉의 경우에는 10호 주거지에서 다소 床面보다 높은 곳에서 출토된 유경식석촉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면이 편육각형인 삼각만입석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13호 주거지의 경우 총 90점에 이르는 석기 중 11점의 삼각만입석촉과 14점의 타제와 마제석부가 출토되었다. 그외 2호 주거지의 경우 크기가 10cm에 이르는 석촉이 4점 출토되었다.

반월형석도는 완형과 반파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편인이다. 형태는 장방형과 舟形 등이 있다.

석기 중에 有溝石斧는 주거지 내부에서는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으며 다만 지표에서 1점이 수습되었다.

IV. 맺음말

대구 팔달동 유적은 대구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지로서는 최초로 대규모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서 당시 이 지역의 선사문화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였다고 할 수 있다.

팔달동 유적은 그 지형상 완만하지만 주변부를 널리 살필 수 있을뿐 아니라 주변에 큰 하천을 끼고 배후로는 높은 산을 등지고 있음으로서 주변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형적 이점과 함께 수렵과 어로활동 뿐 아니라 농경활동을 하기에도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이다.

팔달동 유적의 취락은 시간차를 두고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어느 시기에 이곳에 이주해온 당시 주민들에 의해 일시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주거군이 어떤 일정한 형태를 띠고 군집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군집단위를 구분짓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주거군을 감싸도는 溝라고 할 수 있다. 이 구는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의 방어를 위한 환호라기 보다는 취락을 구분짓고 주거군을 가르는 상징적인 구로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주거군은 크게 세 개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위가 당시 주민들의 신분질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주거지와 그 출토유물을 더 정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의 양상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같은 형태의 공열토기가 출토되며 석기에 있어서도 석촉이나 석도의 출토양상이 비슷하다.

주거지의 편년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연대측정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아직 그 결과

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유적이거나 타 지역의 주거편년과 비교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팔달동과 시기를 비교할 수 있는 유적은 월성동 주거지¹⁶⁾와 1997년(5월 19일~9월 20일)에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송현동 주거지¹⁷⁾가 있다. 이 두 유적 모두 정확한 연대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주거지의 입지 및 형태, 출토유물을 통해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팔달동 유적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팔달동 청동기주거유적은 구릉성 중심부와 완경사면에 분포하는 주거지가 일정한 간격과 형태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서 이 시기 취락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취락을 경계지우는 상징적인 溝狀유구가 조사됨으로써 본격적인 환호설치 이전 시기의 취락양상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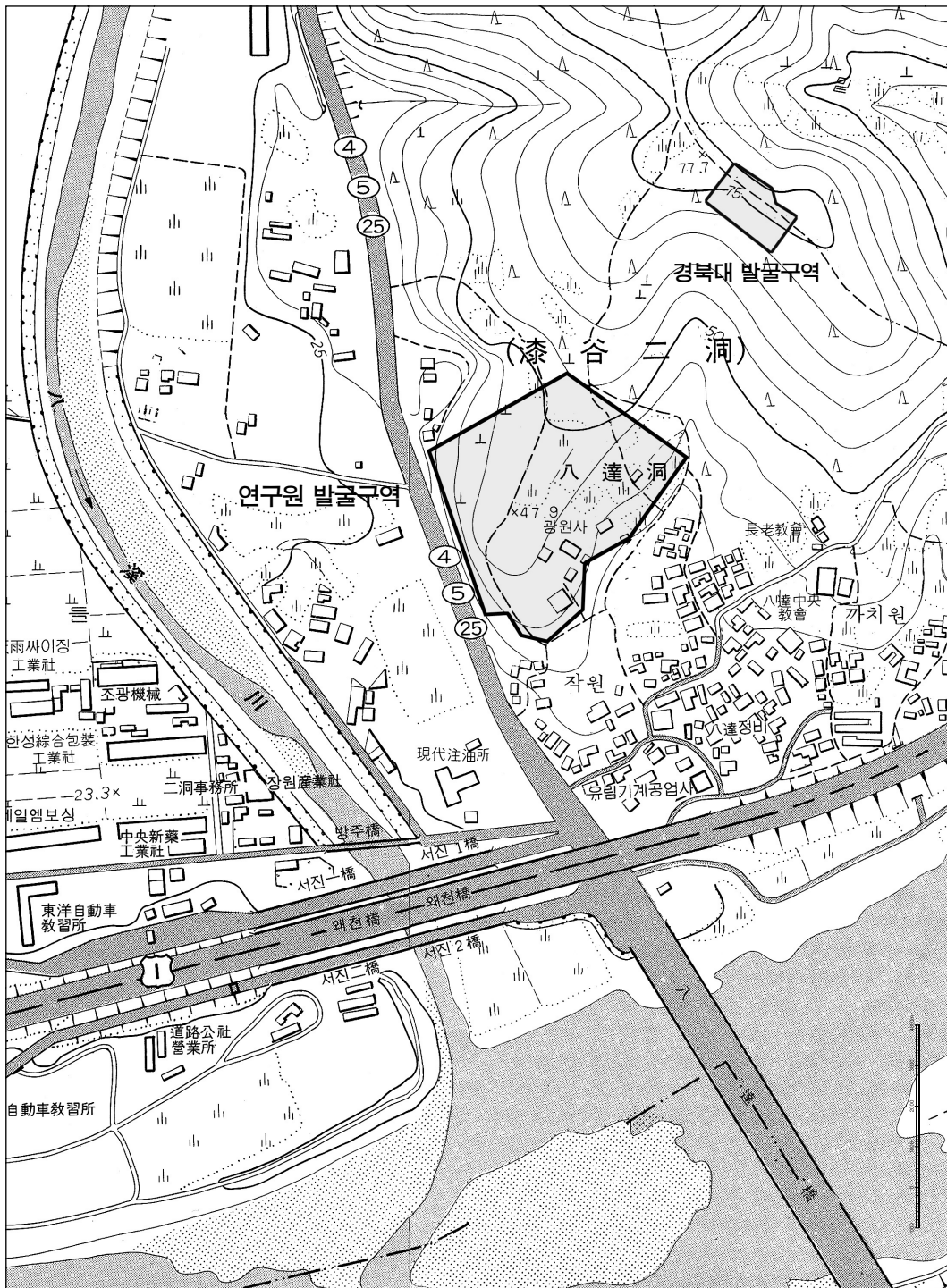
세번째로는 주거지내에 외·내부에 설치된 주구와 함께 벽구를 조성하면서 주거지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周堤를 같이 설치한 것이 조사되어 당시 주거구조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6) 경북대학교 박물관, 1991, 『大邱 月城洞 先史遺蹟』, 조사된 2기의 장방형 주거지 중 2호 주거지의 경우 벽구가 조사되었으며 1호 주거지에서는 천발형토기, 공열토기, 구순각목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두 주거지의 유사성으로 보아 동일한 시기의 주거지로 보면서 그 시기를 청동기시대 전기의 중반 이후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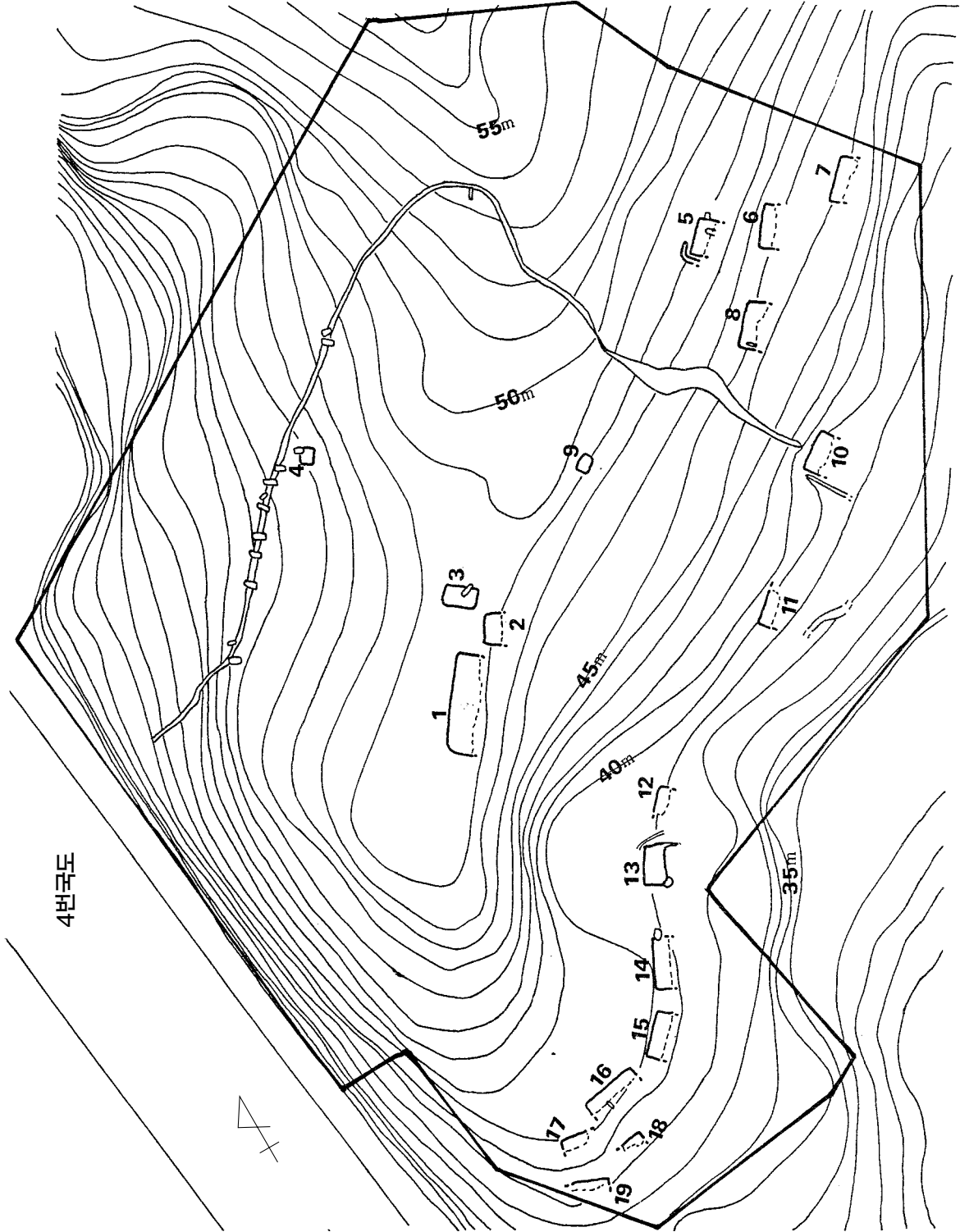
1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1997, 『현장설명자료집』, 이 유적은 해발 76m 되는 소구릉의 말단부에 입지하며 조사된 14棟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구릉의 능선상에 입지하는데 팔달동과 입지가 유사하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이 7동, 방형이 3동, 형태불명이 4개동이며 직선거리 180여m내에 분포하고 있다. 규모에 있어서는 대형이 3동, 소형이 2동 확인되었는데 중심부의 능선상에 대형주거지가 위치한 점도 팔달동과 동일하다. 주거지 내부에는 유적 구릉 반대편의 월성동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時期는 석축(이단경식, 무경식)과 석도(장주형, 석탄리형)의 형태로 보아 전기로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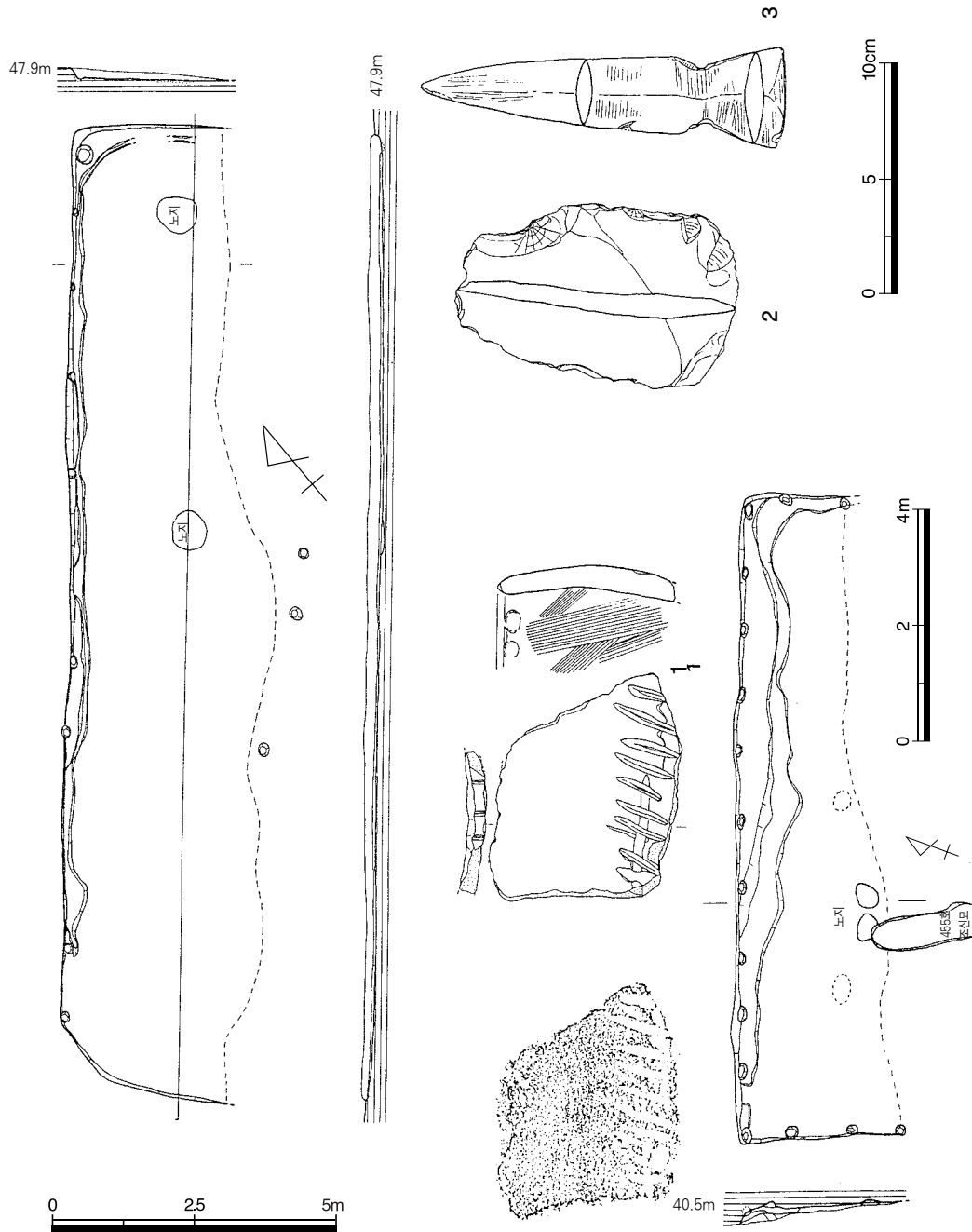
〈도 1〉 팔달동 유적 위치도(S: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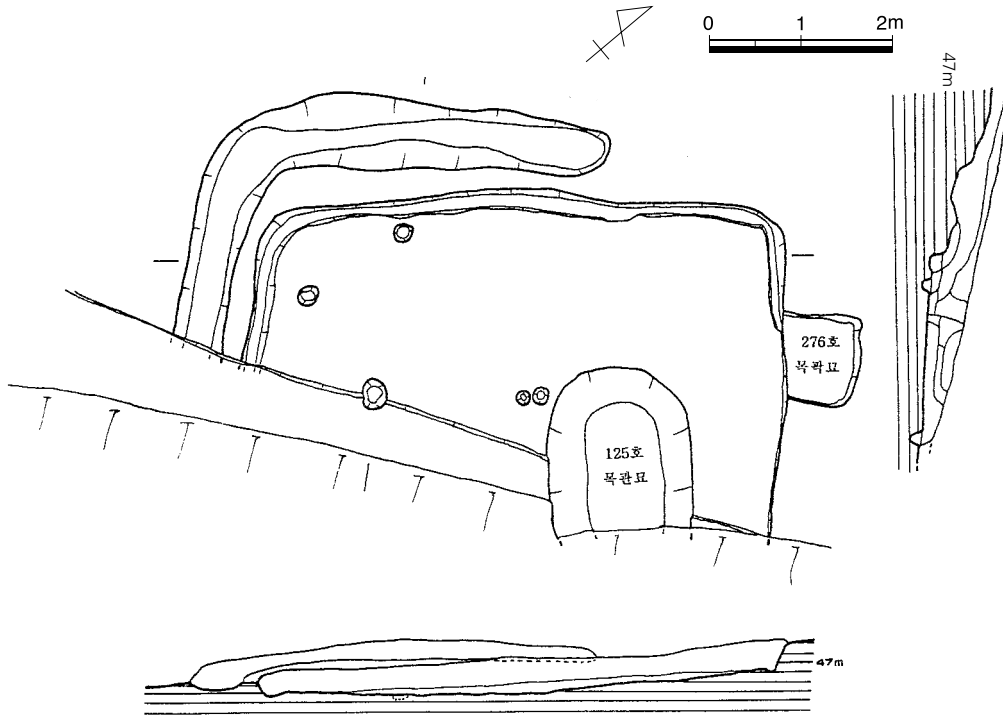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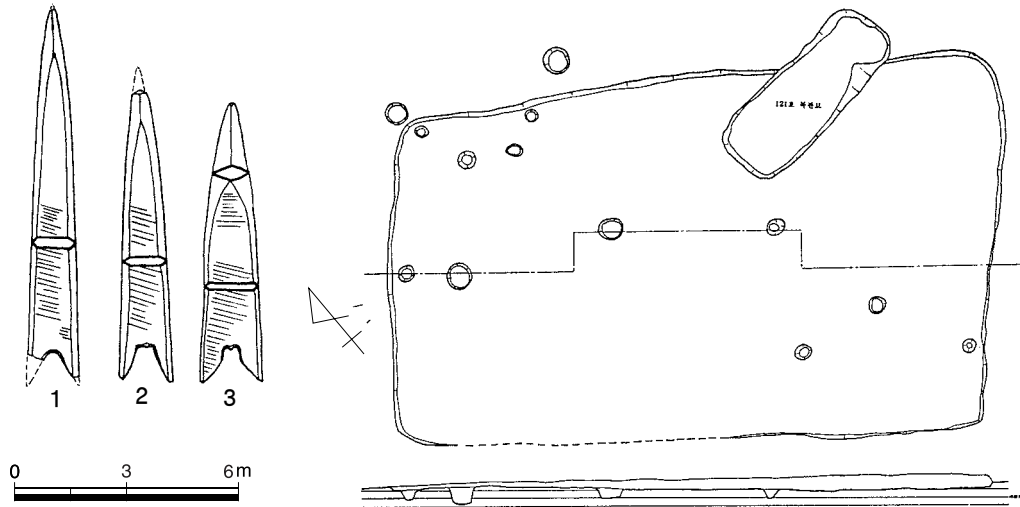
〈도 2〉 유적위치도(S=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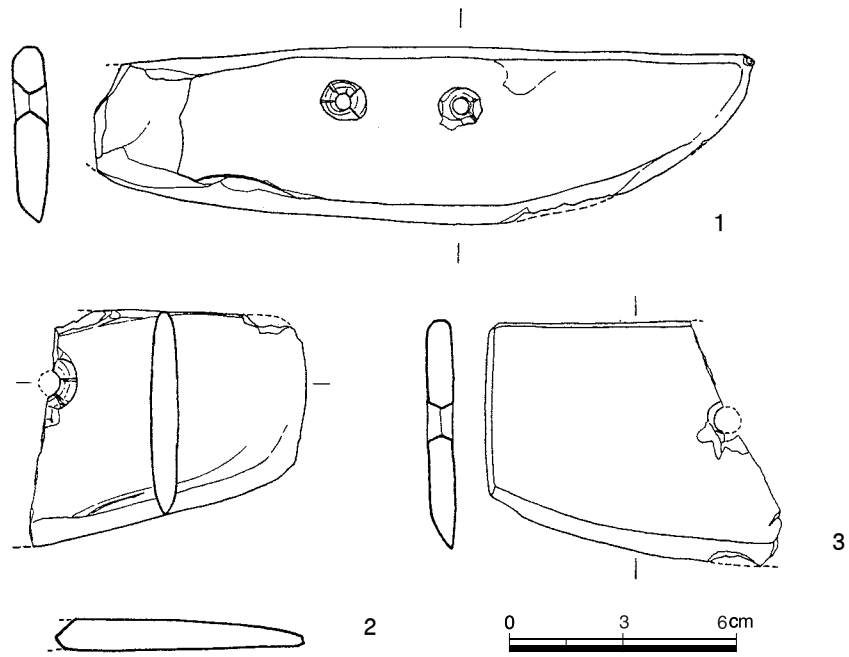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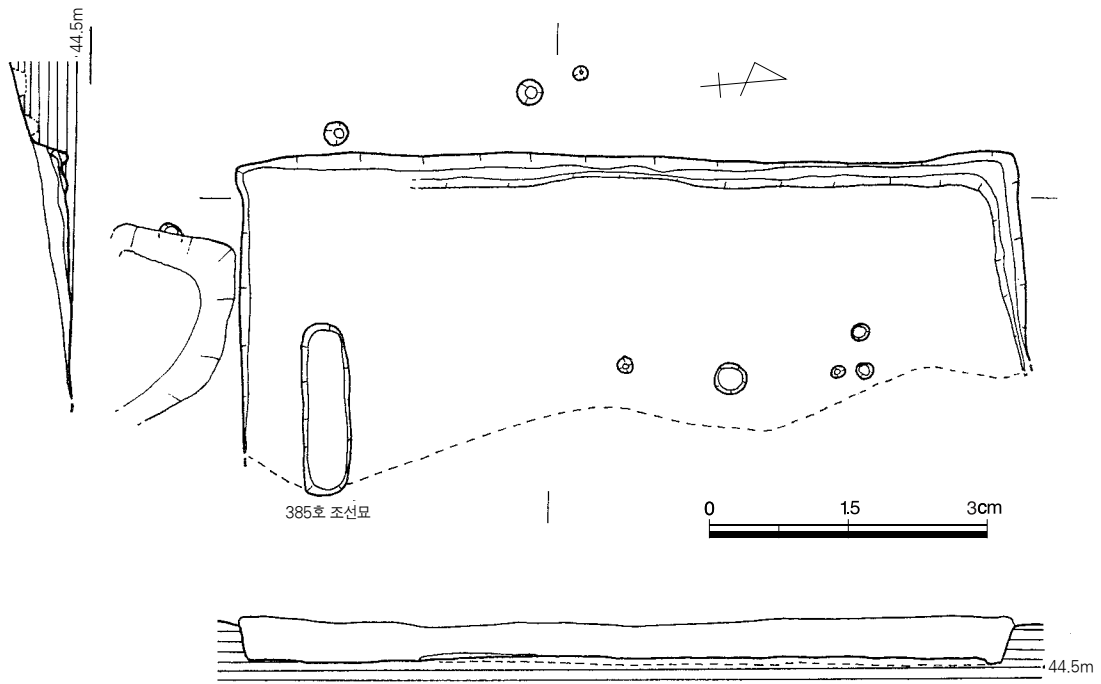
<도 3> 대구 팔달동 주거지 유구배치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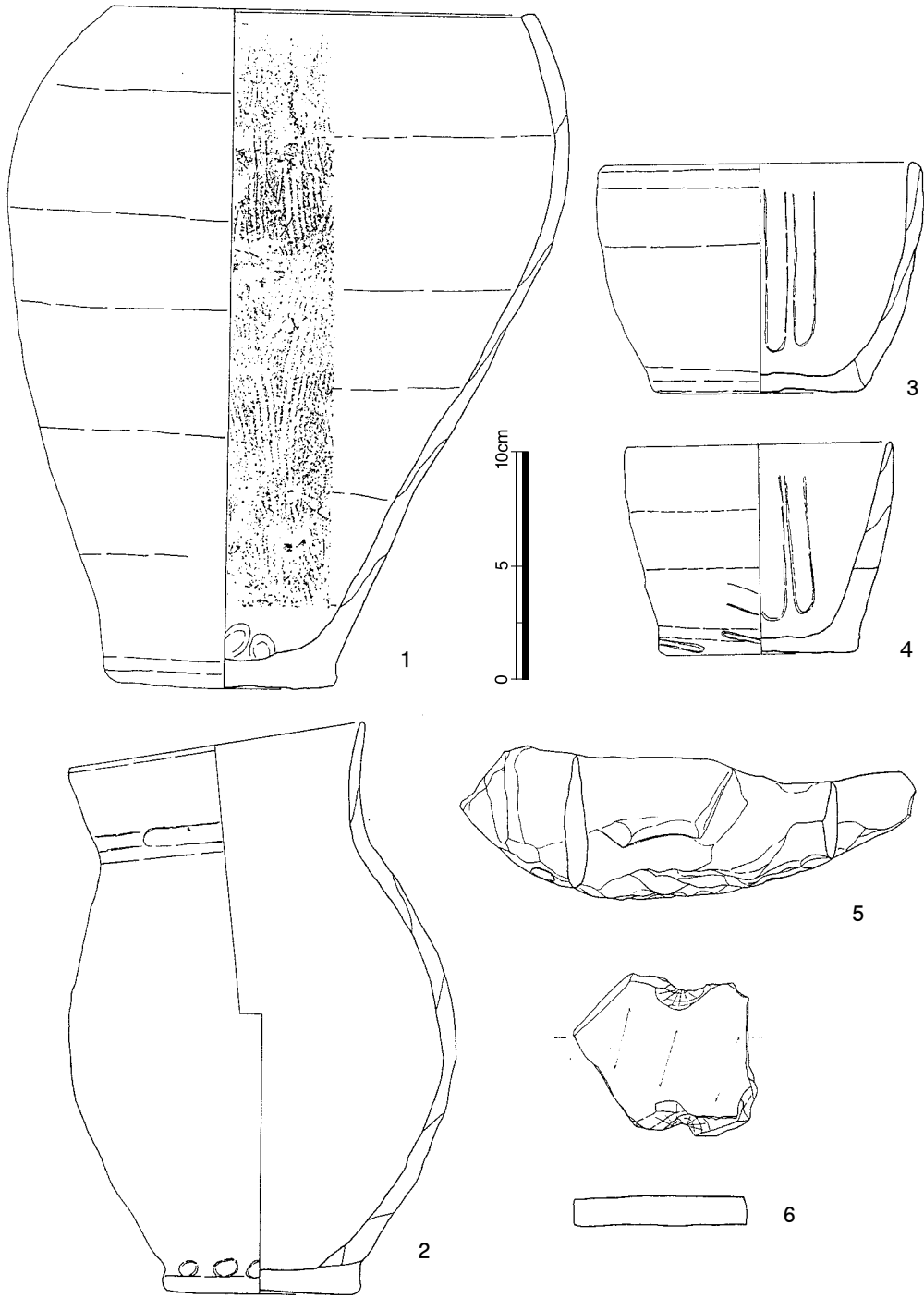
〈도 4〉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1~3), 16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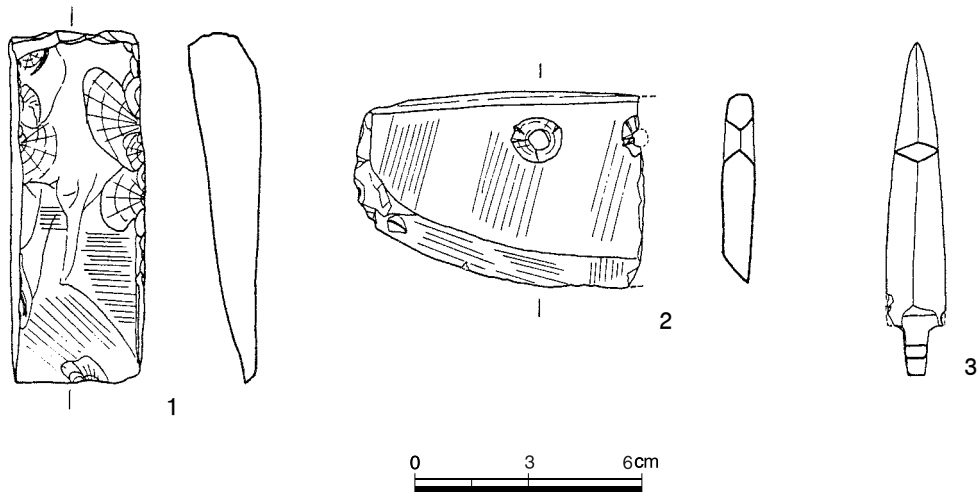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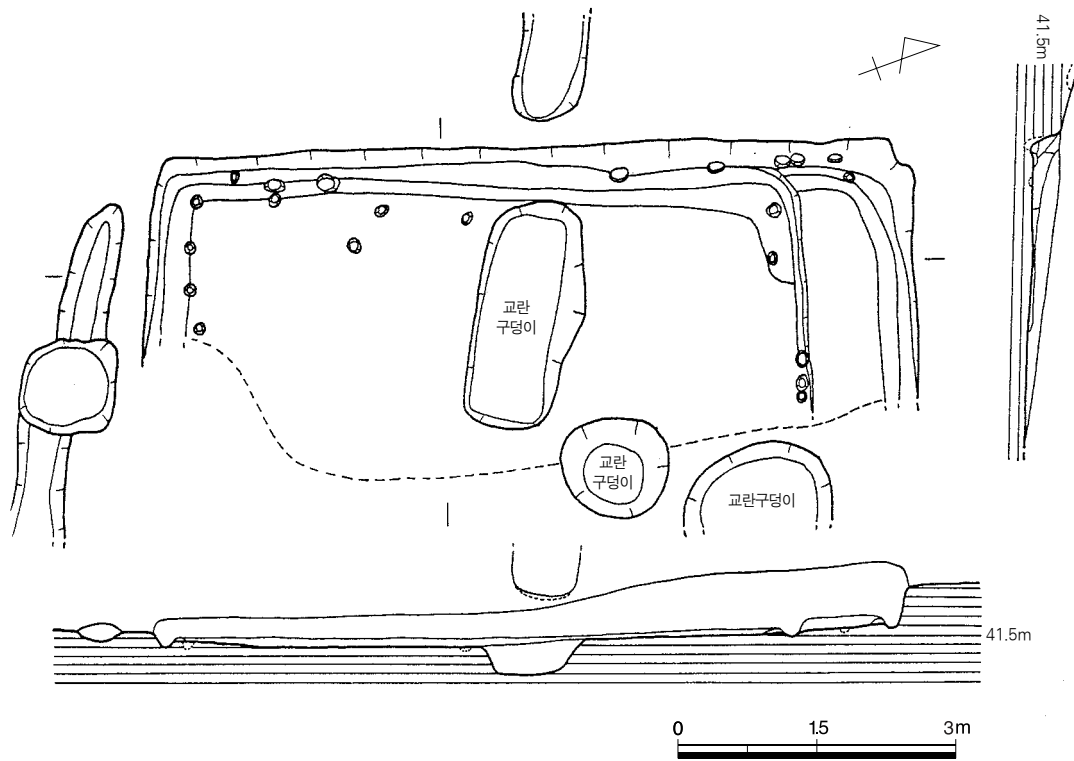
〈도 5〉 2호 주거지 출토유물(1~3호) 및 3호·5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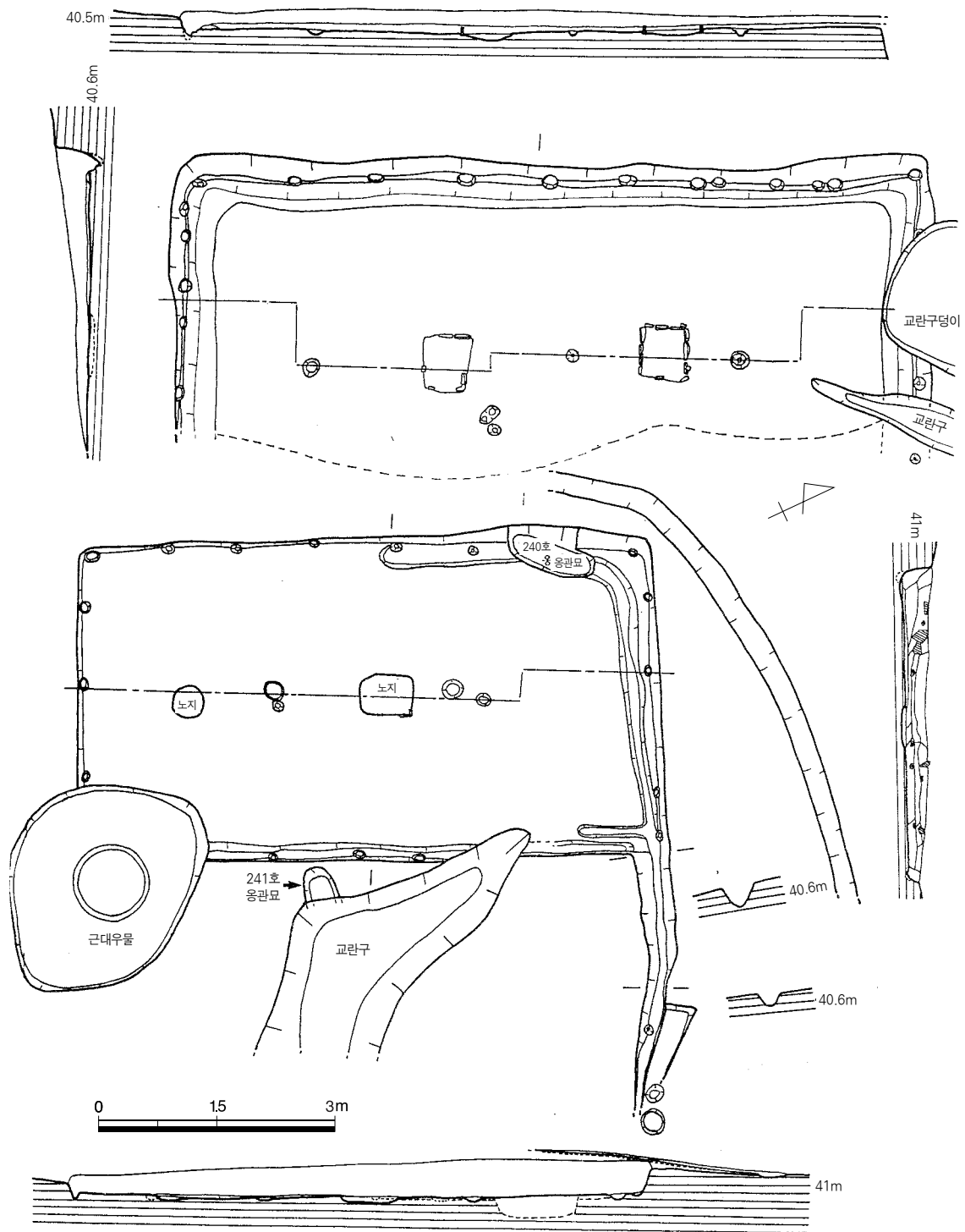
〈도 6〉 8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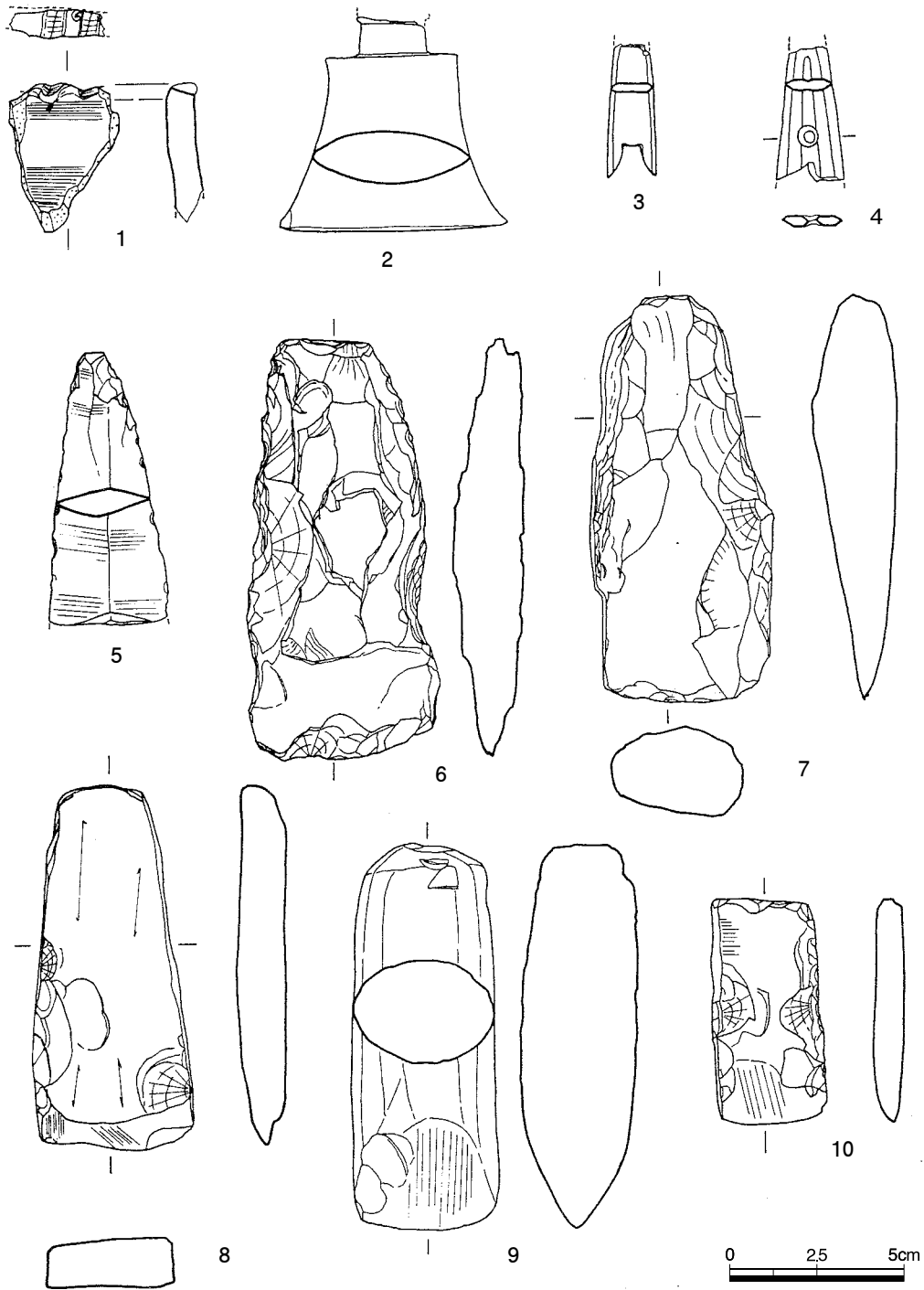
〈도 7〉 10호 주거지(1), 6호 주거지(2) 및 4호 주거지 출토유물(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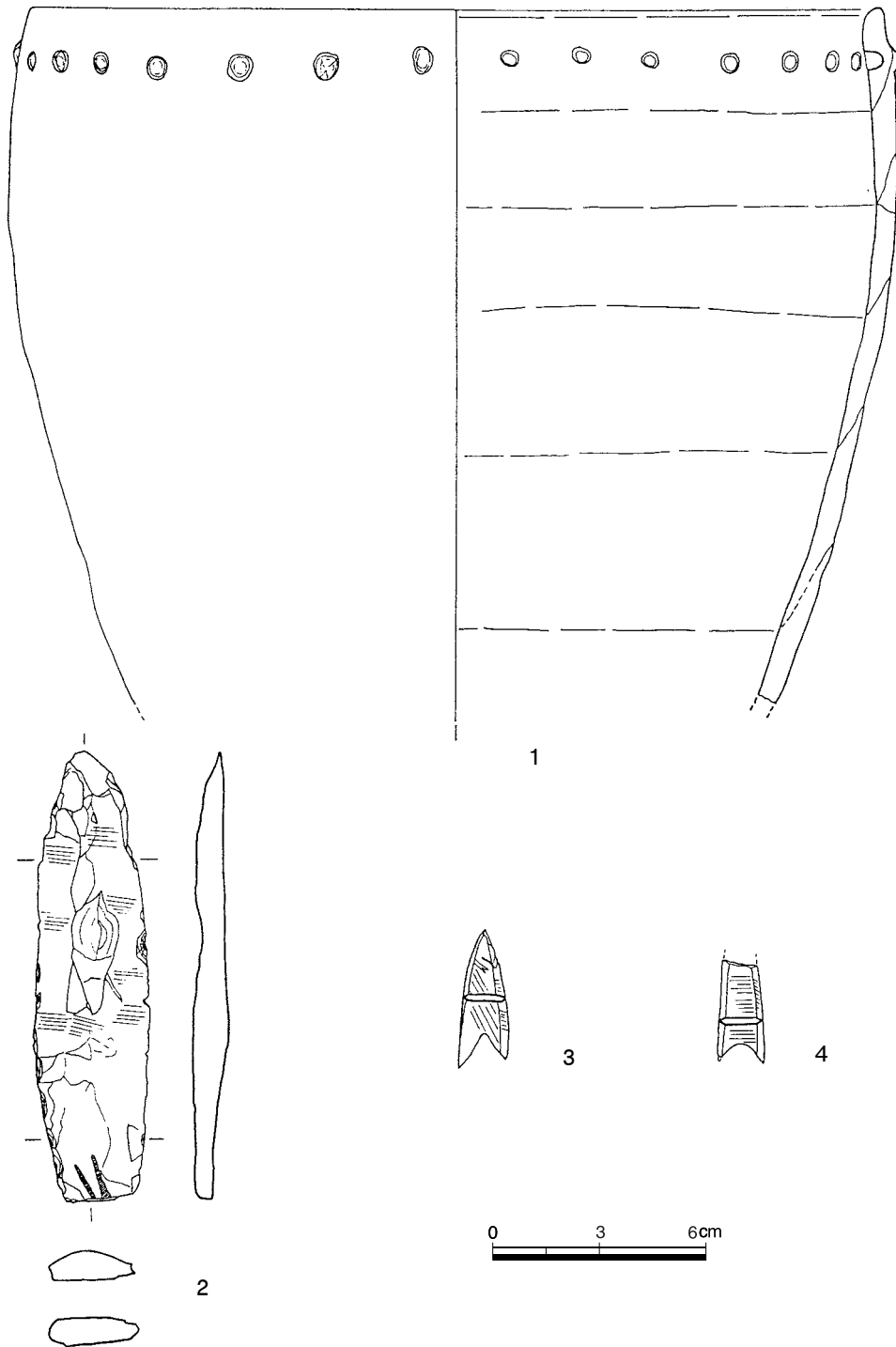
〈도 8〉 10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1~3)



〈도 9〉 14호(上), 13호(下) 주거지



〈도 10〉 13호 주거지 출토유물(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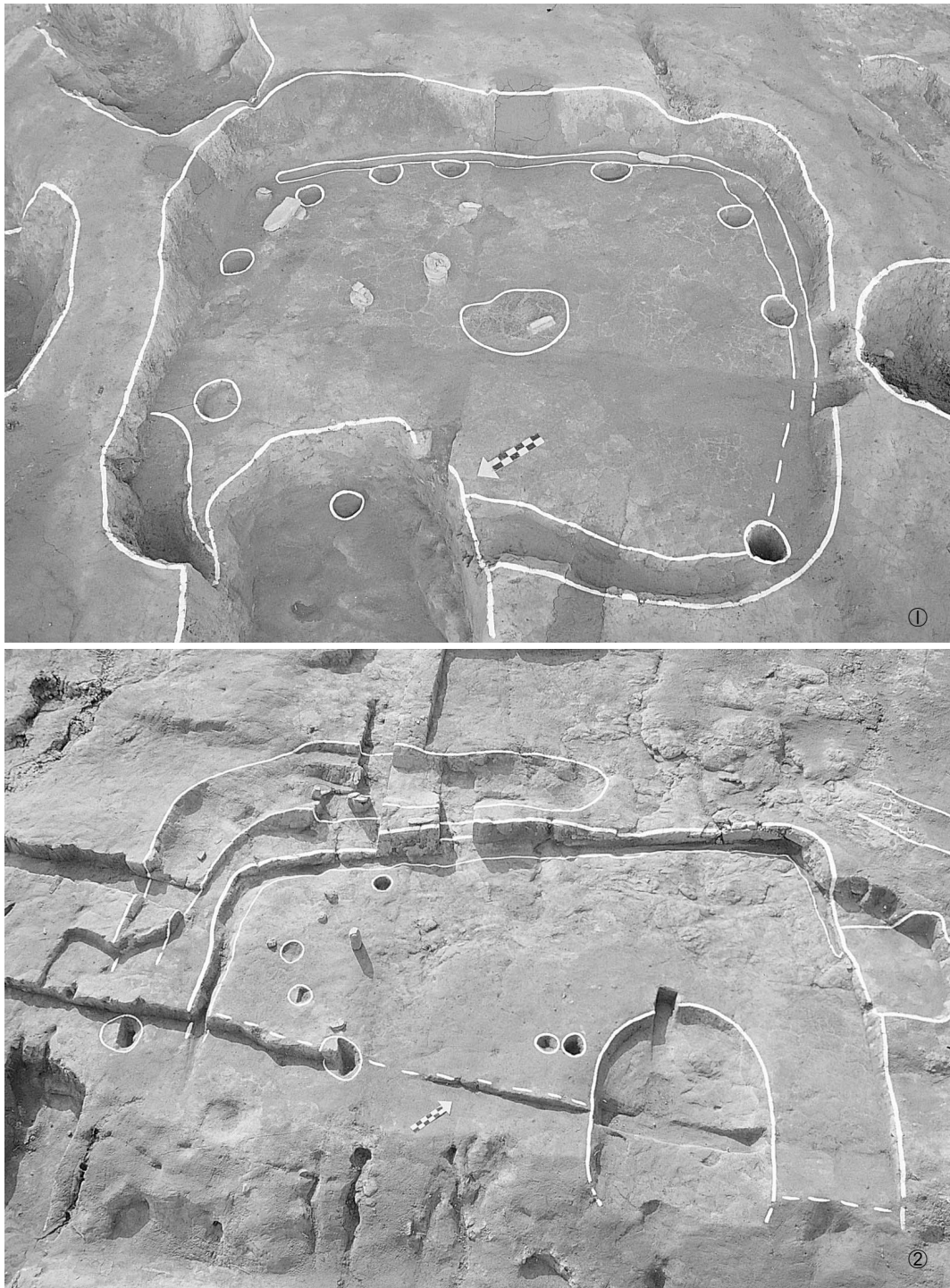
〈도 11〉 14호 주거지 출토유물(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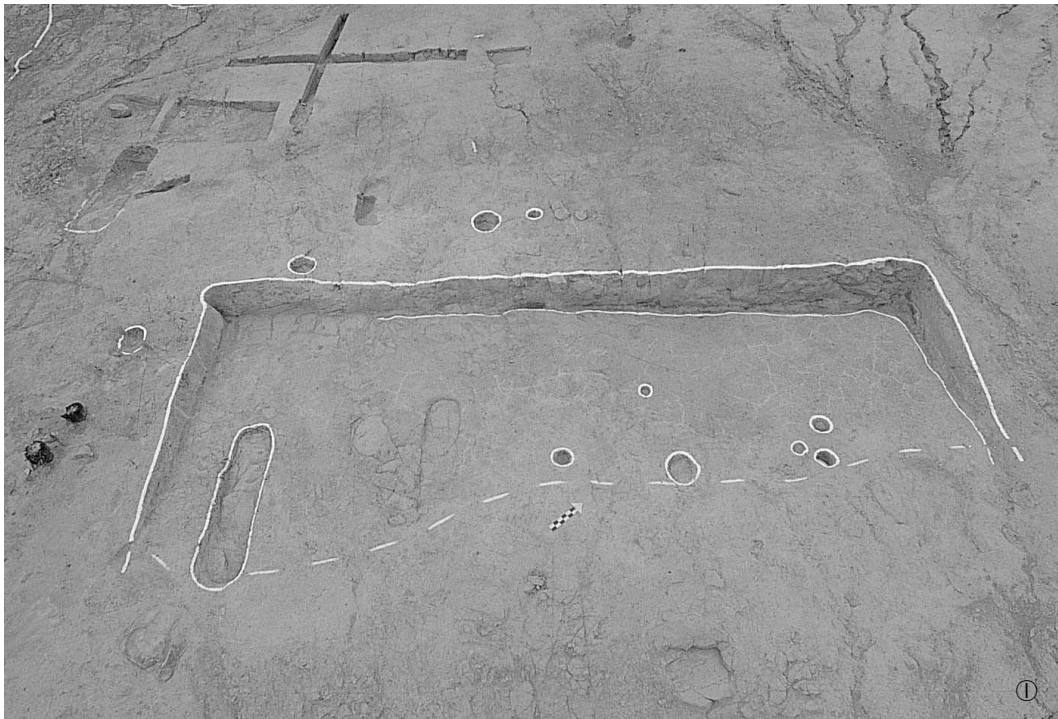
〈사진 1〉 팔달동 유적 원경(①),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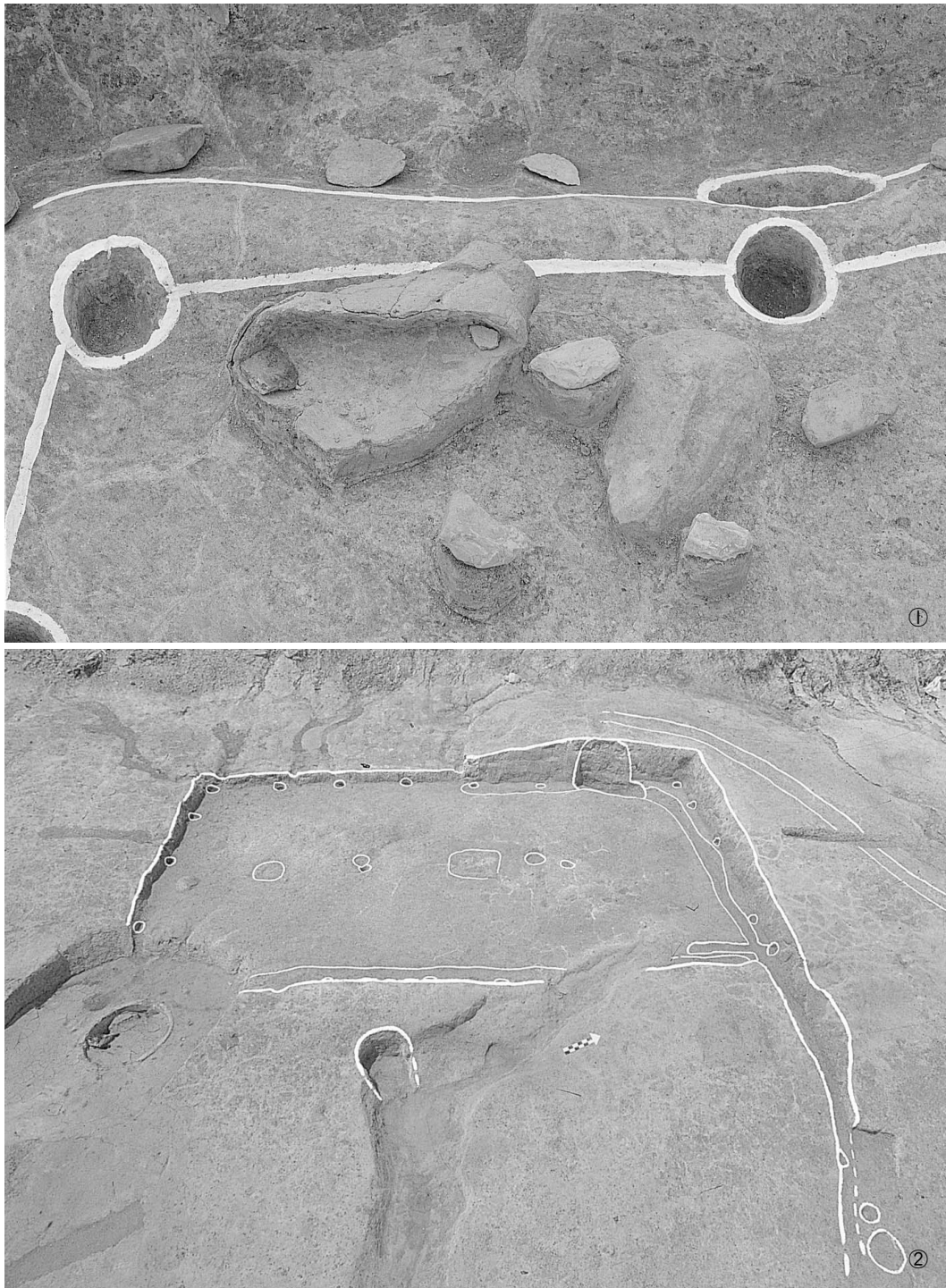
〈사진 2〉 1호 주거지 전경(①), 1·2·3호 주거지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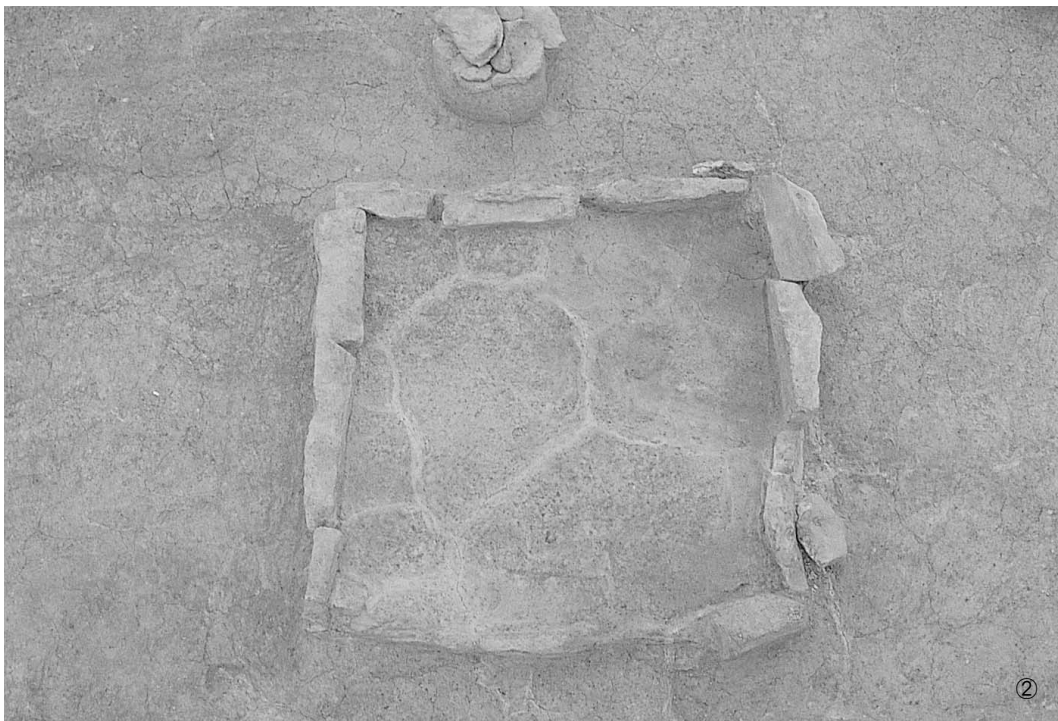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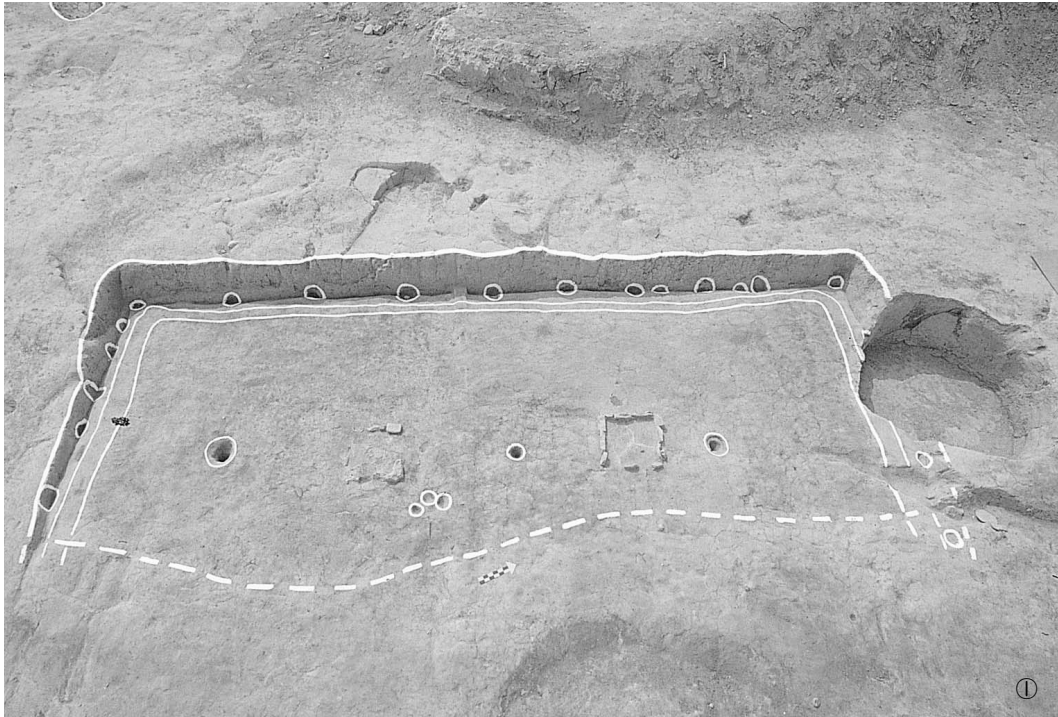
〈사진 3〉 4호 주거지(①), 5호 주거지(②) 전경



〈사진 4〉 8호 주거지(①), 10호 주거지(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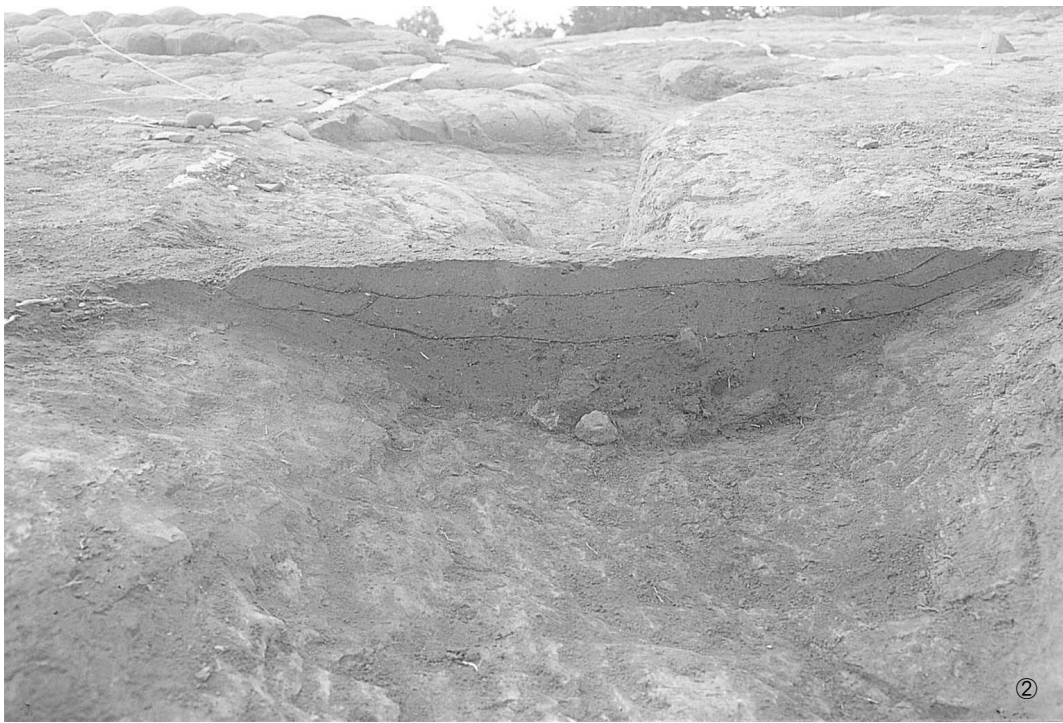
〈사진 5〉 10호 주거지내 발형토기 출토상태(①), 13호 주거지 전경(②)



〈사진 6〉 14호 주거지(①), 14호 주거지내 노지 노출상태(②)



〈사진 7〉 15호 주거지(①), 16호 주거지(②) 전경



〈사진 8〉 溝 단면상태(①·②)

昌原 盤溪洞 聚落遺蹟 調查豫報

崔憲燮*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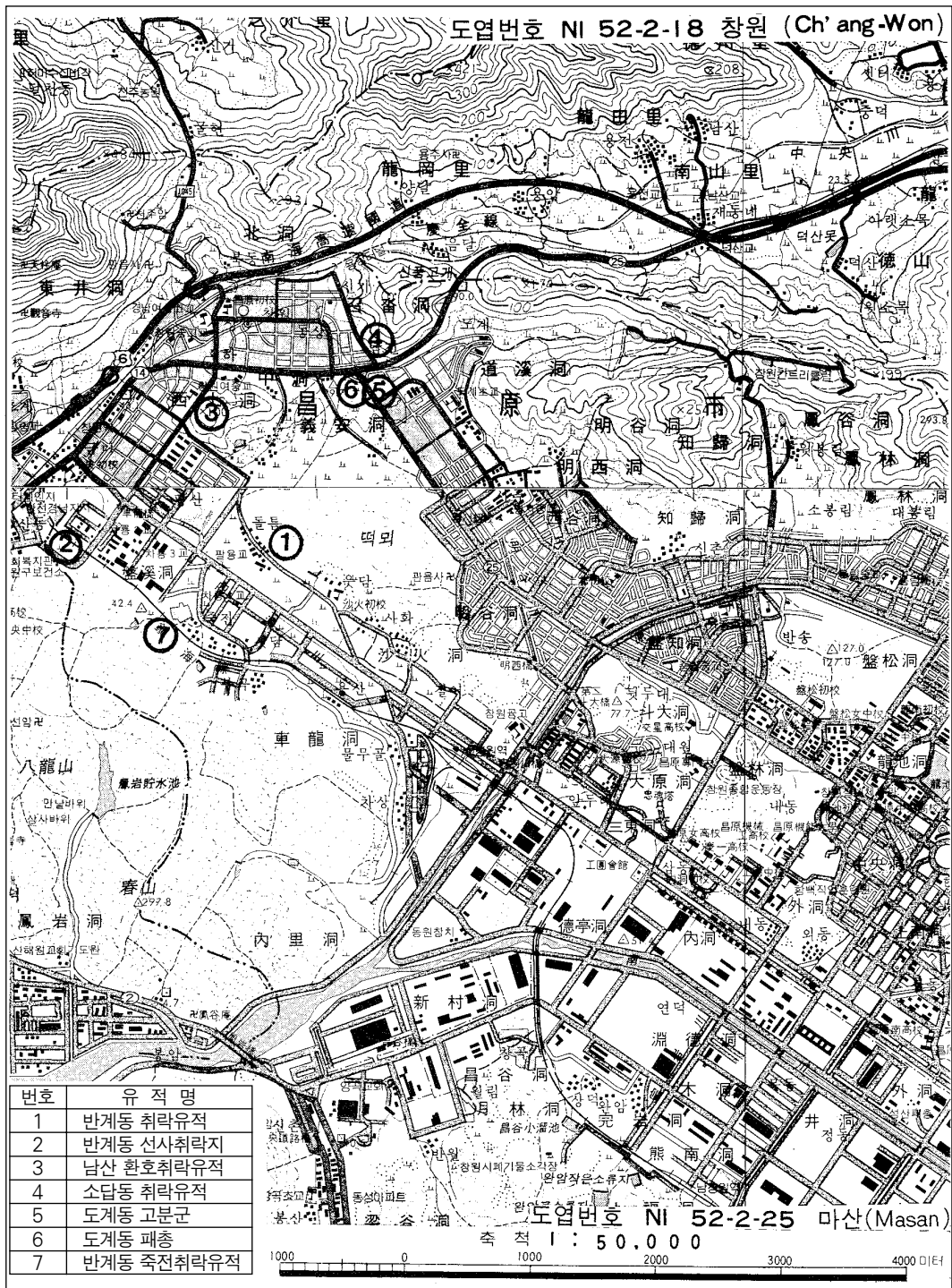
I. 머리말	4. 우물
II. 입지환경	5. 배수구
III. 조사내용	6. 폐기장
1. 수혈유구	7. 조개더미
2. 고상건물지	8. 고분군
3. 논	IV. 맺음말

I .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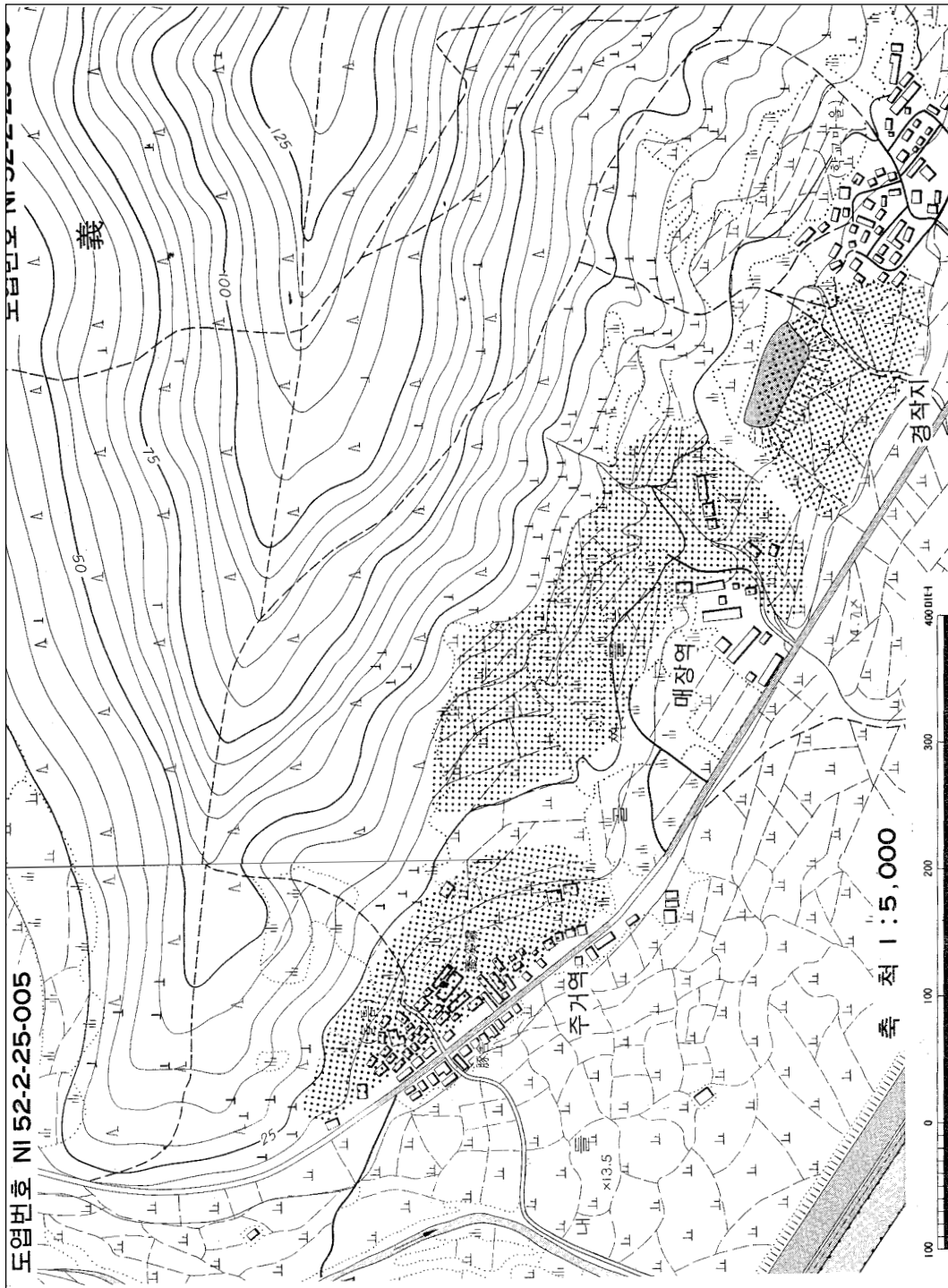
昌原 盤溪洞 聚落¹⁾유적은 1994년 하반기에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창원시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²⁾ 지표조사의 직후에 행해진 차룡공단조성을 위한 터담기

* 창원대학교 박물관

1) 최근 취락고고학의 현상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문인 『마을의 考古學』에서 사례를 뽑아 보면, 이에 상응하는 용어로 住居址(李健茂, 鄭聖喜, 崔鍾澤, 이홍중), 마을(權鶴洙), 聚落(秋淵植, 金世基), 집자리(이근욱), 集落(金吉植) 등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서 주거지와 그 한글 용어인 집자리는 개별 가옥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집락은 취락에 대한 일본식 용어이므로 논외로 한다. 마을과 취락에 대해 살펴 보면, 개념상의 의미는 대동소이 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용어에 있어서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권학수는 이를 “거의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취락 고고학보다는 자연스러운 한글용어라는 점에서 선호될 수 있다.”(29쪽)고 하면서 마을이라는 한글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아직 용어의 검증이 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신중하고 싶다. 이에 대해 추연식은 취락지리학에서의 규정을 원용하여



<지도 1> 유적위치도



〈지도 2〉 유적배치도

공사도중유적의 일부가 훼손, 1995년 9월의 시굴조사를 거쳐 1996년 9월~1997년 6월까지 발굴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청동기시대의 지식묘 1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 1동을 비롯하여, 6세기이래 삼국시대후기 취락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³⁾ 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삼국시대후기 취락을 구성하는 유구는 수혈유구 75기, 고상건물지 20여기, 배수구 20기, 우물 7기, 조개더미 3기, 폐기장 1개소, 논과 밭 및 이에 따르는 농로와 둑 및 수로, 석곽묘 26기, 옹관묘 5기, 석실분 4기 등 160여기이다. 이밖에 상기한 선사유구 2기외에 조선시대 와요지 1기가 있다. 이번 예보를 통하여 소개하려는 내용은 발굴자료의 중심을 이루는 삼국시대후기 취락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료의 정리단계에 있으므로 발굴자료의 일차적인 공개를 통하여 연구자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

Ⅱ . 입지환경

반계동 취락유적은 창원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燈明山(떡피, 186m)의 서쪽 기슭에 입지해 있다. 유적이 위치한 창원은 天柱山(640.3m), 旃檀山(精兵山, 566.7m), 龍池峰(약 720m대) 등의 洛南正幹⁴⁾ 줄기와 佛母山(801.7m), 長卜山(582.2m), 高山(山城山 400.4m), 盤

취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45, 46쪽) 이 글에서는 이미 취락지리학 등에서 개념과 용어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聚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韓國考古學會, 1994, 『마을의 考古學』; 洪慶姬, 1993, 『村落地理學』, 法文社, 22~24쪽; 吳洪哲, 1994, 『聚落地理學』, 教學研究社, 10~13쪽.

2) 昌原市·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昌原市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32~36쪽.

3) 창원대학교 박물관, 1997, 『창원시 반계동유적 완료보고서』, 油印物;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8, 『昌原의 先史·古代 聚落』, 31~38쪽.

4) 18세기 중후엽경(1769년 추정), 우리의 전통적 지리인식 체계를 토대로 申景濬에 의해 작성된 『山經表』에 실려 있는 산줄기(山經)의 이름이다. 낙남정간은 낙동강 유역의 남쪽 분수령을 이루어 내륙과 해안을 구분하는 자연경계로서 작용되며, 지리산 迎神峰에서 白頭大幹과 분기하여 김해시 대동면 매리의 神魚山 자락에서 낙동강에 몰입된다. 이 구간을 현대 지리학에서는 小白山脈의 연장에 두고 있으나, 그 여맥은 지리산에서 경남과 전남의 도계를 이루는 섬진강의 서쪽 분수령을 이루며 남주하다가 하동을 거쳐 섬진강 너머의 여수반도에서 종결된다. 이로 인하여 경남의 남부해안지역과 내륙을 구획하는 자연지리적 경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전통지리학에서 설정한 山經體系를 원용할 것을 제안한다.

洛南正幹을 洛南正脈이라 부르는 것이 현재의 일반화된 명칭이다. 이는 1913년 朝鮮光文會에서 산경표를 복간할 때, 洛南正脈이라 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그 저본으로 여겨지는 『輿地便覽』의 『山經表』에서는 낙남정간으로 표기하고 있고, 조선광문회 본에서도 낙남정맥이라 하였지만 그 기술순서는 長白正幹의 다음에 두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낙남정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龍山(八龍山, 582.2m) 등 해발 500~600대의 노년기 초기의 구릉성 산지에 둘러 싸인 盆地이다. 이들 구릉성 산지의 기슭에는 오랜 지질시대의 준평원화 작용에 의해 緩斜面 지형이 형성되어 있고, 지류곡의 곡구를 중심으로 扇狀地가 발달해 있다.⁵⁾ 분지의 중앙으로는 南山(108m)에서 堂山(73.5m)에 이르는 해발 100m대 내외의 준평원화 된 잔구성 구릉이 波浪狀으로 연이어져 분지의 중심축을 양분하고 있다. 이 파랑상 구릉의 동쪽으로는 선상지성지형의 발달이 뚜렷하고, 구릉의 서쪽으로 연한 저위고도상에는 고해수면의 연장선인 潮間帶, 汽水域圈과 이에 연한 沖積低地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⁶⁾

반계동 취락유적이 입지한 지형면은 잔구화된 침식구릉의 기슭인 완사면과 谷部 및 이에 연한 충적저지에까지 연장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저지대는 이미 유실되었다. 유적의 주변지형

대해 박용수는 “대간 정간 정맥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북정맥보다 앞에 배치한 것으로 보아 낙남정간이 옳은 듯싶다”고 하였다. 또한 조석필은 아직까지는 정간과 정맥의 차이를 뚜렷이 구분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분류법이나 체계를 단순히 하는 의미에서 정간=정맥이라 할 것을 제안하면서 낙남정간이라 부르고 있다. 이같은 발상은 지극히 단순하고 편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의 언급대로 현재적 시각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였을 뿐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산줄기의 배치상, 기록상의 배열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도 앞의 양인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으나 필자와는 다소 다른 결론을 도출한 듯하다. 正幹(장백, 낙남)은 大幹(백두)의 양단을 잇는 배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간의 흐름과 바르게 일치되는 줄기라는 의미에서 正幹으로 분류된 듯하다. 이와 같은 분류에서 그 기준이 된 것은 산줄기의 규모가 아니라 방증자료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규모보다는 산경 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격에 따라 大幹, 正幹, 正脈으로 분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대간과 정간은 국토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로서 기능됨에 따라 幹이라는 동기능을 부여받고, 간의 규모와 격에 의해 대간과 정간으로 세분된 것으로 이해된다. 정맥은 국토의 동맥(脈管, 血管)으로 기능하는 강을 웅위하는 울타리(분수령)로서의 의미가 강한 듯하다. 이를 인체에 비유하자면 대간 정간은 뼈대(骨幹)로서 정맥은 핏줄(血脈)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신경준 지음, 박용수 해설, 1990, 『산경표』, 푸른산, 20쪽, 21쪽; 조석필, 1995, 『산경표를 위하여』, 도서출판 산악문화, 32쪽; 조석필, 1997, 『태백산맥은 없다』, 사람과 산, 91~94쪽, 301쪽; 曹華龍, 1996, 「소백산맥」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12쪽; 朴仁鎬, 1996, 『朝鮮後期歷史地理學 研究』 以會文化社, 75~173쪽.

5) 金亨坤·崔憲燮, 1996, 『昌原 南山遺蹟 試掘調查報告』, 6쪽.

6) 고대의 해수면에 대한 검증은 화분분석, 구조분석 등 자연과학적분석에 기초한 고환경의 복원이 전제되나, 고고자료인 패총의 분포와 고기록, 고지명의 검증을 통한 간접자료로서도 어느정도 방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후자인 간접자료의 분석을 통해 창원분지의 고해수면을 논증한 바 있다. 이 결과 현재의 해발고도 10m대가 과거(?)의 汽水域圈으로 추정되었다.

金亨坤·崔憲燮, 1996, 『昌原 南山遺蹟 試掘調查報告』, 6~11쪽.

창원분지의 고환경에 대한 복원과 지형분류는 현재 외주 용역으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창원분지내의 고환경에 대한 복원적 고찰은 보고서에 詳報될 것이다.

창원분지내의 지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경북대학교 지리교육학과의 황상일 선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은 유적의 전면으로 충적저지와 이 저지를 관류하는 河道⁷⁾의 존재가 상정된다. 하도의 이서지 역으로는 반룡산 기슭의 완사면과 이에 연한 선상지면이 발달해 있고, 이곳에도 반계동취락에 앞선 시기의 취락이 분포해 있다.⁸⁾ 북쪽으로는 천주산의 지류곡에 의해 형성된 선상지면이 발달해 있고, 침식구릉인 남산의 정상부와 정선대지부 및 그 완사면에는 청동기시대의 환호취락으로 유명해진 남산유적과 청동기시대 및 삼국시대의 취락으로 상정되는 유물산포지와 조개더미가 분포해 있다.⁹⁾ 반계동취락의 북동쪽으로도 완사면과 저위평탄대지면에 원삼국기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취락유적이 입지해 있다.¹⁰⁾ 유적의 바로 남서쪽으로는 해역의 영향권내에 든 기수역권과 조간대로 추정된다. 이는 발굴조사 당시 주변지역에 대해 실시한 지표조사시 유적의 남동쪽 2km지점에서 해성층의 존재를 확인한 바로서도 방증된다.¹¹⁾ 또한 간접자료로서 고기록¹²⁾과 지명¹³⁾을 예시할 수 있다. 현재의 사화동 일대로 비정되는 고기록상의 사화포

7) 창원공단 개발이전의 지형도에 근거할 때, 현재의 산업대로의 노선을 따라 하도가 흘렀음을 알 수 있다. 저지인 하도를 메워 도로를 개설한 관계로 현재까지도 큰 장마가 들때면, 도로가 침수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8) 1994년도의 지표조사시 이곳에서도 삼국시대 초기에서 반계동취락에 다소 앞선 시기의 취락으로 여겨지는 유물산포지와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金亨坤·崔憲燮, 1995, 『昌原市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48쪽.

9) 昌原市·昌原大學校 博物館, 1995, 『昌原市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36~39쪽; 金亨坤·崔憲燮, 1996, 『昌原 南山遺蹟 試掘調査報告』;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7, 『昌原南山 環濠聚落遺蹟發掘調査指導委員會議資料』, 油印物;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8, 『昌原의 先史·古代 聚落』, 6~25쪽.

10) 창원분지의 북동쪽 경계를 이루는 완사면과 저위평탄대지상에 주거지(召沓洞 住居址), 조개더미(召沓洞 貝塚), 고분군(道溪洞 古墳群) 등으로 이루어진 취락유적이 분포한다.

朴東百·秋淵植, 1987, 『昌原道溪洞古墳群 I』; 昌原市·昌原大學校 博物館, 1995, 『昌原市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39~42쪽; 東義大學校 博物館, 1996, 『창원도계동고분군』.

11) 거리계측의 측점은 반계동취락에서 조개더미가 확인된 1구역의 중앙을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이곳에서 채집된 패류의 패각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의뢰중에 있으며, 패각이 채집된 고도 상한은 약 해발 0m선 부근이다.

12) 『新增 東國輿地勝覽』 卷 三十二 昌原都護府 山川條에 “知耳浦 在府南十里 有鹽盆 沙火浦 去知耳浦 五里有鹽盆”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책의 편찬당시(朝鮮 中宗 25年, 1530年)만 하더라도 현재의 지귀동, 사화동에 비정되는 지이포, 사화포 일대는 염전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간대로 추정된다.

13) 해성층이 확인된 사화동일대는 조선시대의 사화포가 있었던 곳이다. 이 “沙火”라는 지명은 “모랫벌”의 한역화한 지명으로서 이 일대가 조간대였음을 방증한다.

金亨坤·崔憲燮, 1996, 『昌原 南山遺蹟 試掘調査報告』, 11쪽.

이밖에 사화동 일대에서 바다와 관련된 고지명으로 “조개등”, “사불염전”, “갯등”, “미역밭골” 등이 있다.

昌原市史編纂委員會, 1988, 「地名」『昌原市史』, 90~108쪽; 창원향토사연구회, 1996, 「창원의 지

와 현전하는 바다관련 지명의 집중분포처가 이곳 사화동 일대임을 고려할 때, 이 부근이 조간대권으로 여겨지며, 이보다 다소 고위면으로 후퇴한 지점에서 기수역권의 범위가 상정된다.¹⁴⁾

반계동 취락유적에서는 취락을 구성하는 제요소가 확인되었으므로, 각 요소별 입지면과 분포의 특성추출에 의해, 취락내의 공간활용방식에 대한 이해가 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반계동 취락이 입지한 지형면의 미지형적 요소는 침식에 의해 구릉이 수직상으로 파출된 능선의 평탄화한 저위평탄대지 및 완사면과 이에서 경사변환을 이룬 평지와와 접이대, 소곡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계동 취락인들의 주거생활은 구릉의 완사면부와 舌狀으로 파출된 저위평탄대지면을 이용하였다. 특히 수혈유구들은 구릉의 비탈에 의지하여 그 흐름에 맞추어 축을 설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구릉을 의지하는 주거시설의 조영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지금까지 흔히 논의되어 온 노동력 절감효과와 아울러 일조량의 확보에 보다 적극성을 둔 입지선택으로 생각된다.¹⁵⁾ 2구역의 구릉에서는 수혈주거지와 석곽묘 등의 매장시설이 동일 지형면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조사결과 주거공간의 폐기이후 매장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¹⁶⁾ 곡부는 1구역에서는 토기 등의 폐품을 투기하는 폐기장으로 이용되었고, 곡부의 퇴적이후에는 이곳에 우물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2구역에서는 논 등의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이상의 예로써 볼 때, 반계동 취락인들의 공간활용 방식은 구릉의 사면부와 저위평탄대지면 등 高燥地를 주거공간 및 묘역으로 이용하고, 수자원의 이용이 용이한 곡부를 논, 우물 등의 친수성 시설공간으로 활용하였다.¹⁷⁾

명유래』『창원의 숨결』창간호, 375~413쪽.

이들 현전하는 고지명들도 과거의 지형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14) 해역추정의 근거는 패총의 분포권, 고기록과 현전고지명 등 간접자료를 이용한 것이니만큼 당연히 오류가 있을 것이다. 다소 무리한 가설이나 상기한 간접자료들이 과거의 지형환경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검증받기 위해 이 기회를 통해 재론해 본 것이다.
- 15) 평지성입지에 비해 구릉성입지의 경우, 특히 기슭이나 비탈을 입지처로 이용할 때는 물과 함께 일조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입지인자로 부상된다. 비탈과 기슭에 입지하는 경우, 실제 창원분지내의 선사·고대 취락의 입지면이 하루중 햇빛을 가장 오래 받을 수 있는 서사면과 남사면에만 입지한 예가 이를 잘 방증해 준다.
- 16) 2구역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묘역의 선후관계는 중복상을 토대로 선주거지, 후분묘로 밝혀졌다. 또한 1, 2구역간 주거공간의 점유과정은 출토유물을 토대로 할 때, 2구역이 선점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반계동취락내에서 남쪽(2구역)이 주거공간으로 선점되고, 북쪽(1구역쪽)으로 주거역이 이동한 이후 이 구릉이 묘역화한 것이다.
- 17) 이러한 공간활용 방식은 현재의 자연취락에서 행해지는 토지이용 양상과도 그 이념은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Ⅲ. 조사내용

취락생활의 전반에 관련되는 주거 및 그 부대시설, 경작지, 묘역 등 다종다양한 시설물이 조사되었다.

1. 수혈유구¹⁸⁾

구릉의 비탈을 의지하여 그 흐름을 따라 설치되었다. 평면형은 대체로 타원형이며, 말각방형계와 부정형, 溝狀인 것도 있다. 벽면은 대부분 둔각상으로 굴착하였으며, 깊이는 그리 깊지 않은 편이다. 수혈의 깊이와 면적은 반비례하는 경향이어서 소형수혈의 경우 저장시설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바닥면은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처리된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수혈의 경우 바닥면에 대한 정지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듯 면이 거칠게 남아 있는 예도 있다. 이 경우, 평면형의 정연성과 바닥의 정면은 비례관계에 있는 듯한 경향이 있고, 수혈의 규모가 적은 경우는 바닥면의 오목기가 심한 편이다. 상기한 예에서 지적된 경향성은 수혈의 기능추정에 유효한 지표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¹⁹⁾ 내부퇴적토는 주로 암갈색 부식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적양상은 수평적이다. 유물은 거의 대부분이 파쇄된 채 바닥면에서 뜬 상태로 출토되는데, 같은 양상으로 화강암재의 할석들이 출토되는 것도 이러한 수혈이 갖는 특징적 요소의 하나이다. 수혈과 연동하는 기둥구멍이 확인되는 예도 있지만 그 예는 많지 않다.

2. 고상건물지

유적내의 거의 전면에 걸쳐 분포하나 수혈에 비해 저위면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방향은 전면이 남쪽, 남서쪽을 향해 있다. 이러한 입지경향은 지세의 반영과 일조량확보가 배려된 것으로 여겨진다. 구조는 정·측면 두칸 구조와 한칸 구조로 나뉜다. 이 가운데서 전자의 경우가 대형으로 채택되고 후자가 소형이다. 전자의 예에서는 중앙에도 기둥을 가지며, 후자는 대부분 외곽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고상건물지 끼리의 중복조영이 심한 편인데 이는 구조물의 내구성이 약한데 기인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기둥을 세우는 방식은 구덩이의 한가운데에 기

18) 대부분 주거지로 상정되는 것이나 규모, 평면형, 바닥면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인 주거지로 인정하기 곤란한 유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능의 변별이 가능해 질때까지 잠정적으로 수혈유구라 통칭한다.

19) 즉 평면형이 정연하고 바닥이 반듯하게 정면되었으며, 규모가 큰 것들은 주거지로 추정된다. 규모가 작으면서 바닥이 깊고, 오목상(凹狀)인 것은 저장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부정형, 溝狀수혈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등을 세우고 외곽은 흙을 이용, 판축상으로 보강하였다. 기둥은 변죽을 다듬지 않은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바닥은 반듯하게 다듬어 접지시의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기둥구멍의 바닥에 판상의 초석을 받친 예도 확인되었다.

3. 논

2구역에서만 확인되었다. 논이 입지한 지형면은 수직상으로 파출된 능선간의 곡부이다. 이는 입지선정시 용수의 확보를 염두에 둔 조처라 이해된다. 논은 곡을 가로 질러 조성하였고, 길이에 비해 너비가 좁은 편이다. 구획은 지세에 따라 정연하게 조성되었으며, 남쪽으로도 더 연장되고 있으나 조사전에 이미 훼손되었다. 논 바닥면의 조사에서는 인축·우축의 족적, 각종 굴지흔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경작에 부수되는 수로, 농로 등도 함께 조사되었다.

4. 우물

취락이 입지한 완사면의 저위면과 곡에 연하여 입지해 있다. 우물은 지하수를 채취하는 가장 간단하고 오래된 방법으로서 지표면의 인공굴착을 통하여 구축된다.²⁰⁾ 우물의 굴착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비(수평방향) 혹은 깊이(수직방향)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통상 帶水層의 두께가 작을 때 사용한다.²¹⁾ 이로써 볼 때, 반계동을 비롯한 고대의 우물²²⁾은 대부분 대수층의 한면을 수평적으로 열어 開溝(open ditch)로써 기능하게 해 준 소극적 穿井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³⁾

20) 즉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물의 주입에 의해 대수층에 도달한 물을 지표면의 굴착을 통해 인공적으로 揚水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尹龍男, 1996, 『水文學 -基礎와 應用-』, 淸文閣, 111쪽, 112쪽.

21) 현대 수문학에서는 대수층의 두께(지표하 6m를 기준으로 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우물을 개설하는 방법이 달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尹龍男, 1996, 『水文學 -基礎와 應用-』, 淸文閣, 136~137쪽.

22) 최근 대구시 時至洞, 旭水洞, 東川洞(漆谷지구), 慶山市 臨堂洞 등 여러 취락유적에서 삼국시대의 우물이 활발히 조사되어 자료의 비교·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金昌億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우물의 축조재료, 축조방법, 평·단면형태에 근거한 유형분류와 우물에 대한 간단한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金昌億, 1996, 「三國時代 우물 遺構에 대한 檢討(1)」 『제4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3~34쪽;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大邱時至洞 I』;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7, 『大邱 旭水洞 生活遺蹟』.

23) 이는 현대 수문학적 견지에서 소극적 천정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적 견지에서 판단할 때, 샘(泉; 湧泉水)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단계에 비해서는 천정법에 의한 물의 확보가 적극적인 방법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반계동에서 조사된 7기의 우물은 모두 돌로써 축조한 석조 우물이다. 평면형은 원형이고, 입면형은 圓筒形(1, 4호)·逆梯形(상광하협형 ; 2, 5, 6, 7호)·梯形(상협하광형 ; 3호)으로 나뉜다. 바닥면에는 모두 수질정화 시설을 행하였다. 정화처리 시설은 자갈, 판상석, 모래 등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자갈은 한두어겹을 바닥에 고르게 깔아서 마련하였고(1, 4, 7호), 판상석은 면을 맞추어 바닥에 한겹 펼쳐 깔아서 시설하였다(3, 6호). 모래는 7cm의 두께로 바닥면에 고르게 깔았다(2호). 이 가운데서 소재를 혼용한 예는 5호밖에 없다. 5호는 정화시설이 중층구조를 가진 것인데, 아래층에 판상석으로 면을 맞춰 시설하고, 그 상부에 자갈을 깔았다. 상부구조물의 존재가 확실한 예는 3호뿐이다(도면참조). 3호의 경우 우물의 바깥쪽 4모서리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시설한 것이다. 이외에 외곽에 우물을 반주하는 구를 개설하고 鋪石시설을 한 것(5호), 포석시설만을 행한 것(4호, 7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포석시설은 물을 길거나 먹거리의 손질, 세탁 등의 작업시 흙의 튀어오름을 방지하고 작업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의 규모는 윗면의 너비가 35~134cm대에 이르지만 대개는 60cm내외로서 소형이다. 깊이는 76~182cm대에 이르며, 주로 120cm대이다. 이 정도의 깊이라면 우물이 그리 깊지 않아도 물의 확보가 충분하였음을 방증해 준다. 이처럼 물의 확보가 용이하였던 배경은 입지를 통해 이해된다. 즉, 우물이 입지한 지형면이 구릉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경사변환점인 관계로 지하수의 포화대인 대수층까지의 깊이가 얕은데에 기인하는 것이다.²⁴⁾

5. 배수구

취락내에서 저위고도면인 1구역의 남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에 이 부근이 고조지형으로서의 조건이 미비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우기에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불편해소책으로 시설된 것이 배수구와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고상건물지의 존재일 것이다.

배수구는 대체로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등고선 방향에 직교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유적의 주변이 이미 훼손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관계로 배수구의 入水口가 결실된 것이 대부분이다. 出水口도 유실된 것이 많은데, 남겨진 예(6, 8, 13호)를 통해서 볼 때, 수혈 및 고상건물지가 확인된 최저위면에서 끝나거나 보다 더 아래쪽으로 연장되는 것들도 있다. 잔존상태로 미루어 보아 더 아래쪽으로 연장되더라도 그 길이는 얼마를 더하지 못할 듯하다. 방향은 등고선상에 직교하는 것이 대세이며, 여기서 남서쪽(7, 8, 11, 12, 13호) 혹은 북서쪽(4, 6, 9,

24) 洪慶姬, 1994, 『村落地理學』, 法文社, 137쪽; 吳洪哲, 1993, 『聚落地理學』, 教學研究社, 286~289쪽, 304~307쪽; 尹龍男, 1996, 『水文學-基礎와 應用-』, 淸文閣, 104~111쪽.

10호)으로 출수구가 뺀 것과 등고선의 흐름을 따라 설정된 것(5호)으로 나눌 수 있다. 평면형은 직선형(1, 2, 3, 6, 7호)과 “乙”자형(4, 5, 8, 9, 11, 12, 13, 2구역 1호)으로 나뉘며, 직선형의 것들이 단위규모가 다소 크다. 직선형의 것 가운데는 대·소형의 구가 병행하며 모자관계를 이룬 것(6,7호)이 있다. 乙자형의 것에는 가운데에 集水시설로 여겨지는 것을 가진 것(8,13호)과 양안을 석축한 예(2구역)가 있다. 단면형은 “U”자상이다.

6. 폐기장

1구역의 가운데를 남북으로 분할하며, 관류한 소곡부상에 위치한다. 이 곡부는 유적이 형성될 당시에도 이미 상당부분이 매몰완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에는 약한 매몰곡으로 잔존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이 매몰곡은 반계동취락을 남·북으로 분할한 자연적 경계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이는 이 곡부를 중심으로한 양측의 유구배치상이 곡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현상으로 방증된다. 또한 이 곡이 주거역의 자연적 경계로서 유효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근거로써 다음의 예를 지적할 수 있다.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고위면에서 저위면을 흐르던 곡이 주거역의 서쪽 외곽에서 북서쪽으로 휘감아 돌면서 주거역의 확장을 저지하고 있는 현상이 그것이다.²⁵⁾ 즉 이 곡부로 한정된 내부가 주거역으로 설정되고, 곡부는 생활폐품을 투기하는 폐기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여겨진다.²⁶⁾

반계동취락에서의 폐기장은 매몰곡의 전면을 이용하였다. 폐기행위는 1구역 북쪽 거주역의 남서쪽과 남동쪽 모서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폐기된 내용물은 토·도기류²⁷⁾ 위주이며 간간히 섞여 있는 철기와 주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돌도끼 등의 석기 등이다. 폐기행위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듯 퇴적양상에서 심한 중복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대부분 한두겹의 중첩상을 보이며, 층위상으로는 단일층내에 퇴적되어 있다.

7. 조개더미

25) 반계동취락의 예처럼 곡에 의해 취락이 분할된 경우, 이러한 현상을 상이한 집단의 공존이나 대치로 이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산록입지의 취락의 예에서 보이듯이 마을의 가운데로 개울이 흐르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곡을 거주역의 자연경계로 설정한 것은 주거역의 집합체로 상정되는 거주역의 설정시 이러한 자연지형적 요소가 거주역의 범위를 구획하는 기준으로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26) 이것이 폐기장으로서 혹은 의례적·신앙적 목적공간으로 기능했는지의 여부는 보다 더 신중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단계로서의 관찰결과는 폐품의 단순투기로 이루어진 폐기장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27) 종래 연질토기, 경질토기·도질토기라 칭하던 것을 전자는 土器, 후자는 陶器라 칭하였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취락의 외곽에 해당되는 경사면의 고위면에서 3개소의 소규모 조개더미가 연결한 상태로 분포해 있다. 이외에 취락의 북서쪽에서도 1개소의 소규모 조개더미가 수습조사된 바 있으나 조사당시에는 이미 주변일대가 절토된 상태였다. 이번에 조사된 3기의 조개더미는 수혈내에 폐각이 투기된 것으로서 퇴적층의 두께와 양은 얼마되지 않는다. 구성내용은 굴을 주체로 하며, 이외에 반지락, 백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폐류에 대한 동정이 완료되어야 할 것 같다. 폐각이 퇴적된 수혈이 폐기를 목적으로 굴착되었는지, 기능이 상실된 수혈을 폐기장으로 이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8. 고분군

舌狀으로 파출된 능선상의 저위평탄대지면에 입지해 있다. 선행한 수혈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된 묘역으로써 그 중심지는 북동쪽으로 약 100m이상 떨어진 구릉상의 중복에 위치한다. 조사당시 능선의 고위면과 중심축의 북쪽으로 절반 가량이 유실된 상태였다. 잔존한 묘역의 중심축상으로는 乙자상의 배수구가 개설되어 있다. 溝는 고분의 배치관계와 층위를 고려해 볼 때, 고분조성기에 함께 개설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석곽묘들은 溝를 침범하지 않고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 溝는 우기시 묘역상으로 흐르는 지표수의 배수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군내에는 석곽묘, 옹관묘, 석실분 등 3종 35기가 분포한다. 주종을 이루는 것은 석곽묘로서 26기이다. 따라서 석곽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묘광의 축은 등고선의 흐름을 따라 설정되었으므로 방위는 고려하지 않고, 방향성을 염두에 둔 설정으로 이해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혈유구의 축설정 방식과 동일한 동기를 가진 것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석곽묘 단계에서의 방향성은 석실분 단계로 접어들면서 능선의 흐름에 대해 직교상으로 변하는데, 그 배경은 피장자의 안치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⁸⁾ 석곽의 축조는 묘광내에 화강암재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벽석은 장벽의 경우 대체로 3단으로 축조하였다. 아랫단은 판상석을 사용하여 세로로 세워 쌓고, 그 윗단에 2단으로 가로 누어 쌓기를 행하였다. 단벽은 대개 1매의 판상석으로 가로 세워 쌓기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14호를 제외한 모든 석곽묘에서 개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후대의 경작 등에 의한 유실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석곽의 내부에 퇴적된 토층조사에 근거할 때, 원래부터 돌로써 뚜껑을 삼지는 않은 듯하다. 즉 퇴적토의 층상구조가 내부가 비어 있었던 상태를 반영하는 함몰에 의한 U자상을 보이지

28) 수혈식의 경우 시신의 매납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드리워지기 때문에 방향성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석실분은 추가장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입구쪽의 경사가 수평적(안정적)으로 정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묘도 개설이 유리한 직교상으로 축이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않고, 수평적인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근거할 때, 석곽의 축조시 피장자와 부장품을 안치하고 석곽의 내부를 흙으로 충전한 듯하다. 석곽묘와 배수구의 배치관계를 통해 볼 때, 석곽묘의 상부에 봉분은 마련하지 않은 듯하다. 바닥시설을 행한 것은 3호와 12호의 2기 뿐이며, 이들은 석곽묘 중에서는 가장 늦은 단계에 해당된다. 부장품의 매납은 양단부장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때 적갈색 계통의 토기는 동단벽쪽에 매납하고, 회청색의 도기는 서단벽쪽에만 부장하였으며, 주부장공간은 서단벽쪽에 두어졌다. 출토유물 중 토·도기류는 소위 “高靈系” 일색이어서 주목된다. 유물의 기종구성은 유개고배, 개배, 단경호, 장경호, 유대장경호, 파배, 소형기대 등의 도기류와 발, 옹, 대형개 등의 토기류이다. 이 중 보편적인 조합관계를 이루는 기종은 유개고배, 단경호, 장경호, 바리이며, 이외에 유대장경호, 파배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출토유물의 대부분은 토·도기류이며, 금제이식과 철기 등의 금속유물이 약간 출토되었을 뿐이다. 이 가운데서 철기는 22호 석곽묘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되었는데, 부식이 심한 편이다. X-ray 사진 판독결과 망치, 집게, 소형 모루 등 鍛冶具 일습 등으로 확인되었다. 피장자의 두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귀걸이와 적갈색 토기인 바리 및 방추차를 들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피장자의 두향은 동쪽으로 한정된다.

1) 제9호 돌덧널무덤

(1) 구조 (도 2, 사진 15·16)

잔존한 고분군의 중간부위에 위치한다. 이 유구의 북서쪽으로는 삼국시대의 溝가 개설되어 있다.

묘광은 등고선의 흐름에 따라 장방형으로 굴광하였다. 돌덧널의 짜임새는 다른 유구와 유사하다. 화강암재의 활석을 사용하여 아랫단은 주로 세로 세워 쌓고, 윗단은 세로 세워 쌓기와 가로 뉘어 쌓기를 병행하였다. 윗단의 축조에 있어 남장벽에 비해 북장벽측의 석재가 더 장대한 편이다. 장·단벽의 결구는 단벽이 장벽을 안고 있는 형태이다. 바닥에는 따로 시설을 행하지 않았고 개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양단부장을 기본으로 하였다. 동단벽쪽으로는 3점의 적갈색 토기를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는데, 아가리가 동단벽측을 향해 쓰러진 채 출토되었다. 이 중 북동쪽 모서리에서 출토된 바리는 깨어진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완전한 개체로 복원되지도 않았다. 이 유물이 유구내에 매납된 경위는 돌덧널의 축조전에 행해진 破器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서단벽쪽은 유물무리의 주부장공간으로 설정, 회청색 도기만을 매납하였다. 유물의 배치방식은 유구의 안쪽으로 보다 대형인 항아리류를 “ㄷ”자상으로 두고 “ㄷ”자 공간의 안쪽에 소형 기물인 굽다리접시를 배치하고 있다. 양단벽측의 유물부장 공간의 간격은 불과 1m를 약간 상회하고 있을 뿐이며, 동단벽측의 적갈색 토기들은 바닥보다 좀 더 높게 출토되었으므로 출토 당시의 level이 매납시의 level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않는다. 즉, 매장시에는 주검이나 널의 위쪽에 놓여졌던 것이 유기질의 부식에 따라 현 위치에 놓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묘광 길이 387cm, 돌덧널 길이 285cm, 너비 62cm, 장단비 4.59 : 1

(2) 출토유물 (도 2, 사진 16)

유물의 부장은 양단벽측에 모아 매납한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동단벽측으로는 3점의 적갈색 토기를 두고 서단벽측을 주부장공간으로 삼아 회청색 경질토기 11점을 집중 부장하였다.

가. 적갈색 土器

동단벽측에서 3점이 출토되었다. 3점 모두 아가리가 동단벽을 향해 쓰러진 채 출토되었는데 바닥에서 뜬 상태이다. 평면배치에 있어서 바리는 북동쪽 모서리에서 출토 되었으며, 서쪽 유물무리에서 150cm범위 이내에 놓여져 있다. ②,③번 토기는 평면배치상의 서쪽 유물무리와의 간격, 유물의 레벨이 바닥보다 높게 출토된 점 등은 부장시 주검이나 널의 윗쪽에 두어졌던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① 바리(도 3-2, 사진 17-3)

동단벽측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당시 아가리는 동단벽을 향해 있었고, 심하게 깨어진 상태였다.

바탕흙은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여 띠감아올리기식으로 성형하였다. 성형후 몸통의 안밖으로는 타날조정을 행하였고, 바닥은 따로 만들어 붙였다. 바닥의 접촉후 몸통의 안쪽으로는 손누름조정과 회전 물손질조정을 행하였고, 바깥에는 면각기와 회전 물손질로 다듬었다. 아가리는 물레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짧게 외반시켰다. 입술끝은 나팔꽃 모양이다. 몸통의 최대경은 중상위에 있으며 아래·위쪽으로는 체감률이 비슷하여 북모양을 이루고 있다. 색조는 적갈색을 띠나 slip이 벗겨져 회황색의 속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많다. 또한 몸통의 한 측면에는 탄소의 흡착으로 검게 그을린 부분이 있다.

높이 15.3cm, 아가리 지름 14.5cm, 몸통 지름 14.5cm, 바닥지름 9.1cm

② 독 (도 3-3, 사진 17-2)

동단벽에서 35cm가량 떨어져 아가리가 동단벽을 향해 쓰러진 채 출토되었다. 출토위치, 레벨 등으로 보아 주검의 위, 혹은 널의 위에 매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탕흙은 고운 모래가 섞인 점토를 사용하여 띠감아올리기식으로 성형하였다. 몸통의 안쪽에는 점토띠를 감아 올린 자국과 손누름으로 접촉한 자국이 관찰된다. 성형후 몸통의 안밖으로는 타날조정을 행하였다. 몸통과 바닥을 일체식으로 뽑아 올린 듯 면이 고르고, 덧 붙인 자국이 없다. 아가리는 물레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짧게 뽑아 내었다. 아가리는 “C”자상으로 짧게 바라졌고 입술은 나팔꽃 모양이다. 몸통은 최대경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어 자루 모양을 띠고 있다. 바닥은 모죽인 납작밑이다.

높이 24.4cm, 아가리 지름 19.5cm, 몸통지름 21.7cm

③ 항아리 (도 3-1, 사진 17-1)

동단벽에서 62cm 떨어진 지점에서 아가리가 동쪽을 향해 쓰러진 채 출토되었다. 출토위치,

레벨 등으로 보아 ②번과 같은 매납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바탕흙은 사람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띠감아올리기식과 손누름자국이 관찰된다. 성형후 몸통의 안쪽으로는 무문양의 박자를 받치고 몸통 바깥으로는 左上右下의 사선향 타날을 행하였다. 바닥과 몸통은 일체식으로 성형한 듯하다. 타날후 몸통의 바깥으로 회전물손질 조정을 행하여 타날흔을 지웠다. 아가리는 물레로써 짧게 뽑아 내었다. 아가리는 “C”자상으로 짧게 바라졌다. 입술끝은 나팔꽃 모양이다. 몸통 최대경은 중간부위에 있으나 기형은 아래로 처진 느낌이고 바닥은 모죽인 납작밑이다. 색조는 황갈색을 띠며 몸통의 한쪽에는 탄소의 흡착으로 검게 그을린 부분이 있다.

높이 26.1cm, 아가리 지름 18.4cm, 몸통 지름 24.7cm

나. 회청색 陶器

서쪽 유물무리에서 8점이 집중 출토되었다. 유물배치의 특징은 항아리류의 대형 기물을 전방과 양장벽측에 “ㄷ”자상으로 두고, 그 안쪽에 소형 기물인 굽다리 접시를 둔 점이다. 굽다리 접시의 경우 서로 포개어 둘 정도로 공간을 활용한 점이 느껴지나 가운데에서는 유물이 배치되지 않은 점도 특이하다.

④ 손잡이 달린 굽다리 항아리 (도 5-1, 사진 19-8)

서쪽 유물무리의 앞줄 남장벽측에서 반듯하게 세워진 채 출토되었다. 출토시 뚜껑은 씌워져 있지 않았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를 사용하여 물레로써 성형하였다. 몸통은 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하여 역삼각 구도에 가깝다. 몸통의 최대경부를 중심으로하여 3조씩의 횡침선으로 3구의 문양대를 조성하였다. 각 문양대에는 2目的 새기개로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몸통의 양측에는 문양대에 맞춰 손잡이를 맞붙였다. 손잡이는 납작한 점토띠를 귀모양으로 붙인 것인데, 몸통에 비해 그 크기가 극히 작은 편이어서 간략화의 경향이 느껴진다. 아가리는 곧고, 짧게 뽑아 올렸다. 굽다리는 따로 만들어 붙였다. 굽다리는 “八”자상이다. 굽다리에는 두곳에 3조씩의 횡침선을 등간격으로 부착후 상하일치식의 삼각형 굽구멍을 도려내어 개설하였다. 굽구멍의 수는 4개이다. 굽다리는 아래로 이르면서 다소 급하게 펼쳐진 느낌이며, 밑테는 나팔꽃 모양이다. 굽다리의 안쪽 바닥에는 지푸라기가 흡착된 자국이 관찰된다. 몸통과 굽다리상에는 곳곳에 자연유가 흘러 내려 있으며,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색조는 흑색에 가까운 암회청색이다.

높이 23.8cm, 아가리 지름 12.2cm, 몸통 지름 22.1cm, 굽다리 바닥 지름 16.3cm

⑤ 굽다리 달린 긴 목 항아리 (도 3-4, 사진 18-4)

서쪽 유물무리의 앞줄 가운데서 아가리가 북동쪽을 향해 쓰러진 채 출토되었다.

바탕흙은 점토를 사용하여 물레로써 성형하였다. 몸통은 최대경부가 중상위에 위치하며, 측면상이 약간 모가 잡혀 있어 매끄럽지 못한 역오각형구도이다. 목과 몸통의 경계부에는 1조의 돌을 띠로 경계를 구획하였다. 목은 가운데가 오목한 弧狀이며, 각 1조의 돌을띠에 의해 3구

의 문양대를 등분할 하였다. 문양대에는 8目的 다치구로 밀집과상문을 새겼다. 뚜껑받이도 직선기미로 약간 바라졌고 뚜껑받이턱은 뚜렷하게 도드라졌다. 굽다리는 따로 만들어 부착하였다. 굽다리는 짧은 나팔상이며 중간에는 3조의 횡침선을 돌렸다. 굽구멍은 이 횡침선을 경계로하여 그 상방에 개설하였다. 굽구멍은 삼각형으로 도려 내어 개설하였으며, 그 수는 4개이다. 밑테는 접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반듯하게 마무리하였다. 굽다리의 한 측면에서는 밑테와 굽구멍의 사이가 터져 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색조는 암회청색이며 부분적으로는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높이 27.5cm, 아가리 지름 12.2cm, 몸통 지름 19cm, 굽다리 바닥 지름 16.3cm

⑥ 긴 목 항아리 (도 4-2, 사진18-6)

서쪽 유물무리의 앞줄 북쪽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출토되었다.

바탕흙은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여 물레로써 성형하였다. 몸통은 최대경부가 중간부위에 형성되어 있으나 바닥이 납작하여 扁球形을 이룬다. 몸통의 안밖으로는 물레성형에 의한 회전 물손질 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다. 목과 몸통의 경계는 불분명한 편이어서 몸통의 측선은 “S”자상이다. 목은 아가리에 이르러 크게 바라졌다. 입술끝은 수평상으로 반듯하게 마무리하였다. 바닥은 따로 만들어 붙였다. 몸통의 안쪽에는 바닥의 접착시 가장자리를 따라 손으로 눌러 돌린 자국이 있다. 몸통 바깥에는 바닥의 접착흔이 뚜렷하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나 연록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높이 17.4cm, 아가리 지름 13.9cm, 몸통 지름 15.9cm, 바닥 지름 약 9cm내외

⑦ 긴 목 항아리 (도 4-1, 사진 18-5)

서쪽 유물무리의 둘째줄 남쪽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출토되었다.

바탕흙은 점토를 사용하여 물레로써 성형하였다. 몸통최대경은 중상위에 위치하며 입면상은 육각형을 띤다. 목과 몸통의 경계에는 돌을띠로 구획하였고, 목은 가운데가 오목한 弧狀을 띤다. 목에는 각 1조의 돌을띠에 의해 3구의 문양대를 등분할 하였다. 문양대에는 8目的 다치구에 의한 밀집과상문을 새겼다. 뚜껑받이는 직선기미로 약하게 내경하였고, 뚜껑받이 턱은 뚜렷하게 도드라졌다. 바닥은 따로 만들어 붙인 것으로 여겨진다. 몸통의 안밖으로 행해진 정면 기법이 우수하여 접착흔이 잘 남아 있지 않다. 바닥은 모죽인 납작밀이며 지푸라기 자국이 눌러 붙어 있다. 색조는 암회청색을 띠며, 몸통의 상부에는 소성시 흘러 내린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높이 20.9cm, 아가리 지름 11.3cm, 몸통 지름 18.2cm

⑧, ⑨, ⑫, ⑬, ⑭ 뚜껑 굽다리 접시 (도 5-2~6, 사진 20)

서쪽 유물무리의 가운데서 바닥에 놓이거나, 항아리 사이에 끼이거나, 굽다리접시끼리 포개어져서 출토되었다.

출토위치는 다섯 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조합은 4점의 뚜껑 굽다리접시이다. 이 중 ⑧번 굽다리접시와 ⑪번 뚜껑이 서로 이격된 채 출토되었으나 그 배경은 알 수 없다.

바탕흙은 사립이 섞인 점토로써 물레를 사용하여 성형하였다. 뚜껑은 4점 모두 동일 형식의 것으로서 중절모형 꼭지를 가진다. 뚜껑의 상면은 납작한 편이며 드림턱은 간략화되어 짧게 돌출되었다. 드림은 밖으로 약하게 바라졌다. 굽다리접시는 각 2점씩 2류형으로 구분되는데, 크게 굽다리와 굽구멍, 돌을띠의 유무, 밑테의 형태에 의해 2류로 구분 가능하다. 1류는 ⑧, ⑫번 굽다리접시로서 나팔형의 굽다리, 윗쪽으로 바짝 올려 뚫은 원형 굽구멍, 접지면과 수평상으로 마무리된 밑테 등이 특징이다. 2류는 “八”자형의 굽다리, 장방형으로 도려 낸 굽구멍, 굽구멍의 경계에 돌린 1조의 돌을띠, 밑테의 경우 ⑭번은 나팔꽃 모양, ⑨번은 수평상에 가깝게 마무리한 특징을 가진다. 굽다리 접시의 경우 공통된 특징은 내경한 뚜껑받이, 짧게 도드라진 뚜껑받이 턱, 얇은 접시 등이다.

〈표 1〉 제원표

번호	뚜껑(단위 : cm)		굽다리접시(단위 : cm)		
	높이	지름	높이	아가리지름	바닥지름
8			7	11.4	9.9
9	4.8	14.1	7	12.1	10.4
12	5	14.1	8	11.9	9.7
13	4.6	14.3			
14	4.5	12.9	9	12.3	10.2

⑩ 손잡이 달린 굽다리 완 (도 4-3, 사진 19-7)

서쪽 유물무리의 둘째줄 북장벽측에서 반듯하게 세워진 채 출토되었다.

바탕흙은 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를 사용하여 물레로써 성형하였다. 몸통의 최대경은 중간에서 상위에까지 이르며, 최대경부에는 2조씩의 횡침선에 의해 등분할 된 3구의 문양대를 조성하였다. 문양대에서 위의 두곳에는 1目, 아래쪽에는 4目的 다치구로 파상문을 새겼다. 또한 이 부위의 양측면에는 귀모양의 손잡이를 맞붙였다. 손잡이는 납작한 점토띠를 빗어 몸통에 점토를 덧발라 붙인 것이다. 뚜껑받이는 내경하였고, 뚜껑받이턱은 수평상이다. 굽다리는 따로 만들어 붙였다. 굽다리는 나팔 모양이며, 가운데는 3조의 횡침선을 구획하여 양분하였다. 밑테는 나팔꽃 모양이다. 굽구멍은 굽다리를 붙인 뒤 개설하였다. 굽구멍은 사각형으로 도려 낸 것으로 그 수는 5개이다. 굽다리의 바닥 안쪽에는 지푸라기가 눌러 붙어 있다. 색조는 회흑색을 띠며 곳곳에 자연유가 흘러 내려 있다.

높이 16.9cm, 아가리 지름 12.9cm, 몸통 지름 15.9cm, 굽다리 바닥 지름 12.3cm

⑪ 손잡이 달린 굽다리 항아리 (도 4-4, 사진 19-9)

서쪽 유물무리의 셋째줄 가운데서 반듯하게 세워진 채 출토되었다. 몸통은 최대경부가 중상위에 있으나 전체적인 느낌은 둥글다. 몸통의 최대경부에는 각 2조의 횡침선으로 등분할 된 4구의 문양대가 구획되어 있다. 문양대에는 각 3目的 다치구에 의한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또한 문양대에 걸쳐지는 몸통의 양쪽에는 납작한 점토띠로 만든 귀모양의 손잡이를 붙였다. 손잡이는 몸통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한 편이어서 간략화된 느낌이다. 아가리는 짧고 곧게 뽑아 내었다. 굽다리는 따로 만들어 붙였다. 굽다리는 넓게 퍼진 나팔 모양이며, 중간부 위에는 약한 횡침선을 한 줄 들렀다. 밑테는 접지면과 수평상으로 반듯하게 마무리하였다. 굽구멍은 굽다리 부착후 몸통에 바짝 붙여 개설하였다. 굽구멍은 삼각형으로 도려내어 개설하였으며, 그 수는 4개이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상면에는 유리질막이 탈락된 곳이 많다.

높이 18.6cm, 아가리 지름 10.9cm, 몸통 지름 18.8cm, 굽다리 바닥 지름 15.6cm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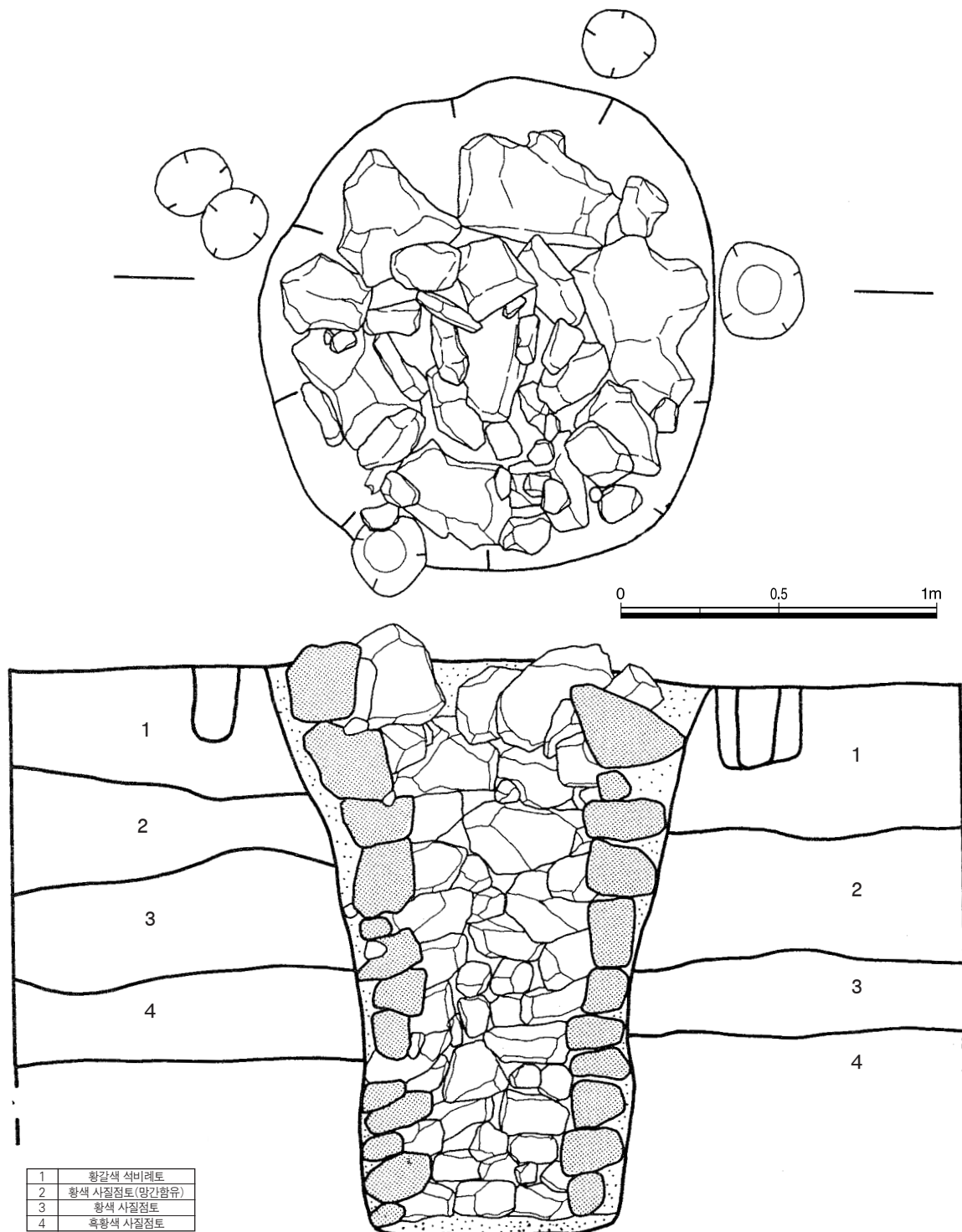
이상으로 반계동취락의 조사성과를 삼국시대후기 취락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성과를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우선적으로 최근 자료의 급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취락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게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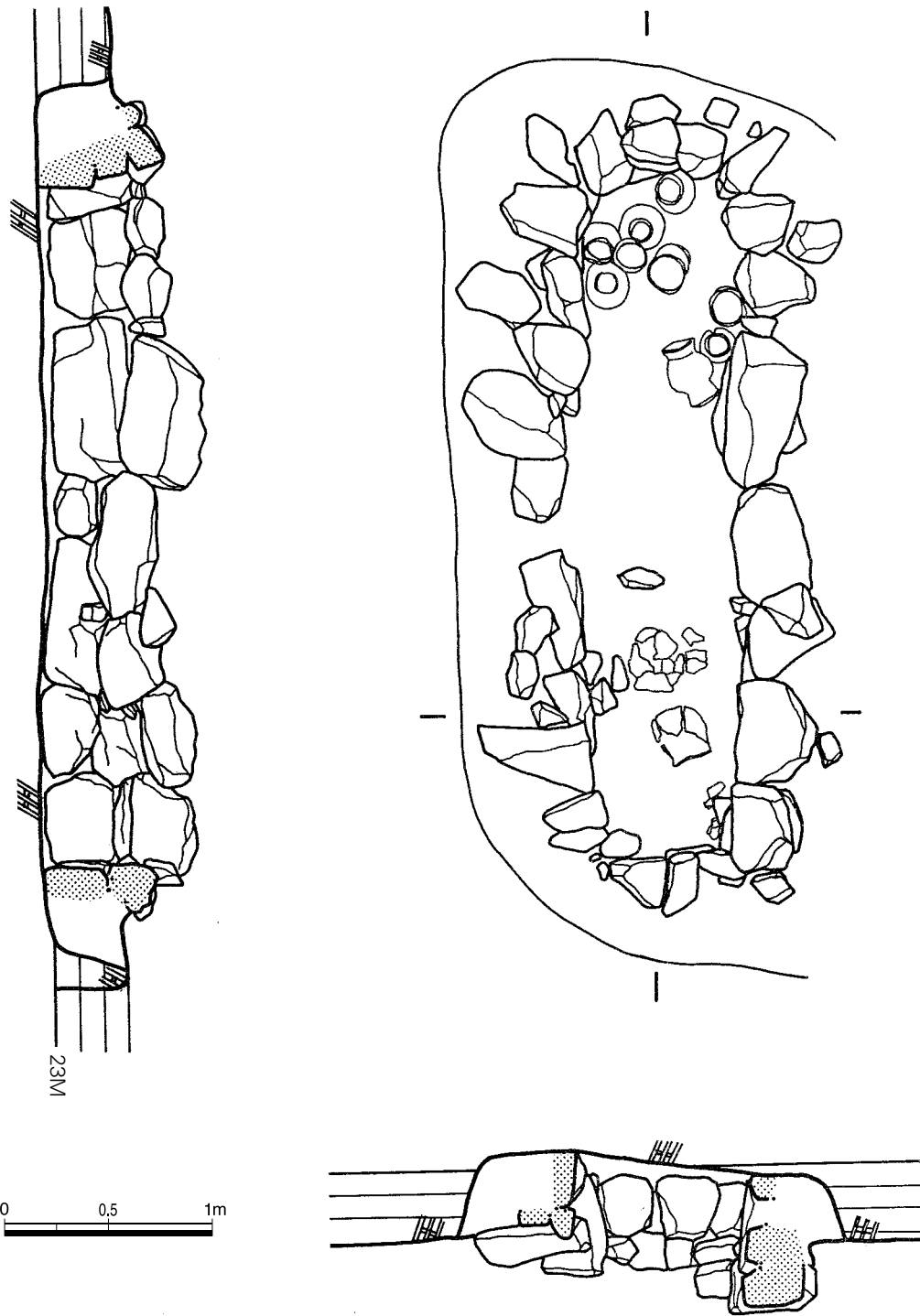
2. 또한 이를 통해 聚落內의 공간분할방식과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반계동취락인들은 경사가 완만한 구릉의 기슭과 저위평탄대지부를 住居域으로 설정·이용하였다. 주거역내에서도 저위고도면은 고상건물지를 배치하고, 기슭으로는 수혈주거지를 배치하였다. 수혈과 고상건물지의 축은 능선의 흐름을 따라 설정되었고, 방향은 전면(南, 南西)을 향해 있다. 이는 구릉입지에서 중요한 입지요인인 일조량의 확보를 고려한 조치이다. 주거역을 중심으로 뒤쪽(北東)과 옆(北西)은 조개더미로 남아 있는 쓰레기장으로 이용하였고, 1구역의 주거역내 중앙의 매물곡도 폐기장으로 이용하였다. 남동쪽의 비탈은 死者의 공간인 墓域으로 설정되었고, 2구역 구릉의 경우 주거지의 폐기이후 그 공간을 묘역으로 전용하였다. 구릉간의 谷部는 논을 조성하여 耕作地로 활용하였다. 이는 용수공급을 염두에 둔 입지선정의 결과라 여겨진다.

3. 취락내에서 출토된 유물중 토·도기류는 소위 “高靈系”라 설정된 형식의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석곽묘 출토품은 고령계 일색이어서 주목된다. 1986년도에 수습된 마산자산동 석곽묘 출토품 중에 고령계 도기가 출토된 적이 있지만 반계동유적에서와 같이 고령계 일색으로 구성된 예는 아직 주변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 의미부여에 고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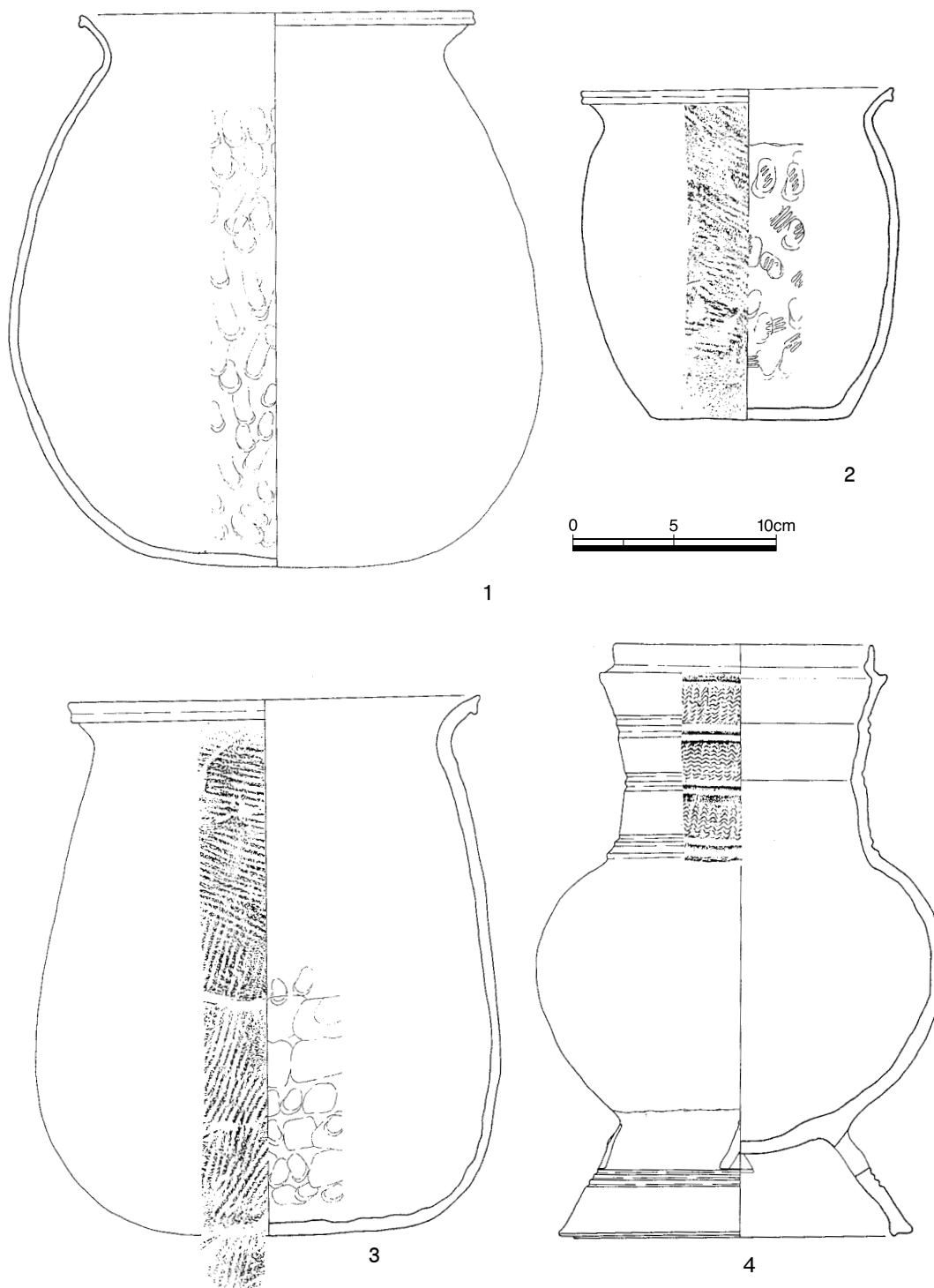
4. 시기는 기존의 편년안에 근거할 때, 6세기 중엽의 전반경에서 6세기 후엽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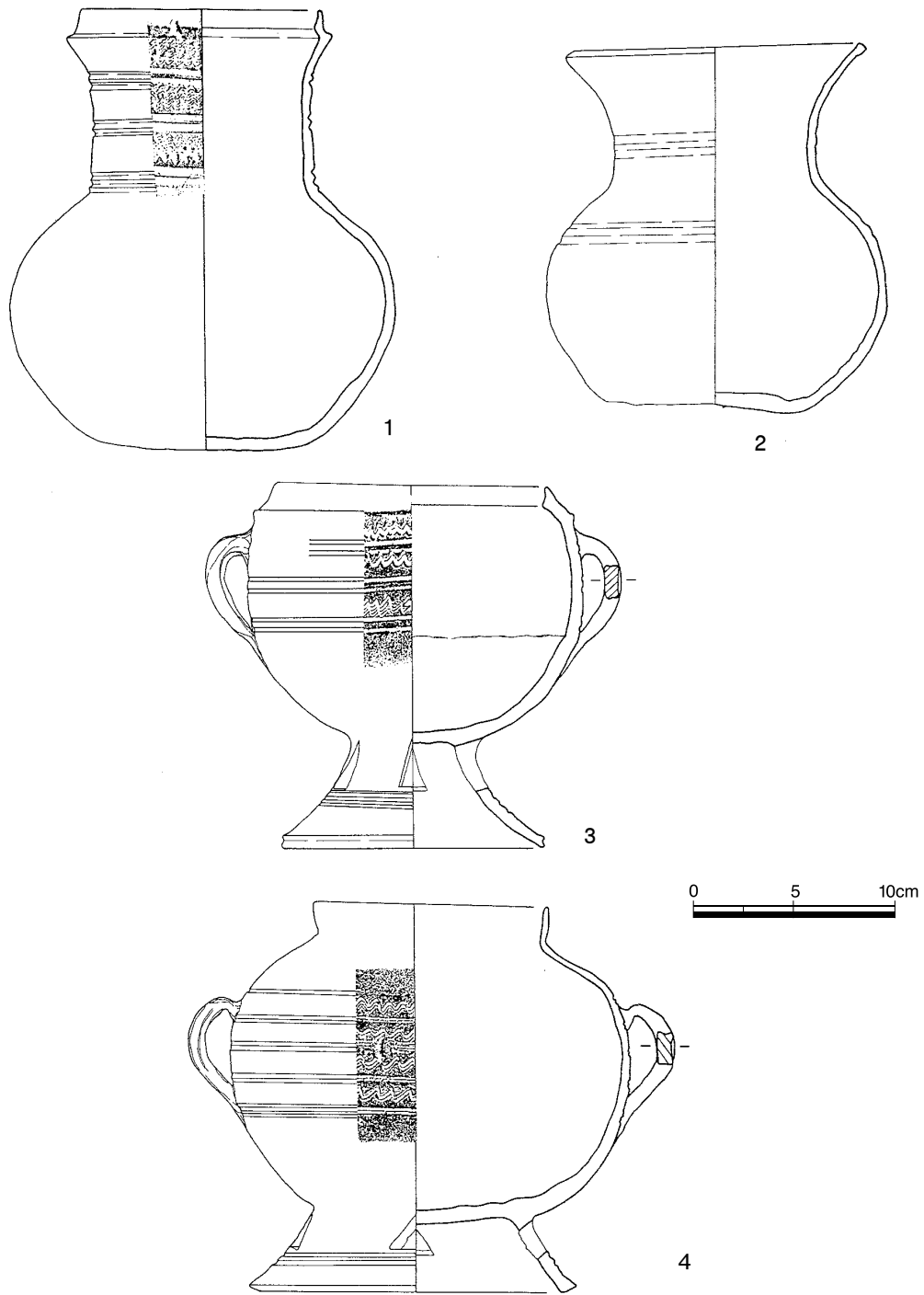
〈도 1〉 2호 우물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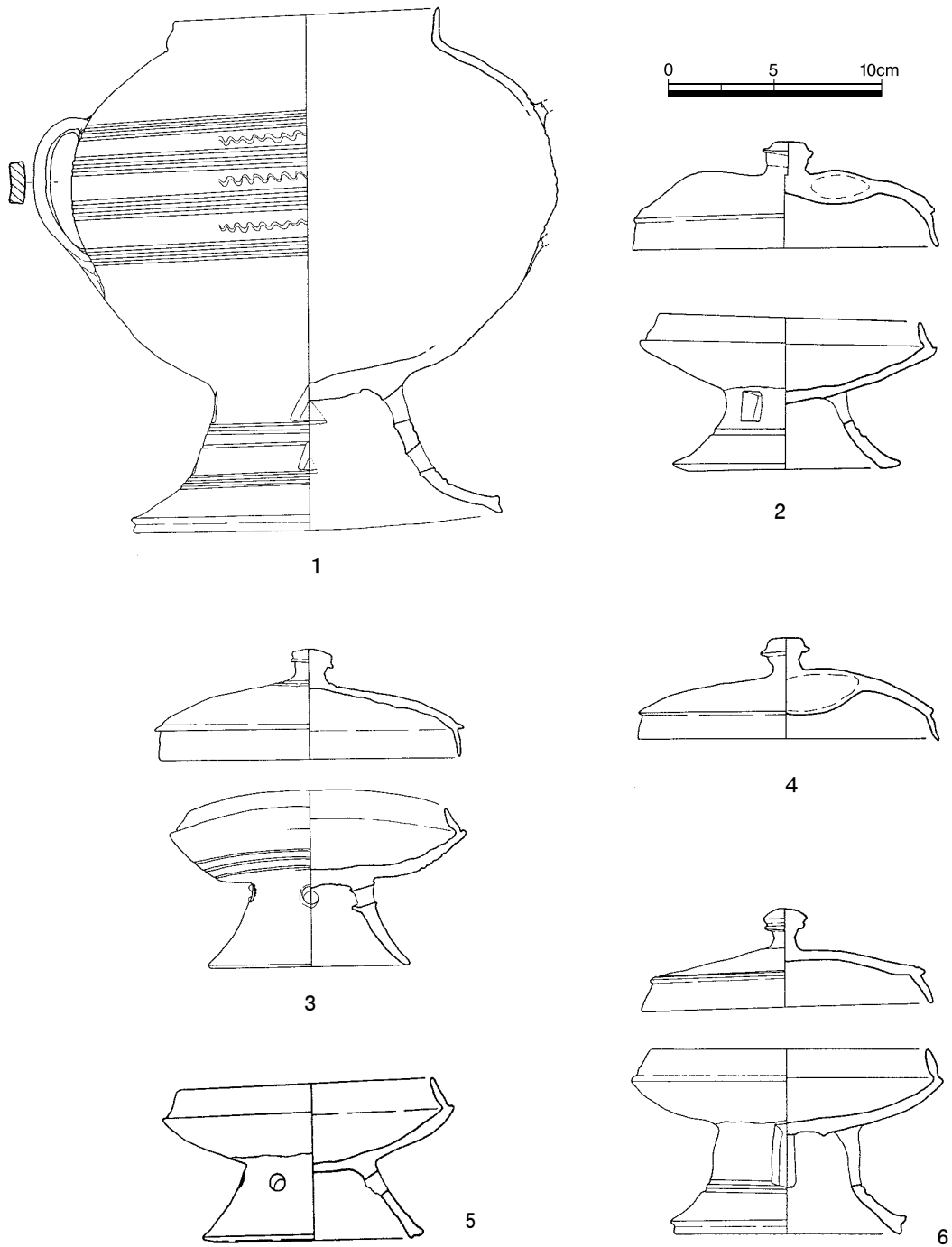
〈도 2〉 23호 석곽묘 평·단면도



〈도 3〉 23호 석곽묘 출토유물(1~4)



〈도 4〉 23호 석각묘 출토유물(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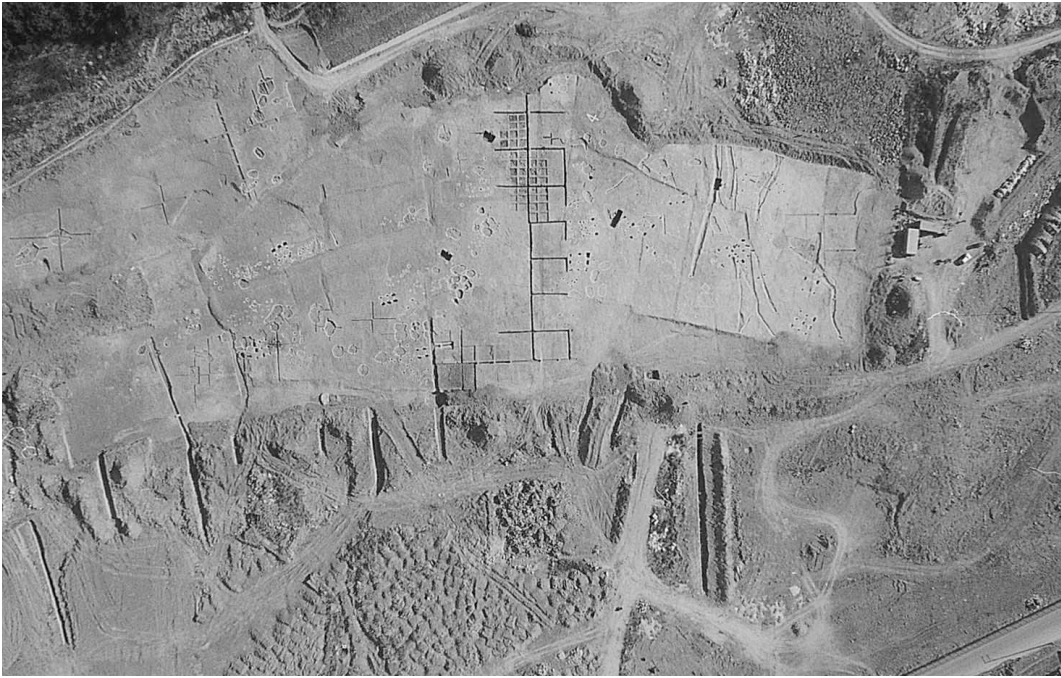
〈도 5〉 23호 석곽묘 출토유물(1~6)



〈사진 1〉 유적원경(북에서)



〈사진 2〉 유적전경(남서에서)



〈사진 3〉 1구역 주거역 전경



〈사진 4〉 1구역 수혈유구 배치상



〈사진 5〉 1구역 배수구와 고상건물지 배치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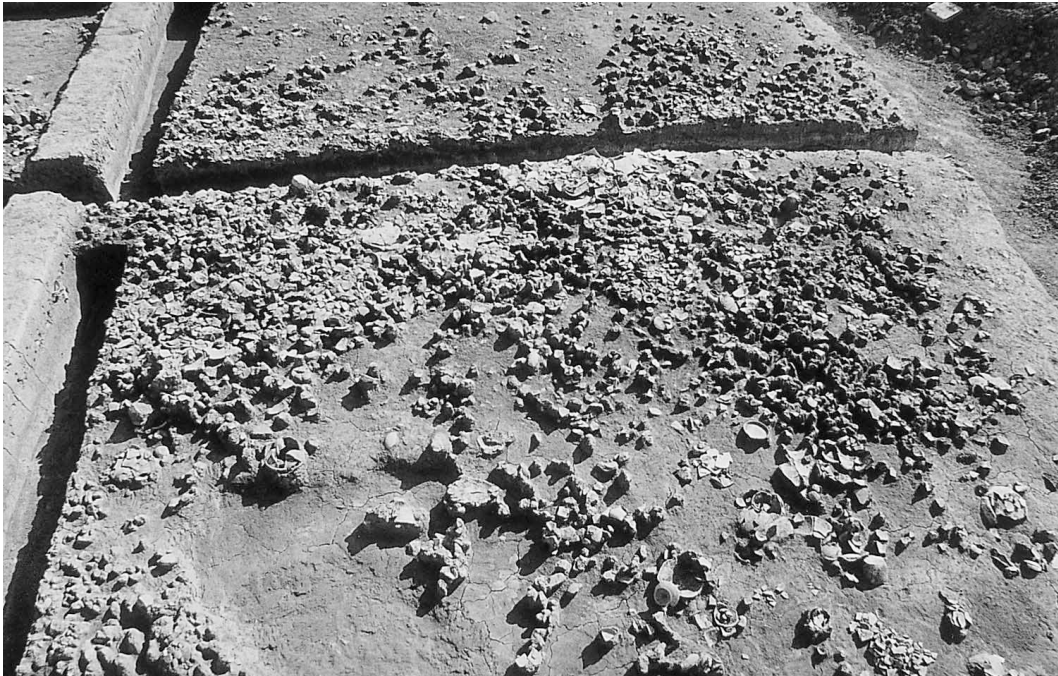
〈사진 6〉 고상건물지 평면상태



〈사진 7〉 경작지 전경



〈사진 8〉 경작지내 수로·농로



〈사진 9〉 매물곡을 이용한 폐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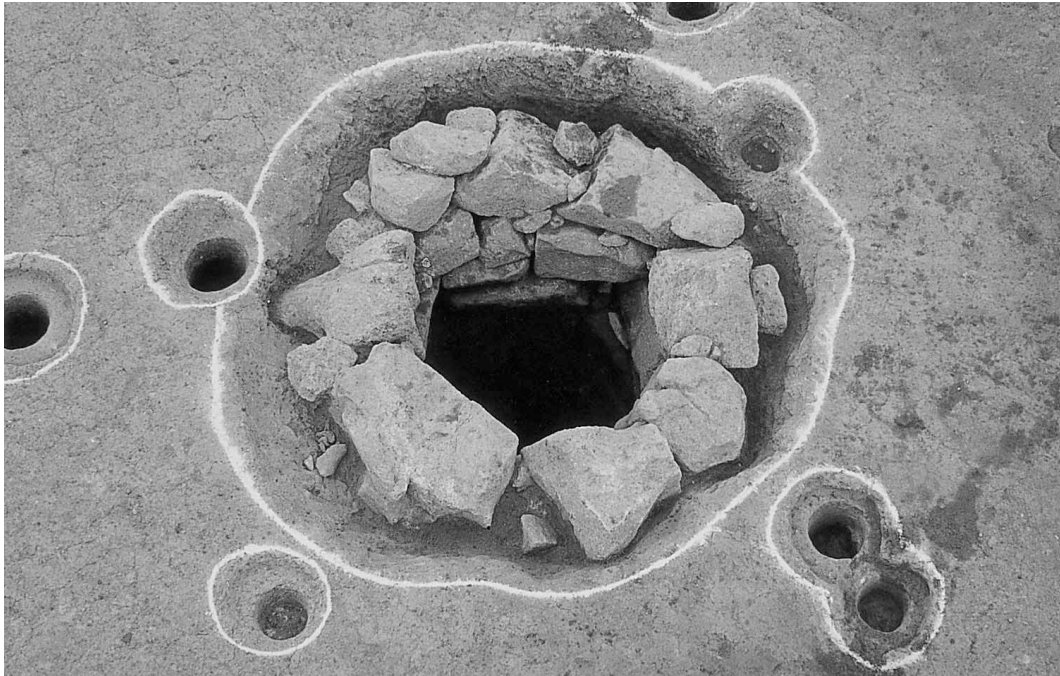
〈사진 10〉 폐기상태 세부모습



〈사진 11〉 고분군 배치상태



〈사진 12〉 경작지의 토층상태



〈사진 13〉 2호 우물의 평면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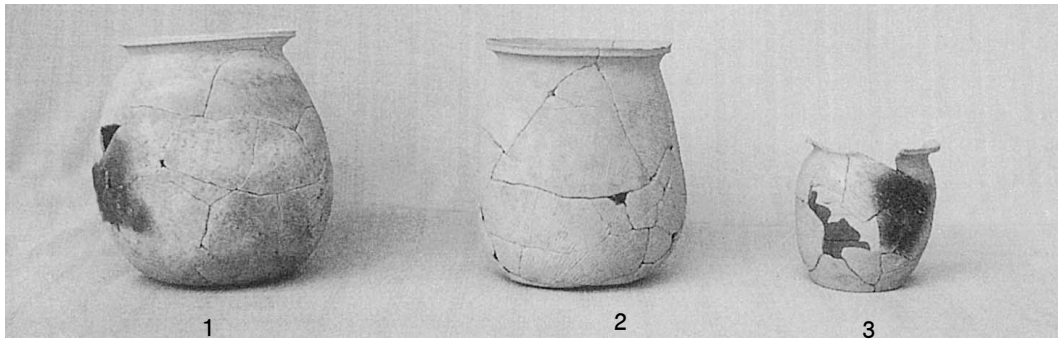
〈사진 14〉 입면상과 축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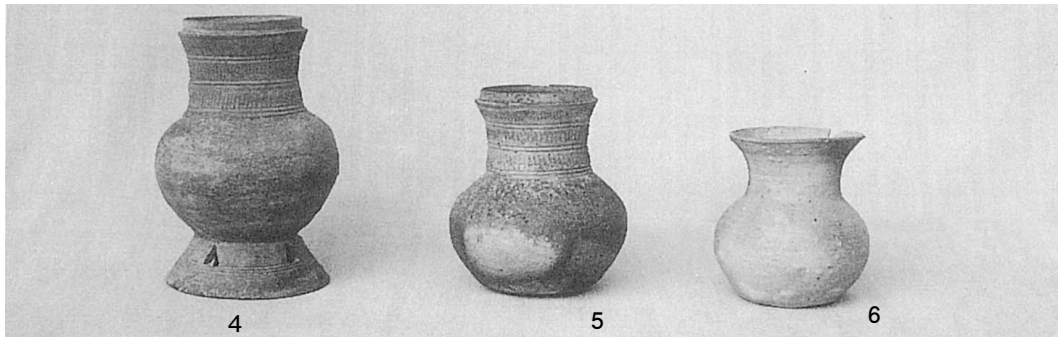
〈사진 15〉 23호 석곽묘 전경



〈사진 16〉 유물 배치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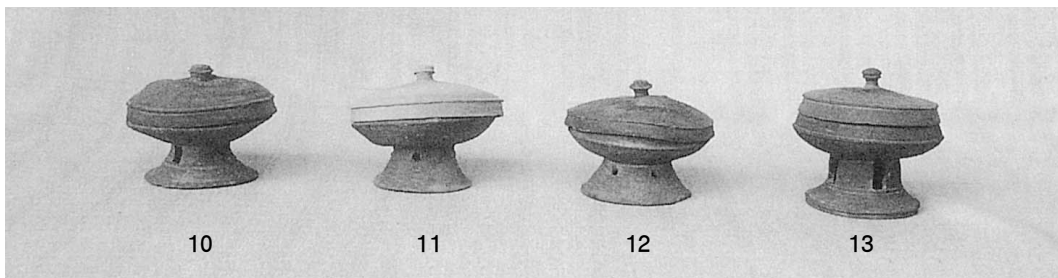
〈사진 17〉



〈사진 18〉



〈사진 19〉



〈사진 20〉

嶺南文化財研究 8

인쇄일 : 1998년 5월 23일

발행일 : 1998년 5월 23일

편집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발행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社團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法人

The Y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702-250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496번지

전화 : 053-325-4741, 4743, 4744

전송 : 053-325-4742